

천년 마을의 우아한 변신
안동

THE NEW STORM FORTRESS

새롭게 진화한 폭풍의 요새

ALPHA SV: BUILT FOR THE ALPINE

Greg Barrett
Whiteman Falls (WI 5/6)
Íyârhe Nakoda | Tsuut'ina | Blackfoot Territory
Canmore, AB
Photo: John Price



ARC'TERYX



이달의 여행 038 천년 마을의 우아한 변신 안동

안동포의 명맥을 잇는 금소마을 여인들과 허름한 골목을
예술 작품으로 채운 태화동의 예술가들,
고요한 밤거리를 밝히는 원도심의 청년들까지,
경북 안동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면했다.



표지 이야기

경북 안동 암산유원지

안동시 남후면에 자리한 암산유원지는 겨울철 인기 여행지로
꼽힌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미천(眉川)이 얼어붙어 거대한 야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진다.
얼음 두께가 18센티미터를 넘어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썰매를 끌고 나와 빙판 위를 누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각기 다른 시간에 동결된 얼음이 겹겹이 쌓여 마치
에메랄드빛 보석을 뿌려 놓은 듯하다.

LocknLockTM

락앤락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
TRUE TASTE, NOTHING ELSE



내부 세라믹 코팅으로
음료 본연의 맛 그대로



- 016 듣는 여행
뜨끈한 아랫목의 추억
매서운 겨울, 아궁이에 불을 때 방을 덥히던 아랫목의 추억을 소리로 듣는다.
- 018 촬영지 여행
두 여자의 위태로운 동행
드라마 <자백의 대가>의 와이너리 신은 경기도 파주 산머루농원에서 촬영했다.
- 020 여행자의 공간
내밀한 사색의 방, 라이팅룸
서울 을지로 골목에서 쓰는 행위에 몰입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찾았다.
- 022 한국의 멋
귀히 여기는 마음
조선 시대 십자형 보자기에서 영감을 얻은 '옥책갑 모티브 보자기'를 소개한다.
- 024 한국의 맛
새빨간 열매의 유혹
눈 내리는 계절의 딸기는 상큼한 과즙과 달콤한 향이 절정을 이룬다.
- 028 시절, 풍경
진묘한 순간
그 겨울, 카메라가 포착한 절묘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공개한다.
- 034 전국 행사 달력
2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이 계절에 흠뻑 빠져들 매력적인 행사를 골랐다.
- 062 여행의 발견
더할 나위 없는 삼척
강원도 삼척의 빼어난 풍광과 특별한 미식이 어우러진 여정은 몸과 마음을 활기찬 에너지로 채워 주었다.
- 078 기차안 세계 여행
꿈에서 찾은 건강한 삶의 방식
남태평양 섬사람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건강한 삶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 090 이 계절엔 여기
씻고 비우고 채우는 목욕 여행
몸에 이로운 온천수와 독특한 목욕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을 선별했다.
- 114 인터뷰
신인 감독 류현경
배우 류현경이 <고백하지마>로 영화감독이 되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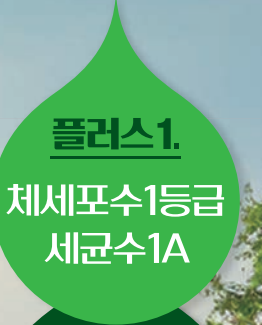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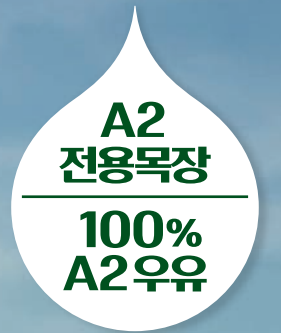


made in GYEONGJU
**경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경북 경주의 찬란한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
그리고 사람을 만났다.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Make the world healthy with milk."

120 전시보러갑니다

흑의 오디세이

신상호 작가가 흑으로 빚어낸 60년을 <신상호: 무한변주>전에 펼쳐 냈다.

128 함께 여행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여정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인선 퍼핏티어와 함께 인형극의 세계를 탐구했다.

136 에디터의 노트

한방의 지혜 맛보기

건강한 기운을 받았다고 다짐하며 서울 제기동의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했다.

142 한국 탐구 생활

부켓 권뒤즈의 망원동 탐험

한국살이 10년 차, 이스탄불에서 온 부켓 권뒤즈와 함께 서울 망원동을 누볐다.

150 KTX타고도보여행

마산 원도심 나들이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활기 넘치는 풍경을 관찰했다.

158 책 속의 무대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 집일 때 벌어지는 일

연극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은 인간의 욕망을 장수말벌에 빗대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162 트렌드 읽기

AI 시대의 역설, 근본이즘

AI가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 '진짜'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2월의 소식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 웃음과 감동으로 일상을 환기할 콘텐츠를 선정했다.

176 플레이리스트

신지훈과 떠나는 음악 여행

눈처럼 깨끗한 음색을 지닌 싱어송라이터 신지훈이 동심의 세계로 가는 음악을 전한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문화와 자연이 결합된 새로운
MICE모델을 제시합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대관문의 054)840-3483

한국문화테마파크 대관문의 054)840-3435

안 동 컨 벤 셴 뷰 로 업무문의 054)840-3484



안동시

2026년 02월호

KTX M A G A Z I N E

제23권 제2호 통권 제260호
2026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정정래(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고아라 ka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이미선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그날의 용기와 희생, 오늘의 빛으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2026년 2월 24일 개관

“남도에서 피어난 의병의 혼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전남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
☎ 061)286-7087



박물관 누리집

발견의 즐거움

〈KTX매거진〉을 만들며 하는 새로운 경험 중 하나는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는 것입니다. KTX를 타고 여행하거나 출장길에 나섰다가 매거진에서 제 이름을 보곤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 많은 활자 속에서 너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기쁨과 함께 안부를 전하는 사이, 저도 그들이 무척 그리웠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신기한 건 첫인사가 허끝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무수한 말이 오간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얼굴 보자, 건강 잘 챙기라는 인사를 끝으로 대화를 마치고 나면 수년 전 어느 날이 색색의 표정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일상의 작은 발견이 만든 생동감이랄까. 돌이켜 보니 한 달 전, 저도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천리포수목원. 국내에서 첫 열매를 맺은 올레미소나무와 가든스테이가 궁금해 찾아갔는데, 이름도 어여쁜 겨울정원을 맞닥뜨리곤 탄성을 질렀습니다. 누에고치처럼 몸을 웅크린 꽃봉오리부터 흐드러지게 나풀거리는 꽃송이까지 세상의 모든 동백을 모아 놓은 듯한 숲을 지나 수목원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하자, 회갈색 숲 사이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빨간 산호를 닮은 흰말채나무와 샛노란 공작새가 날개를 편 듯한 노랑말채나무, 앵두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호랑가시나무, 세 가닥 가지 끝에 좁쌀 같은 꽃봉오리를 감춘 삼지닥나무, 그리고 고양이와 가슴 털처럼 보드라운 목련까지. 겨울 식물은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생김새와 감촉, 오묘한 색의 조화가 경이로웠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목을 빼고 허리를 굽혀 찬찬히 들여다봐야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겨울정원에 서툰이보기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에도 기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오래도록 눈에 담고 싶은 장면을 풍성하게 실었습니다. 먼저 경북 안동에서는 천년 동안 안동포짜기를 이어 온 금소마을과 도예, 민화, 서예 등 각 분야 예술가와 주민이 뜻을 모아 문화 예술 마을로 거듭난 태화동, 그리고 서울 성수동 못지않은 감성으로 MZ세대의 발길을 붙잡는 원도심을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세심히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사는 만화 〈은하철도 999〉속 증기기관차를 타 보고, 5억 년 전에 생성된 환선굴과 대금굴을 탐험하는가 하면,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동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에너지를 돋우고 기력을 보충할 공간도 여럿 취재했습니다. 싱그러운 자연을 배경으로 온천욕을 즐길 전국 아홉 곳의 온천욕장과 온천 호텔, 핀란드식 사우나를 소개했고,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찾아가 안마와 지압, 약초족욕, 찜질용 안대 만들기 등을 에디터 체험기로 풀어냈습니다.

신인감독이 되어 나타난 배우 류현경을 만나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촬영한 영화 〈고백하지마〉의 뒷이야기를 들었고, 감독과 배우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이의 유쾌한 도전을 엿보았습니다. 인형을 뜻하는 퍼핏(puppet)에 치료 또는 요법을 의미하는 테라피(therapy)를 합친 용어 ‘퍼핏테라피’의 세계가 궁금하다면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여정’을 눈여겨봐 주세요. 퍼핏테라피연구소 녹두의 신인선 대표가 인형을 통해 내안의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안내합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에는 일상을 빛나게 할 작은 발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면, 강릉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With snow, Gangneung is
a whole new world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muck_..dduni



KTX를타면 화석에 꽃한 잡지를 꼭 본다. 전국에 어떤 축제가 열리고,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알려 주기 때문이다. 이번 호를 읽고 나서 다음 여행지를 태안으로 정했다.
#KTX매거진 #청량리역 #양산 #태안

@tenore.bang



<KTX매거진>에서 양산의 영화공장을 만났다. KTX 안에서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간 공간을 마주한 것이 새롭다. 이 잡지는 이동 시간을 문화와 사람으로 채운다.
#영화공장 #KTX매거진 #문화와사람 #잡지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아 울산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사소한 끌림이 여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태백의 여행 안내소인 체크인-태백에서 제공하는 나무로 된 관광주민증은 여행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 폐역을 개조한 식당 문곡역1962 사진에서는 아늑한 기운이 전해진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2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2월 11일까지

김혜울 충남 공주시 화봉뫼박물관길
기차 안에서 독서 등을 하고 <KTX매거진>을 읽는 시간이 쉼이다. 1월호에서는 '이방인의 단골집'에 소개된 평양냉면 가게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라면 감칠맛이 돈다는 냉면을 맛보러 가야겠다.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브랜드 아이돌로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이돌 물레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6년 신규회원모집

무기명 5,100만원 회원권 선착순 한정 모집!

I. 한정구좌

소노리움은 공유제 상품으로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되는 선착순 공유제
상품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II. 객실할인 10년·20년

객실 50% 혜택을 10년 또는 2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노리움 가입 시 사용
가능하며, 소노리스 회원 대우를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노리스 객실 | 가입혜택 미적용]

III. 평생 회원권

골프, 스키, 워터파크, 직영식음업장 등
200여곳 부대입장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누리는 회원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무기명 카드 6매 발급]



▲ 쓸비치 남해 2025년 7월 5일 그랜드오픈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부산 | 제주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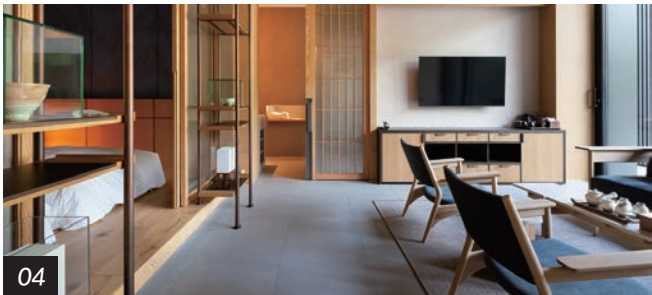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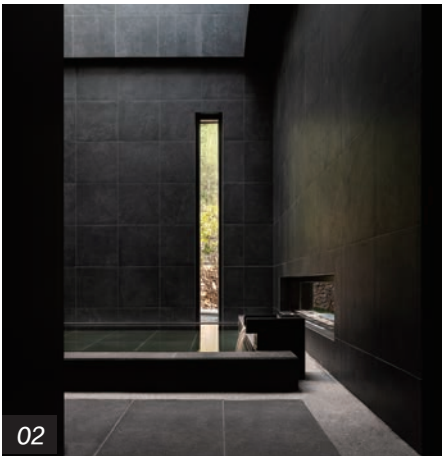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朝食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점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추위가 매서울수록 어깨를 부대끼며 모여드는 곳이 있다. 아궁이에 불을 때
열기를 끌어 올린, 별나게 뜨끈했던 아랫목의 추억.

뜨끈한 아랫목의 추억

QR코드를 찍으면 경북 영주 무섬마을의 고택,
만죽재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여자의 위태로운 동행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몰린 윤수에게 마녀로 불리는 살인자 모은이 다가와 거래를 제안한다. 자신이 살인 사건을 자백해 주는 대신 어떤 이의 목숨을 가져와 달라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자백의 대가>는 남편을 죽인 혐의로 구속된 여인과 마녀로 불리는 의문의 살인자,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남편을 죽인 용의자 안윤수 역은 전도연이, 의문의 살인자 모은 역은 김고은이 맡았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꿈꾸던 미술 교사 안윤수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산산조각난다. 조각칼에 목이 찢려 살해된 남편 이기대를 그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것. 최초 목격자인 윤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화려한 옷차림과 웃는 듯한 표정으로 경찰의 의심을 산다. 그녀가 범인이라는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한 수사 팀은 능력 있는 경찰 출신 검사 백동훈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는 남편 살인 범으로 의심되는 윤수를 귀가 조치한 뒤 그녀의 일상을 지켜본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마친 윤수는 한 와이너리로 향한다. 웃음 띤 얼굴로 여유롭게 와인을 고르는 윤수. 이 장면은 경기도 파주의 산머루농원에서 촬영했다. 1970년대부터 산머루를 재배해 와인을 만드는 한국의 토종 와이너리다. 윤수가 직원과 함께 거니는 거대한 와인 저장고에는 오크 통이 3단으로 빼곡히 쌓여 있어 웅장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윤수가 설레는 표정으로 좋아하는 와인을 구입하는 모습은 동훈의 의심을 키운다. 그녀가 구입한 와인, 베리테 멜롯이 이기대의 살인 현장에서 깨진 채 발견됐던 것. 이후 와인병 조각에서 윤수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녀는 피의자로 전환돼 구치소에 수감된다. 윤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단 한 사람, 모은을 제외하고. 치과 의사 부부를 살해한 후 뉴스를 통해 윤수의 외침을 들은 모은은 그녀를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다. 자신이 이기대를 살해했다고 자백할 테니, 그 대가로 한 남자를 죽여 달라고. 살인 혐의를 벗기 위해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 혼자 남은 어린 딸이 걱정된 윤수는 제안을 수락하고 구치소를 나간다. 이렇게 자백을 증명해야 하는 모은과 자백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안윤수의 위태로운 동행이 시작된다.

© 넷플릭스





여행자의 공간

EDITOR 신승희 · PHOTOGRAPHER 봉재석

LOVE-TO-DO list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길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때,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종이에 써 내려가는 것. 서울 을지로에 그런 시간을 온전히 허락하는 곳이 존재한다. 라이팅룸이다.

문구 브랜드 '라이트라이프'를 운영하는 송예원 대표는 쓰는 행위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주고자 2023년 6월 라이팅룸을 열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한 뒤 쓰고 싶은 마음만 들고 오면 된다. 라이팅룸은 연필, 볼펜, 색연필, 만년필, 지류 등 기록을 위한 도구를 부족함 없이 갖췄다. 진열된 만년필을 하나하나 써보며 손에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 자리에 앉는다. 다음에는 책상 아래 작은 서랍에 스마트폰을 넣어 두고 빈 종이를 마주한다. 무엇보다 써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 시선을 돌리자 갈색 봉투의 '글감 바구니'가 눈에 들어온다. 그 안에 손을 넣어 고른 쪽지에는 "나를 도와준 존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고마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자 비로소 첫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때로는 타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쓰고 싶은 마음이 깨어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는 '공유노트'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적는 '고민 노트'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이 남긴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이어진다. 읽다 보면 비슷한 감정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꽤나 큰 위안이 된다. 첫 문장의 운을 떼는 순간 글이 술술 풀리고, 이내 몰입에 이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히 정리된다.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27길 40

내밀한 사색의 방, 라이팅룸

세상의 소음을 피해 조용히 숨어들 공간을 찾았다. 의외로 그곳은 북적이는 서울 한복판, 을지로 골목에 있었다.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귀히 여기는 마음

김수연 작가의 ‘옥책갑 모티브 보자기’는 조선 시대 십자 보자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세자빈의 왕비 책봉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옥책(玉冊), 그 귀한 물건을 내 곶에 넣기 전, 십자 보자기에 한 번 더 감쌌다. 내용물의 크기와 모양, 물성과 가치를 정확히 이해한 보자기. 맞춤옷처럼 세심하고 단호한 만듦새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읽힌다. 이 작품은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 기획 전시 <담아 이리다>(2025)에 소개된 바 있다.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젊음은 세포에서, 행복은 뇌에서 온다” 줄기세포와 세로토닌으로 풀어낸 몸과 마음의 회복학

청담셀의원 조찬호 원장, 이시형 박사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무엇일까. 청담셀의원의 조찬호 원장과 이시형 박사를 만나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물었다.

몸이 젊고 건강하려면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에 생기가 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청담셀의원이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항노화 치료에 집중하는 조찬호 원장과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박사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찾아 준다. 조 원장은 특히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으로 젊음을 관리해 주는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이시형 박사는 현재 청담셀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

두 분이 함께 ‘헬스케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찬호 원장 저는 줄기세포를 통해 세포 본연의 회복력을 끌어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로 젊음을 회복한 뒤 이를 잘 유지하려면 마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생 속도를 결정짓는 의외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인데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도 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치료는 정신의학, 뇌과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형 박사** 조 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평생 뇌 속의 세로토닌을 연구했습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건, 세로토닌이 안정된 사람은 면역력과 회복력이 함께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뇌 건강이 세포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포 재생과 마음의 평온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군요. 이시형 박사 맞습니다. 세로토닌은 일종의 ‘젊음의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세로토닌이 고갈되고, 이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화는 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찬호 원장**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개념이 ‘프리juvenation’입니다. 이미 노화된 세

포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노화 징후를 늦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요. 세로토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세포 재생력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청담셀의원이 지향하는 ‘헬스케어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조찬호 원장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 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까지 종합해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 패턴’을 디자인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을 관리하는 ‘활셀(活Cell)’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시형 박사 요즘은 외적인 젊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부가 팽팽하고 체력이 좋아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회복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의 거울이에요. 줄기세포가 몸을 되살리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되살리는 거죠.

두 분이 함께 그리는 ‘젊음의 철학’이 있다면요? 조찬호 원장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회복력과 마음의 평온함이 동시에 유지될 때 진정한 프리juvenation이 완성됩니다. **이시형 박사** 결국 건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몸을 돌보는 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 둘 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죠. 저는 이제 의학이 기술을 넘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웰에이징입니다.



새빨간 열매의 유혹

설향(雪香)이 등장하면서 겨울이 딸기의 제철이 됐다. '눈 속의 향기'라는 이름처럼 눈 내리는 계절의 딸기는 맛과 향이 절정을 이룬다. 한 입 베어 물면 상큼한 과즙과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70호에 등록된 전남 담양의 딸기는 영산강 시원지의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에서 재배해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과육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다.

“에스텍의 전문성, 내 손안에” 파나소닉 뷰티 EH-SP86



EMS와 팔사의 완벽한 시너지,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 하루 한번, 팔사 마사지로 얼굴부터 목, 팔뚝, 종아리 등 전신 케어
- 에스텍 전문가의 손과 손가락 곡선을 재현한 팔사 웨입이 피부를 따라 부드럽게 밀착
- 6단계 강도 조절 및 2단계 온열 기능(저온 약 40도, 고온 약 43도)으로 부위별 맞춤 케어
- 4전극 EMS(100Hz)가 피부 표면과 근육층을 동시에 자극해 얼굴 윤곽부터 바디 라인까지 탄탄하게 리프팅
- 피부 표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EMS가 근육을 서서히 자극하며 자연스러운 탄력과 리프팅 효과 극대화
- 톡톡 두드리는 탭핑과 짹 조이는 자극을 결합한 듀얼 파형 EMS로 피부 표면부터 깊은 근육층까지 폭넓게 자극



VITALIFT
KASSA
EH-SP86

Panasonic

2026
HAPPY NEW YEAR

"병오년 365일, 건강한 시작"
파나소닉 안마의자와 함께

PREMIUM REAL PRO MAN1 최대 250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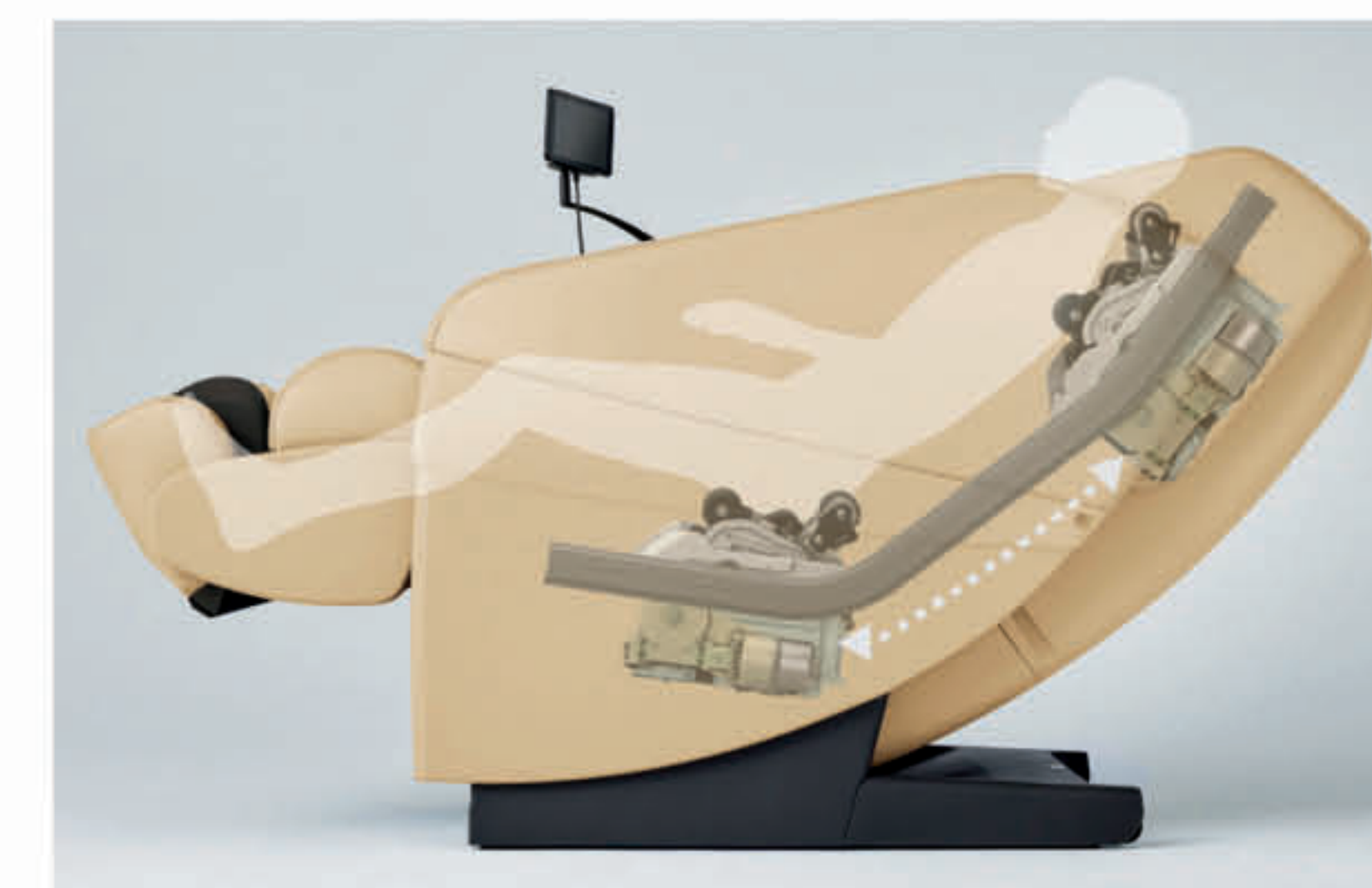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언제나 사람받는 안마의자
91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최상위 안마의자 REAL PRO MA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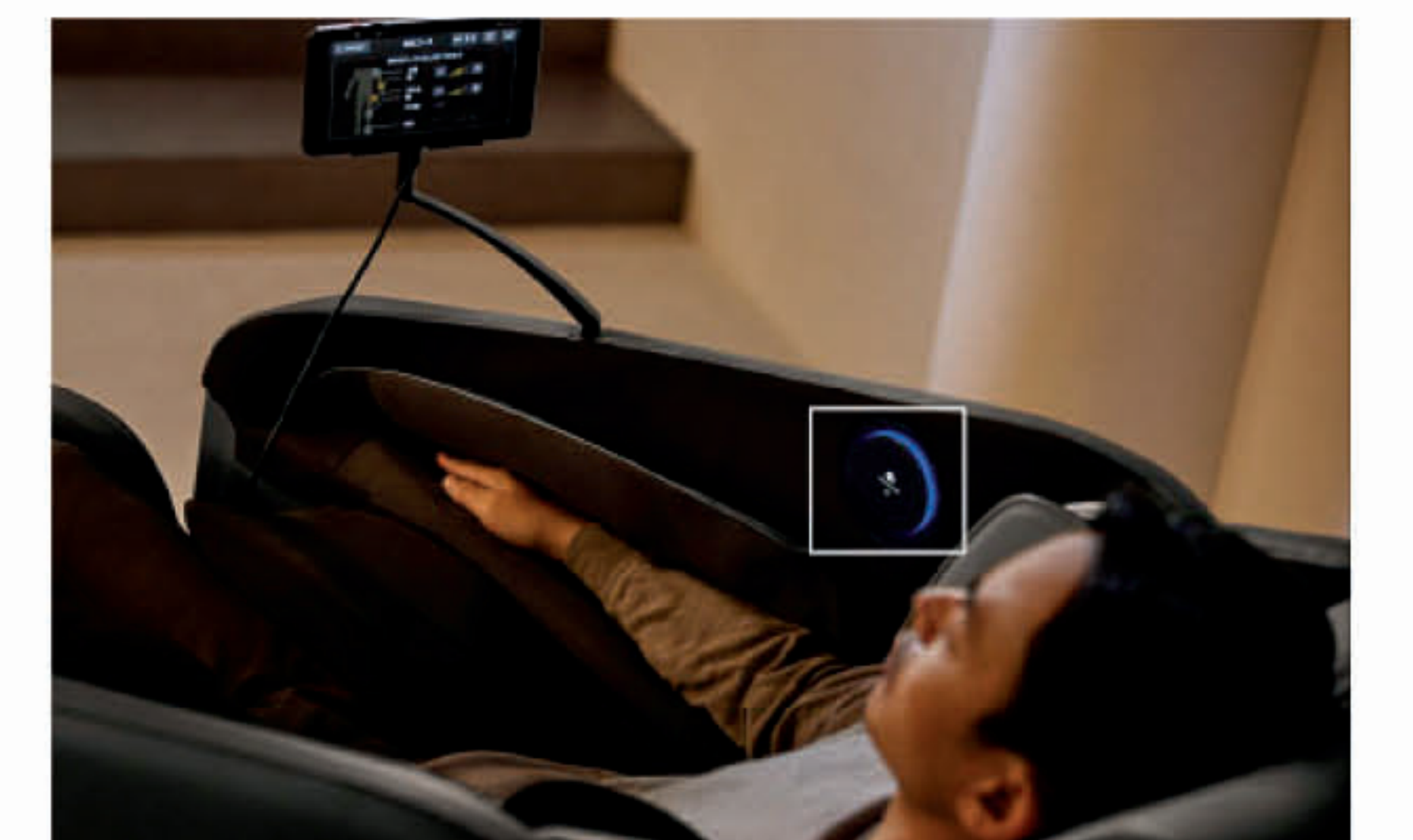
1 새로운 프레임

마사지 볼 도달 부위를 목에서부터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장한 SJ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 전신을 감싸는 셀 디자인

몸 전체를 감싸는 셀 형태의 의자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끼며 궁극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nanoeX 탑재

일반 음이온의 1000배 이상 수분을 간직한 나노이 입자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탁월한 탈취 효과를 제공한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REAL PRO'란?

'REAL(실제)'과 'PRO(전문가)'를 합친 REAL PRO는 파나소닉의 최상위 안마의자 시리즈 브랜드다. REAL PRO가 추구하는 궁극의 안마의자는 실제로 전문가가 마사지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전하는 것. 파나소닉의 '휴먼 핸드' 마사지 기술은 최소 10밀리미터 폭까지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과 실제 손의 체온과 같은 온열감을 구현한다.

병오년 2월,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특별 프로모션

퍼스트 클래스 안마의자 브랜드의 선두 주자, 파나소닉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할 절호의 기회. 이벤트 기간에 REAL PRO MAN1을 구매하면 최대 2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 2월 1일~28일 문의 www.panasonic.co.kr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기간: 2/1 ~ 2/28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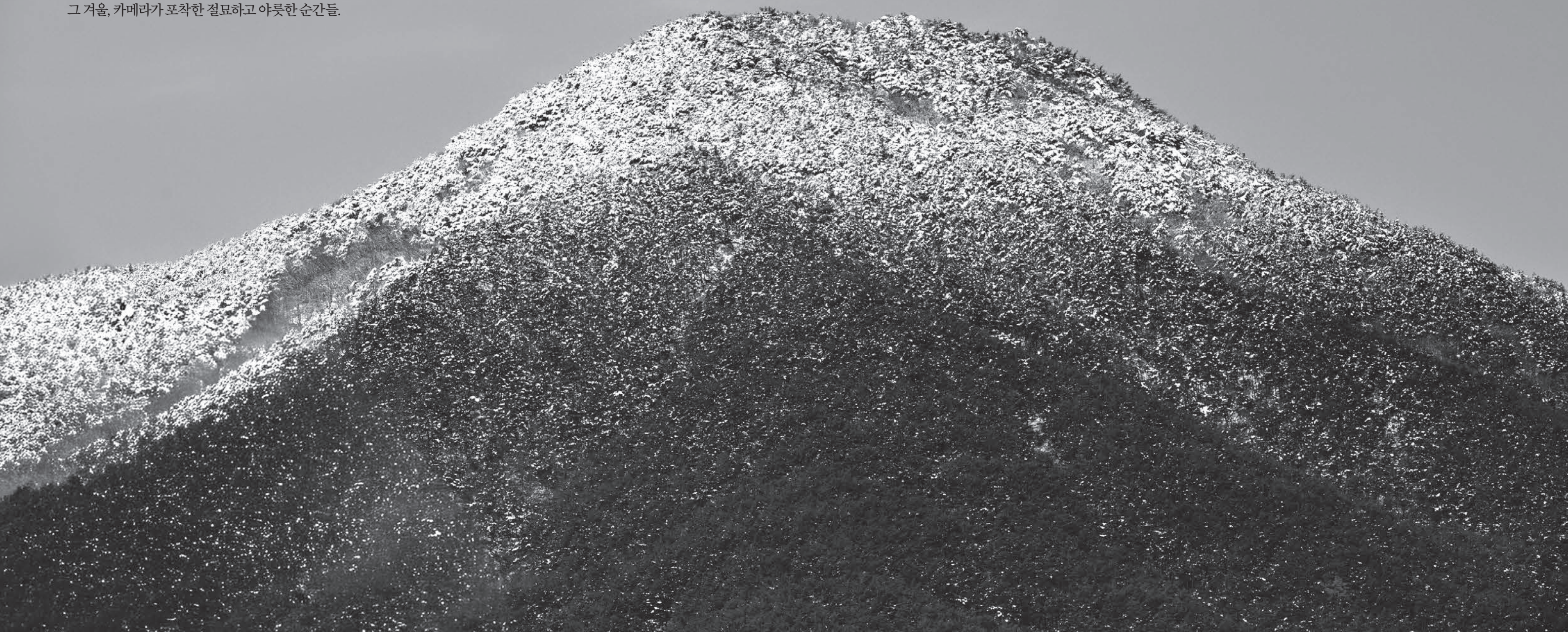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접찬 판매중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panasonic.co.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 파나소닉 줄인프라자 (051)255-022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 금호월드 (062)350-8397 | 롯데 백화점 본점 | 롯데 백화점 잠실 | 롯데 백화점 강남 | 롯데 백화점 입산 | 롯데 백화점 센텀 | 롯데 백화점 대전 | 롯데 백화점 광주 | 롯데 백화점 인천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 현대 백화점 목동 | 현대 백화점 판교 | 현대 백화점 여의도 | 현대 백화점 대구 | 현대 백화점 중동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신세계 백화점 강남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 신세계 백화점 대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제주 돌담에 슈거 파우더를 뿌린 듯한, 별건 대낮 지리산 꼭대기의 폭설.
2024년 2월 전북 남원

진묘한 순간

그 겨울, 카메라가 포착한 절묘하고 야릇한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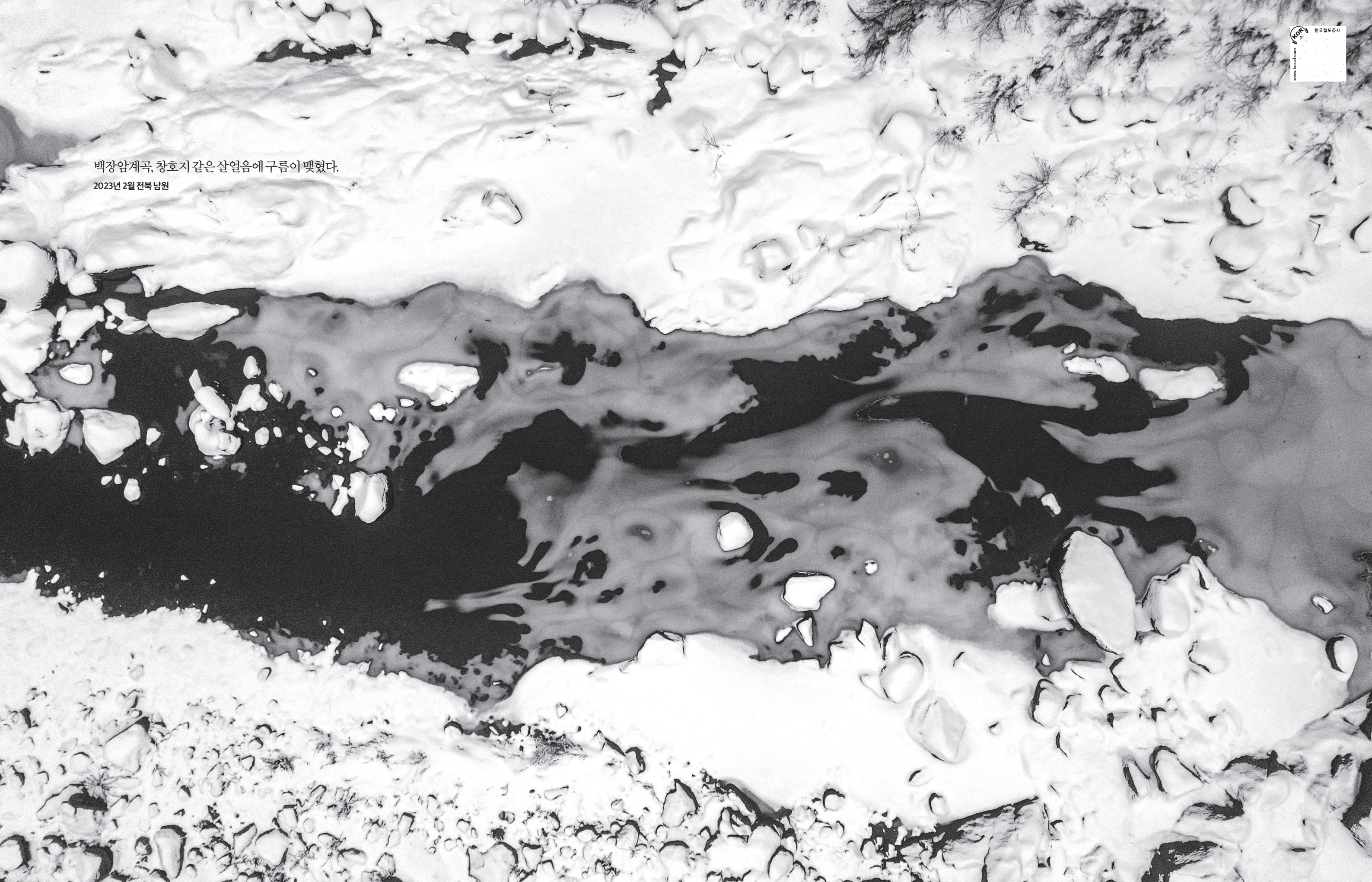


바닷속을 헤엄치고 싶었던 걸까. 물고기가 된 금강 하구의 가창오리 떼.

2010년 2월 전북 군산

백장암계곡, 창호지 같은 살얼음에 구름이 맺혔다.

2023년 2월 전북 남원



EXHIBITION



〈작품 위의 미술관〉

대전 2025.12.16~2026.02.18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시립미술관이 수집한 주요 소장품을 소개한다. 한국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51명 작가의 작품 59점을 출품한다. 김수영의 시 '달나라의 장난'을 모티브로 한 민성홍의 설치 작업 '두 개의 달', 과감한 색채 활용으로 알려진 박능생의 한국화 '톨레도(스페인)', 알루미늄 와이어를 뜨개질해 제작한 이원경의 '분홍고래'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를 풀이하고 창작 의도를 설명하는 '쉬운 말 해설(소소한 소통)'을 제공한다.

장소 대전시립미술관
문의 0507-1378-7370



〈손동현: 석양에 내려앉은 눈〉

서울 2025.12.16~2026.03.31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청전 이상범 가옥에서 두 번째 전시가 열린다. 전통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이상범의 예술 정신과 맞닿아 있는 동시대 작가로 손동현을 선정했다. 작가는 2006년 ‘Pop-Icon’을 한문으로 음차한 ‘파압아익혼(波狎芽益混)’이라는 제목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 슈퍼맨 같은 대중 예술의 아이콘을 한국화 기법으로 그린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전의 설경 산수화에서 영감받은 신작 ‘한림모설’을 포함해 20여 점을 공개한다.

장소 서울 청전 이상범 가옥
문의 02-730-6216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안동 2026.02.13~14

70세 생일을 맞은 춘자는 소원을 빌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 순간 춘자에게서 빠져나온 영혼의 물고기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를 따라 기상천외한 모험을 떠난다.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춘자와 사라진 춘자를 찾는 가족의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며 삶의 소중한 순간을 조명한다. 록, 트로트, 보사노바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 화려한 무대 연출로 치매를 앓는 한 사람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풀어낸 뮤지컬이다. 서울 초연 당시 코미디언 김준현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소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문의 054-840-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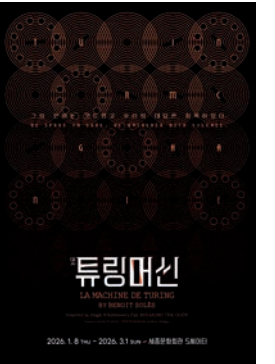


〈튜링머신〉

서울 2026.01.08~03.01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비밀 암호 에니그마(enigma)를 해독해 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현대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이자 인공지능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연극 <튜링머신>은 튜링의 집에 도둑이 들어 시작된 경찰 조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비밀을 품은 한 인간의 고뇌를 그린다. 두 배우가 끊임없이 주고받는 촌촌한 대사와 호흡은 2인극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해 관객을 튜링의 삶 한가운데로 깊이 끌어들이는다.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6954-0772



FESTIVAL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공주 2026.02.04~08

갓 구워 따끈따끈한 밤은 추운 계절에 먹으면 더 맛있다.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에서는 밤을 소재로 한 각종 이벤트가 열린다. 올해는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금강산관광원에서는 지름 2미터의 대형 화로에서 알밤 뜯망을 이용해 품질 좋은 공주 알밤을 구워 먹고, 밤 모양 비누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군밤 장수로 변장한 배우를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 미르섬에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놀이터와 포토존을 설치했다.

장소 충남 공주 금강산관광공원 및 미르섬
문의 041-840-8406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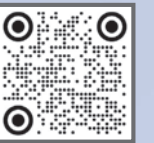
태백 2026.01.31~02.08

겨울의 묘미는 새하얀 눈을 마음껏 보고 만지는 것. 태백의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에서는 거대한 크기의 눈 조각 전시품을 구경하고, 얼음 썰매와 눈썰매를 타며 이 계절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올해는 공식 로고 송도 생겼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간결한 가사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좋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Real'로, 항상 기억에 남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휴식이 공존하는 축제를 의미한다. 진짜 겨울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태백으로 떠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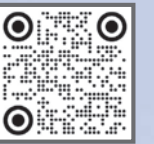
장소 강원도 태백산국립공원 일원
문의 033-553-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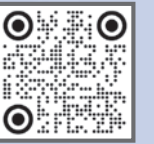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천년 마을의 우아한 변신

안동

새로운 방식으로 안동포의 명맥을 이어 가는 금소마을과
주민들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태화동, 안동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한 원도심까지, 익숙한 이름 뒤 낮은 골목을 걸으며
경북 안동의 생생한 얼굴을 마주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안동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제작 지원 안동시청

대마의 무한한 변신 금소마을

‘안동포짜기’를 천년 동안 이어온 금소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삼베의 원료인 대마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옛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옥 스테이에서 하룻밤을 청한다.

경북 안동 임하면의 금소마을은 금양마을 또는 금수마을로도 불렸다. 금양(錦陽)은 비단처럼 따뜻하고 고운 양지를 뜻하고, 금수(錦水)는 마을을 휘감는 물길이 마치 한 필의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는 의미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와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덕분에 예부터 질 좋은 대마가 생산됐는데, 대마 줄기로 만든 삼베가 바로 안동포다. 금소마을은 전국 최고 대마 생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포짜기가 현재까지 계승·보존되고 있으며, 산업용과 의료용 대마 제품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마을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대마민국 금소마을 1박 2일 촌캉스 프로그램 ‘금양연화’에 참여했다. 커뮤니티 센터인 고고창고에서 대마 차 시음을 시작으로 전통 간식 찰오찌 만들기, 안동포짜기 시연 감상, 옛 고택을 개조한 한옥 스테이에서 하룻밤 묵기 등 대마의 다양한 매력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다. 날이 따뜻한 계절에는 대마밭에서의 명상, 대마 뿌리를 넣은 백숙 체험, 대마 잉여물로 만든 유등 띄우기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고고창고

수백 년은 족히 돼 보이는 고택이 길을 따라 줄지어 선 마을에 옛 주민들이 먹을 감거나 물놀이를 했던 수로가 휘감듯 흐른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으로 천천히 걷다 보면 문득, 세련된 건물 하나가 여행자를 2026년의 안동으로 되돌려 놓는다. 옛 농협 창고를 개조한 카페이자 금소마을 여행자 커뮤니티 센터인 고고창고다. 내부에는 대마 줄기로 만든 블라인드와 대마 껍질을 이용한 카운터 바가 눈에 띈다. 카페 옆 체험 공간에는 안동포 조각보를 줄줄이 매단 색동 모빌과 대마 줄기를 엮어 만든 금봉



어등 대마로 만든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모두마을 공예가와 안동포짜기 명인의 손에서 탄생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긋한 대마 차가 먼저 반긴다. 대마를 차로 마시다니... 고고창고를 운영하는 권용숙 국장이 그 이유를 말해 준다. “금소마을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어요. 환각 성분 0.3퍼센트 미만의 대마인 헴프를 국가에서 의류용이나 의료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곳이지요. 이 마을에서는 환각 성분이 있는 잎을 제외한 대마의 모든 부분을 유용하게 씁니다.” 대마 줄기는 안동포에, 대마 뿌리는 음식에 쓰고 대마 씨앗은 차로 우리거나 기름을 낼 때 사용한다.

고고창고에서는 대마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도 선보인다. 대마 씨앗으로 짠 헴프씨 오일로 풍미를 극대화한 커피, 빵 안에 대마 씨앗과 찹쌀을 넣은 안동찹쌀 파이 등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대마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산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 아토피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 개선에도 좋고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늘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덕분일까, 장수 마을로 알려진 금소마을 주민들의 치매율은 안동의 다른 마을에 비해 현저히 낮다.

차에 곁들일 디저트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다. 예부터 금소마을에서 즐겨 먹던 전통 간식인 찰오찌를 재해석해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 찹쌀과 맵쌀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서 동글납작하게 부친 뒤 대마잎 모양의 종이를 올리고 녹차 가루나 치자가루 등을 뿌리면 고운 색의 찰오찌가 완성된다. 보드라운 찰오찌를 한 입 베어 물면 쫄쫄한 식감과 고소한 맛에 금세 빠져든다.

여인들의 고행이 깃든 안동포

삼베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전수교육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으로 들어서니 전통 베틀에서 기다란 삼으로 안동포짜기 시연이 한창이다. 교육사인 박순자 할머니와 이수자인 고갑연·김영숙·남귀숙 할머니까지 모두 네 분, 안동포의 명맥을 잇는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어르신들이다. 멀리서 보면 한없이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을 고르는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인다. 가까이 붙어 앉아 흘린 듯 지켜보고 있으니 할머니들이 옛이야기의 실타래를 훌훌 풀어

놓는다. 과거 금소마을로 시집온 여인들은 대부분 안동포를 짰다. 절차가 복잡하고 고단해 이 지역으로 시집오기를 꺼렸는데, 듣고 보면 과연 그럴 만하다. 먼저 수확한 대마의 잎을 제거하고 증기에 찌서 햇볕에 말린 뒤 겹질을 벗긴다. 겹질을 훑어내 취한 속겹질을 일일이 손톱으로 찢고 다시 훑어 낸다. 이렇게 만든 계추리를 햇볕에 말려 물에 적시는데, 이제부터 그야말로 고행이 시작된다. 삼 올을 이로 가늘게 쪼개어 뽕죽하게 만든 후 허벅지에 비벼 이어야 하는 것. 한 번 잇는 삼의 길이는 무려 22미터에 달한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몸에 배어 익숙해진다는 뜻의 ‘이끌이나다다. 이로 올을 쪼개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금소마을 여인들의 이가 움푹 패어 곱이 생긴 것. 쪼개진 삼을 허벅지에 멍이



11박 2일 금소마을 찬란스 프로그램 '대마민국'에서 진행되는 찰오찌 만들기 체험. 2 안동포 조각으로 만든 색동 모빌. 3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어르신들이 삼을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 4 안동포의 원료인 대마를 활용한 차.



1 스테이 예인의 욕실
입구엔 대마 줄기로
만든 커튼이 걸려 있다.
2 안동포로 만든 커튼과
동그란 조명이 금소마을에
뜨거운 달을 연상케 한다.
3 금소마을에서 길안천을
건너면 전국 최대 친수
공원인 금소생태공원을
만난다. 4 고택을 개조한
한옥 스테이, 스테이 예인.

들도록 비벼서 있다 보니 다리도 성할 날이 없다. 베들 앞에 앉아
지난한 시간을 건디며 어느덧 40~50년을 훌쩍 보냈다. 할머니가
된 금소마을 여인들은 지금도 손에 익은 베들을 끌어안고 처음
배운 방식 그대로 안동포를 짠다.

한옥의 화려한 변신, 스테이 예인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불길의 안동까지 번지면서
금소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한다. “마을이 온통 불바다였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고 불씨가 이리저리 날아다녔지요.”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임병호 회장은 당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집집마다
가스를 잠그고 한옥에 물을 뿌렸다. 화마가 휩쓸고간 흔적은 잔
인했다. 마을을 둘러싼 산은 까맣게 그을리고, 애써 일군 논과
밭은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
다. 서둘러 복원 작업에 나섰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을은 다
시 평화로운 풍경을 되찾았다.

이제 금소마을은 여행자를 맞이하기 위한 채비로 분주하다. 수
년 전부터 마을의 버려진 한옥을 수리해 온 임 회장은 화재 이후
스님이 사용하던 춘집을 한옥 스테이로 바꿨다. 그를 따라 스테
이 예인에 들어서자 아늑한 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거실을
중심으로 왼편에 자쿠지와 다락방이, 오른편에 침실이 자리한
다. “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던 부엌을 욕실로 바꿔 자쿠지를 설치

하고, 다락방은 아담한 차실로 꾸몄어요. 자개장과 원목 서랍장,
이치형 목재 난간은 제가 직접 구한 것이고요.” 여느 한옥 스테이
에서는 보기 힘든 삼베도 눈길을 끈다. 욕실에 대마 줄기로 만든
커튼을 달고, 부엌장과 머릿장은 삼베를 바른 후 옷칠로 마무리
했다. “삼베는 주로 수의를 만드는 데 썼잖아요. 망자의 몸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향균과 항습 기능이 있는 삼베옷을 입힌 거죠. 그
런데 수의 문화가 점차 사라져 삼베를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이 많
았습니다.” 임 회장은 향균과 항습은 물론 피부 질환 개선에도 효
과가 있는 삼베를 가구나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

스테이 예인에 묵은 안동에서의 첫날 밤, 오묘한 무늬의 보름달
이 떴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이불로 어깨를 감싸고 툇마루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본다. 처마 끝에 걸터앉아 가만히 마을을 굽
어보는 달과 눈을 맞추니 도심에서의 분주한 일상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졸음을 참으며 밤새 삼베를 짜
던 여인들도 이 달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았을까.

다음 날 아침, 스테이 예인에서 도보로 15분이면 닿는 금소생태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마을 앞 독길을 따라 건다 보면 낙동강
으로 흘러드는 길안천을 만나고, 잔잔한 물길 위에 놓인 돌다리
를 건너면 금소생태공원에 닿는다. 이 공원은 전국 최대 친수 공
원으로 규모가 무려 20만 제곱미터(약 6만 평)에 달한다. 야외 공
연장과 파크 골프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
며 마을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서 산책과 사색을 즐긴다.





Geumso Village, The Endless Transformations of Hemp

Located in Imha-myeon, Andong, Geumso Village has long been known for producing high-quality hemp, thanks to its well-drained sandy soil and abundant sunlight. The ramie fabric woven from hemp stalks here is known as Andongpo. Living up to its reputation as Korea's finest hemp-producing region, the village continues to preserve and pass down Andongpo weaving, designated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0.

Housed in a renovated former Nonghyup warehouse, Gogo Changgo serves as both a café and the community hub of Geumso Village. Alongside tea, it offers creative menus using hemp. Coffee enriched with hemp seed oil delivers a deeper aroma, while the Andong Jjimdak Pie, filled generously with hemp seeds and braised chicken inside flaky pastry, is a house specialty found nowhere else.

At the Andongpo Weaving Preservation Association Training Center, visitors can watch demonstrations of traditional looms and long hemp fibers being woven into cloth. In the past, most women who married into Geumso Village learned Andongpo weaving as a matter of course. Now grandmothers of the village continue the craft, steadfastly using traditional methods to keep the lineage alive.

. Im Bang-ho, head of the Andongpo Weaving Village Preservation Association, transformed an old hanok once used by a monk as a hermitage into Stay Yein. A former kitchen was converted into a bathroom with a jacuzzi, while the attic became a cozy tea room. Curtains made from hemp stalks hang in the bathroom, and cabinets and wardrobes are finished with layers of ramie cloth sealed in lacquer.

Address 6, Geumso 2-gil, Imha-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Gogo Changgo);
563-51, Geumso-ri, Imha-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Andongpo Weaving Preservation
Association Training Center); 23, Geumso 4-gil, Imha-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Stay Yein)

골목에 피어난 예술 태화동

이재민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낡은 담벼락을 수놓은 색색의 벽화와 좁은 골목에
들어선 예술가들의 작업실,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한옥이
허름한 도시의 표정을 바꿔 놓았다.

안동시 중심에 위치한 태화동은 1970년대 안동댐 건설 이후 수
몰 지역 이재민의 새로운 거주지로 조성한 마을이다. 짧은 기간
에 많은 집이 필요했고, 그 결과 비슷한 구조의 집들이 좁은 골목
을 따라 촘촘히 들어섰다. 하지만 불과 10년 후 주변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고, 태화동의 시간은 50년 전
에 멈춰 섰다. 한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태화동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빈 주택과 상가에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이 들어서면
서부터다.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시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
은 태화동은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오히려 '힙'한 마을로 급부상
했다. 여행자를 가장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태화동 주민들이 마을을 안내하는 도슨트로 나서고 숙
소도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 '응답하라 태화, 태트로 여행 1박2
일에 참여하면 이 마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골목을 지키는 사람들, 서경지길 아트로드

태화동의 '아트로드'라 불리는 서경지길은 독특한 역사를 지녔
다. '서경지'라는 커다란 못이 있던 자리를 메워 마을을 형성한
것.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 오랜 시간 방치됐던 이 길이 활기를
되찾은 건 2019년 골목길 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다. 버려진 상
가와 주택에 도예, 민화, 서예, 서양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예
술가들이 공방을 차렸고, 주민들도 합세해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을을 만들까 고민했다. 골목에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벽화가
양옆으로 펼쳐지고, 반듯한 담벼락에는 동네 아이들이 만든 판
화가 전시돼 있다. 집집마다 도자기에 붓글씨를 쓰거나 색색의
천 조각을 바느질해 만든 독특한 문패가 걸려 있어 구경하는 재
미가 쏠쏠하다.

태화동 여행은 연꽃 차 체험으로 시작된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1 '응답하라 태화, 태트로 여행 1박 2일'의 연꽃 차 체험.
2 서경지길의 학수네 책방은 한옥 구조를 그대로 살려 개조했다.
3 태화동 주민들의 단골 맛집 '중화관'의 돌썰뽕. 4 관왕묘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운세 점치기. 5 통유리창으로 아늑한 실내가 들여다보이는 토닥토닥 한옥스테이.

연꽃이었던 것에서 착안해 웰컴 티로 연꽃 차를 준비한 것이다. '응답하라 태화, 태트로 여행 1박 2일'에 참여하면 한옥 스테이나 공예 공방 등 원하는 곳에서 연꽃 차를 즐길 수 있다. 에디터가 서경지길을 찾은 날 연꽃 차 체험이 진행된 곳은 바느질 공방인 '생활공방'. 공간 한가운데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연꽃이 담긴 그릇과 망개떡, 찻잔을 낸다. 연꽃은 한여름에 만 봉오리를 냉동 보관해 향과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한 것으로, 커다란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안동포처럼 은은한 빛깔의 꽃잎이 서서히 몸을 편다. 공방 가득 연꽃의 향긋함이 퍼진다.

오후에는 예술 공방 체험이 이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도자기 빚기, 재봉틀로 파우치 만들기, 민화 그리기, 책갈피 만들기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그중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 '현도에'에서는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물레 돌리기, 점토 빚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흙은 정직해서 손이 가는 대로 움직여요." 김강현 대표의 말을 되새기며 차분하게 흙을 매만진다. 정성스럽게 다독이다 보니 매끈하진 않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컵이 완성된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체험 공간은 '학수네 책방'.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이곳에서는 버려진 택배 박스에 안동 한지를 붙인 후 책속 문구를 넣어 책갈피를 만드는 체험을 한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기도 좋다. 책방 내 다락방에는 아늑한 조명 아래 폭신한 방석을 깔아 프라이빗한 독서실을 마련했다. 책방 옆에는 하루 종일 텀블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2층 침대와 독서 조명, 책장으로 꾸민 스테이도 자리한다.

보고먹고 즐기는 태화마을

안동의 관왕묘는 한국 전역의 관왕묘 중 유일하게 관우의 석상을 모신 곳이다. 안동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으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사당 중앙에 자리한, 화려하게 채색된 관우의 석상은 육중한 몸과 굳은 표정에서 위엄이 느껴진다. 사당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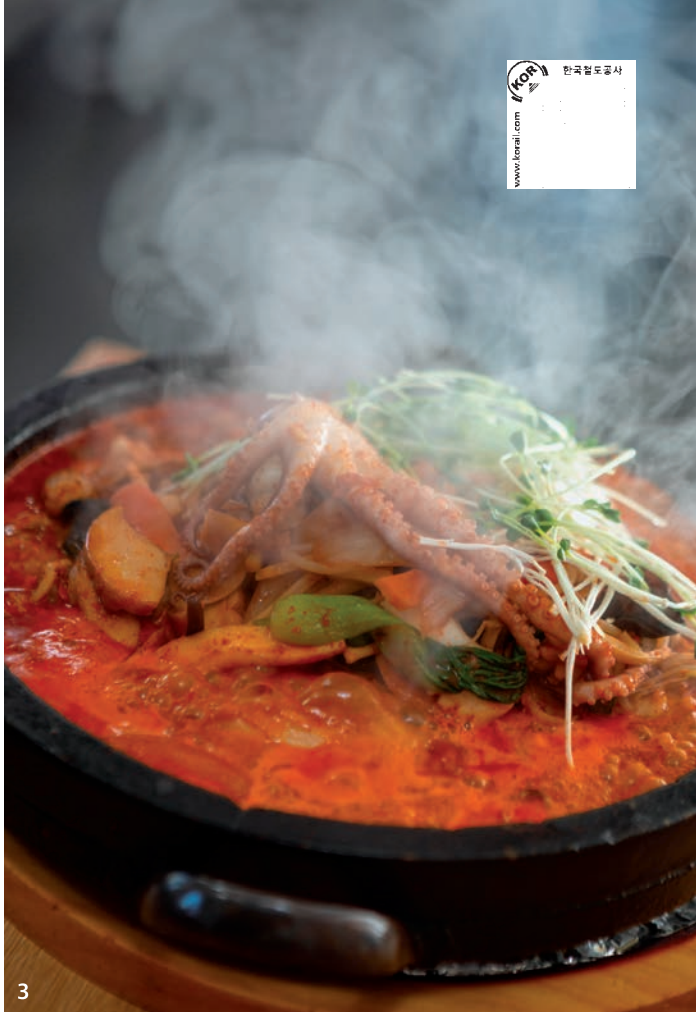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관제영첩(관우를 모시는 사당에서 점을 칠 때 사용한 점괘 도구)으로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는 것. 원형 통에 운세가 적힌 종이가 돌돌 말려 있는데, 통을 살살 흔들다 보면 신기하게도 종이 하나가 빠죽 솟아오른다. 설레는 마음으로 종이를 펼쳐 보니 "가벼운 산책이 큰 힐링으로 이어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토록 영험할 수가. 태화마을을 걸으며 마주한 아름다운 풍경과 정다운 이야기로 위로받은 에디터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 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니 슬슬 배가 출출해진다. 현도에의 김 대표가 추천한 돌썰뽕 맛집 '중화관'으로 향했다. 주문과 동시에 낙지와 오징어, 새우, 홍합 등 각종 해산물이 가득 담긴 썰뽕이 나온다. 돌판 위에서 자글자글 끓는 국물을 한 수저 크게 떠마시니, 뜨끈하고 얼큰한 맛에 언 몸이 스르르 녹아내린다. 밖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고소한 빵 냄새가 발길을 붙든다. 태화동 주민들이 사랑하는 빵집 '느리게 굽다'와 '영가제과'다. 최근 빵지순례 코스로 두 곳을 찾는 여행자가 늘고 있다. 느리게 굽다는 저온 발효로 소화가 잘되는 건강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영가제과는 태화동의 터줏대감 격으로 36년간 매일 아침 6시부터 빵을 굽는 동네 맛집이다. 오랜 세월 주민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져 온 영가제과의 옛날햄버거는 태화동 미식 여행에서 꼭 먹어 봐야 할 메뉴다.

위로를 건네는 집, 토닥토닥 한옥스테이

태화동에서는 숙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늑하고 시설 좋은 한옥 스테이가 여럿 있기 때문. 그중 넓직한 거실과 테라스에 반해 토닥토닥 한옥스테이를 선택했다. 50년 된 고택을 개조한 곳으로 2023년에 문을 열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통창으로 아늑한 실내가 들여다보이는 한옥과 아담한 족욕 공간이 자리한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토닥토닥 한옥스테이는 머물수록 더 좋아지는 매력을 지녔다. 하루를 편안히 마무리하도록 욕실에 반신욕용 욕조를 설치하고, 여행 중 오염되는 옷을 신경 쓰지 않도록 침실에 스타일러도 구비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주인장이 직접 조식을 만들어 배달해 준다. 메뉴는 콩나물 떡국과 직접 담근 김치. 뜨끈한 국물과 떡을 함께 떠먹으면 "시원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편안한 잠자리와 세심한 배려, 든든한 아침 식사까지, 마치 시골 할머니 댁에 머무는 기분이다.



Taehwa-dong, Where Art Blooms Along the Alleys

Taehwa-dong, located in central Andong, was developed in the 1970s to house residents displaced by the construction of Andong Dam. In recent years, its preserved streetscape has ridden the retro revival, transforming the neighborhood into a new creative enclave. Vacant homes and shops now host local artists' studios, filling the area with things to see and do.

Seogyongji-gil, known as Art Road, has an unusual past. The street was built by filling in a large pond once called Seogyongji. After years of neglect as residents moved away, the alley was revitalized through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2019.

Andong's Gwanwangmyo Shrine is unique among similar shrines across Korea in that it enshrines a stone statue of Guan Yu. Designated a Gyeongsangbuk-do Folk Cultural Heritage in 1982, the shrine features a vividly painted seated statue whose imposing presence and solemn expression convey quiet authority.

Opened in 2023, Todak Todak Hanok Stay was created by renovating a 50-year-old traditional house. Passing through a narrow alley and wooden gate reveals a tranquil hanok and small garden. To ensure a restful night, the bathroom includes a soaking tub, and each room is equipped with a steam closet. In the morning, guests are treated to a homemade bean sprout rice cake soup delivered by the host.

Address Taehwa-dong, Andong-si, Gyeongsangbuk-do (Seogyongji-gil); 67-6, Seoak-gil, Andong-si, Gyeongsangbuk-do (Gwanwangmyo Shrine); 50-5, Seodongmun-ro, Andong-si, Gyeongsangbuk-do (Todak Todak Hanok Stay)



지금 가장 뜨거운 안동 원도심

거리를 걸으며 고려 시대 유적을 만나고,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은 벽화마을을 구경하다 해가 지면
안동소주로 만든 칵테일을 마시며 타로점을 본다.
천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어우러진 원도심 이야기다.

안동 원도심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심 한복
판에 고려 건국 공신들을 모신 태사묘가 있는데, 태조 왕건이 건
훤을 꺾고 고려의 기틀을 마련한 고창전투에서부터 태사묘의 이
야기가 시작된다. 왕건은 승리를 도운 이 땅에 '동쪽을 평안하게
한다'는 뜻의 안동(安東)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원도심은 고려
시대부터 안동의 심장부였던 셈이다. 태사묘 근처에 있는 공원
은 과거 안동 대도호부가 자리했던 웅부공원. 고려 공민왕이 '안
동웅부'라 쓴 친필 현판을 내린 곳이다.

역사의 도시로 인식되던 원도심이 최근엔 MZ세대로 즐겨 찾는
여행 명소가 거듭났다. 반세기 동안 아무도 몰랐던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 전체를 분홍색으
로 칠한 신세동이 사진 촬영 스폿으로 사랑받고 있다. 원도심의
넓은 상가에는 타로점을 봐 주는 커피 바와 안동소주를 재해석
한 칵테일을 선보이는 바 등 흥미로운 공간이 들어섰다.

고려의 흔적을 좇아, 천년순례길

원도심 여행에 앞서 마을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안동시 도
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았다. 안동 최초의 근대식 결혼식장인 안
동예식장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외관
과 유리창에 남은 '예식장'이라는 글자가 인상적이다. 이 건물
1층에 지난해 처음 세상에 공개된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가
보관돼 있다. 1973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전통 혼례
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앙드레 부통 신부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 전역에 약
200점의 벽화를 남겼는데, 그중 성당이 아닌 민간 시설에 그린
것은 이 벽화가 유일하다. 하지만 신식 예식장에 전통 혼례 그림
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렇게 50여 년





이 지난 2025년, 벽체 안에 숨겨졌던 벽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서는 안동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차림과 전통주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곳의 마스코트는 고양이 '재생이'. 재생이는 본래 원도심을 배회하던 길고양이였는데, 센터 직원들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이후 이곳에 살고 있다. '재생이'라는 이름은 직원들이 지어 준 것. 재생이는 안동 지역에서 SNS를 타고 유명해졌으며, 지난해 12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안동 원도심 도슨트 투어의 이름도 '재생이와 함께하는 천년순례길'이다. 이 투어는 태사묘에서 임청각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원도심의 역사를 살피고 도시의 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고려 시대 의복을 입어 보는 것도 이곳에서만 가능한 특별 체험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밝은색 차마저고리를 골라 입고 웅부공원으로 향했다. 웅부공원은 고려 공민왕 때 안동 대도호부와 관아가 있던 자리에 조성한 근린공원이다. 조선 시대 관아를 본뜬 영가현과 문루인 대동루, 상원사의 동종을 재현한 시민의종이 있다.

수령 800년에 이르는 느티나무, '관청을 지켜 주는 신을 모시는 나무'라는 뜻의 부신목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선 시대에 안동 부사가 부임하면 가장 먼저 이 나무에 그 사실을 알렸고, 매년 정월 열나흘날 자정에는 백성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를 지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안동시장이 새로 부임하면 부신목을 찾아가 인사를 올린다. 부신목은 두 가지 소원 중 하나는 꼭 들어준다고 전해진다. 종이에 소원을 적어 나무를 둘러싼 새끼줄에 매달아 본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나무의 영험한 기운에 어떤지 소원이 이뤄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분홍옷 갈아입은 달동네, 신세동 벽화마을

안동시립웅부도서관 옆 산비탈을 오르면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신세동 벽화마을이 나온다. 후락한 산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부터다. 낡은 담벼락은 집주인의 초상화가 담긴 캔버스로 변했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조형물이 들어섰다. 비어 있던 주택에는 카페와 예술 공방이 들어서 여행자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신세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품은 북 카페가 모습을 드러낸다. 동네 아이들에게 '뚜비아저씨'로 통하는 카페 주인은 1990년대 TV 프로그램 <꼬꼬마 텔레토비>에서 뚜비 목소리를 더빙한 성우다. 안동을 여행하던 중 이곳의 노을 진 경치에 반해 카페를 차렸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 보자는 마음으로 카페 이름도 '다시 여기서'라고 지었다. 향긋한 허브티 한 잔을 손에 들고 전망대에 올랐다. 분홍색으로 칠한 지붕들이 물결치고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1 지붕을 분홍색으로 칠한 신세동 벽화마을. 2 웅부공원에 자리한 시민의종 아래에서 고양이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3 고려 시대 의복을 차려입고 수령 800년 된 부신목 앞에서 소원을 빌어 본다. 4 50여 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앙드레 부통 신부의 혼례 벽화.



원도심의밤을 책임지는 바 호핑

서둘러 밤이 찾아오는 계절, 조용한 원도심에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곳이 있다. 안동의 문화와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바 '시아 커피바'와 '잔잔'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택가, 파란 간판과 나직한 음악 소리가 발길을 끄는 시아 커피바는 커피와 칵테일을 낸다. 세련된 외관과 달리 안으로 들어서면 한옥을 트렌디한 감성으로 개조한 공간이 반전 매력을 뽐낸다. 나무 기둥과 서까래는 그대로 두고 걸러poll한 조명과 스테인리스 가구를 더해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곳이 더욱 끌리는 이유는 칵테일을 주문하면 주인이 타로점을 봐 준다는 점. 원하는 맛과 향, 스타일을 말하면 그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 준다.

잔잔은 안동소주를 기반으로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입힌 칵테일을 선보인다. 안동소주는 총 아홉 종. 잔잔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6호 박재서 명인의 '명인 안동소주'를 사용한다. 잔잔의 이창우와 박민재 믹솔로지스트는 모든 메뉴의 레시피와 스토리를 직접 개발한다. "단순히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려고 해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칵테일에 담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 그 때문이죠. 손님들이 술 한잔의 여유와 함께 안동의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바 좌석에 앉자 칵테일 쇼가 시작된다. 안동소주에 검은콩 두유와 캐

1 안동시립박물관 2층에선 붓글씨를 선물해 주는 권영한 선생을 만날 수 있다. 2 옛 안동소주 '제비원'의 푸른 병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제비원 소주병. 3 시아 커피바에서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4 안동시립박물관의 특별 기획전 <죽음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에선 이응태 묘에서 발굴된 부장품을 만난다.

러멜 시럽, 아마레토를 차례로 담은 후, 부드러운 맛을 표현하기 위해 세이킹 대신 컵에서 컵으로 길게 떨어트리는 스로인 방식으로 섞는다. 손바닥만 한 나무 평상 위에 놓인 향아리 잔에 완성된 술을 따른 후 훈연을 입힌다. 일제강점기 뒷마당 향아리에 술을 빚으며 가양주의 명맥을 잇던 안동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칵테일 '안동 한량'이다. 은밀히 빛어야 하니 모두가 잠든 시간에 맛을 봤을 터. 물안개가 자주 피어오르는 안동의 새벽녘을 표현하기 위해 연기를 입혀 마무리한다.

낙동강에 담긴 달, 월영교

원도심에서 차로 약 8분 거리에는 안동 대표 관광 명소, 월영교가 자리한다. '달빛이 물에 비치는 다리'라는 뜻의 월영교는 날이 밝은 밤, 강물에 달이 둥둥 떠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새벽녘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 또한 장관이다. 동이 틀 무렵 낙동강을 끼고 달려 월영교에 닿았다. 강을 둘러싼 검푸른 산 아래, 길이 387미터의 목조 교량이 물안개를 가로질러 뻗어 있다. 밤사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강물과 만나 피어난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월영교는 원이 엄마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미투리 모양으로 지었다. 1998년 안동 정상동에서 이응태의 묘를 발굴했는데, 그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쓴 원이 엄마의 편지가 발견됐다. 아픈 남편이 어서 낫기를 바라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으로 짠 미투리한 쥘레도 놓여 있었다. 원이 엄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월영교 근처 안동시립박물관에서 들을 수 있다. 박물관 2층에서 원이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특별 기획전 <죽음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가 열리는 중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에서는 1586년에 쓴 한글 편지와 머리카락으로 짠 미투리를 비롯해 이응태 묘에서 발굴한 부장품을 소개한다.

안동시립박물관 2층에서는 붓글씨를 쓰고 있는 청남 권영한 선생도 만난다. 1931년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과 한국추사체연구회 고문으로 활동한 서예가다. 관람객에게 성씨를 물은 후 해당 성씨의 시조와 그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고, 연관된 가훈을 멋진 서예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

예의와 도덕에 엄격하고 정적인 도시로 알고 있던 안동의 새로운 발견. 금소마을 대마의 우아한 변신을 마주하고, 태화동을 예술 마을로 바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도심의 황홀한 밤거리를 걸으니 안동의 내일이 더욱 궁금해진다.



Andong's Old Downtown, Reawakened

At the heart of Andong's old downtown stands Taesamyo Shrine, which honors founding contributors to the Goryeo Dynasty. This area marks the site of the Battle of Gochang, where King Taejo Wang Geon defeated Gyeon Hwon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ynasty. Before setting out, a visit to the Andong City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offers helpful context. On the first floor, a mural by Father André Bouton, reveal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is preserved. The second floor houses a community space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modern reinterpretations of Andong's traditional cuisine and local liquors. A guided walking program titled A Thousand-Year Pilgrimage with Jaesaengi now traces six themed routes from Taesamyo Shrine to Imcheonggak House, allowing visitors to explore the history and daily life of the old downtown.

Once a struggling hillside neighborhood, Sinse-dong Mural Village has been reborn as an art village. Weathered walls now serve as canvases painted with portraits of residents, while narrow, steep alleys are dotted with imaginative installations created by artists. Recently, the entire village was painted pink, creating a striking new landscape.

A blue sign and soft music draw visitors into Siya Coffee Bar, which serves both coffee and cocktails. Despite its polished exterior, the interior reveals a stylishly renovated hanok. Ordering a cocktail comes with a tarot reading by the owner, who can also craft a drink tailored to preferred flavors and aromas. Nearby, Zanzan offers cocktails infused with Andong's history and culture, all based on Andong soju. Of the nine varieties of Andong soju, Zanzan uses Myeongin Andong Soju by Park Jae-seo, Korean Food Grand Master No. 6.

Address 37, Taesa-gil, Andong-si, Gyeongsangbuk-do (Andong City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Dongmun-dong, Andong-si, Gyeongsangbuk-do (Sinse-dong Mural Village); 92, Taesa 2-gil, Andong-si, Gyeongsangbuk-do (Siya Coffee Bar); 12-1, Yeongga-ro, Andong-si, Gyeongsangbuk-do (Zanzan)



더할 나위 없는 삼척

제1차 지원 삼척시정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 또는 동해역을 거쳐 삼척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탄광 산업 부흥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마을을 기차로 가로지르고, 해상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바다 위를
건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암 동굴을
탐험하며 태고의 자연을 마주한다.
기막힌 풍경과 특별한 미식이 함께하는
강원도 삼척을 소개한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삼포남길 99 문의 033-550-7788



1

기차 타고 추억 여행

하이원 추추파크

한때 한국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던 삼척시 도계읍에는 옛 광부 사택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50~1980년대에 청년 노동자들이 우르르 모여들며 광산 도시로 번성했던 흔적이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탄광 구조 조정 이후 도계 지역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으며 석탄 산업이 급격히 쇠퇴했고 도시는 활기를 잃었다. 폐광의 흔적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쓴 건 하이원 추추파크. 2014년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가 폐선된 영동선 부지를 활용해 국내 유일의 철도 체험형 리조트, 하이원 추추파크를 조성했다. 단독주택형 네이처빌, 실제 기차를 개조한 트레인빌, 캠핑의 낭만이 깃든 글램핑 등 다양한 숙박 시설과 레일바이크, 키즈 카페, 노천탕 등 체험·휴식 시설을 고루 갖췄다. 이곳의 백미는 단연 스위치백 트레인(switchback train). 가파른 산악 지역을 단번에 넘지 못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독특한 운행 방식의 열차다. “추추” 경적을 울리며 출발한 스위치백 트레인은 흥전역에 멈춘 뒤 나한정역까지 후진했다가 선로를 바꿔 흥전삭도마울까지 달린다. 총 3량으로 이루어진 열차는 난로가 놓인 객차, 사진 찍기 좋은 객차, 좌석이 창가를 향해 놓인 객차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꾸몄다. 만화 <은하철도 999> 속 증기기관차를 그대로 재현한 열차가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면 은하수가 흐르고 익숙한 만화 주제가가 공간을 채운다. “덜컹덜컹, 삐걱삐걱.”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길 위의 사람들과 손인사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는다. 저마다 간직한 기차 여행의 추억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2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도계유리나라 & 도계나무나라

삼척역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 태백시와 맞닿은 경계 지역에 도계유리나라가 자리한다. 유리 안에서 모든 분자의 움직임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한 신비로운 공간. 국내외 유리공예가의 정교한 작품을 선보이는 유리갤러리를 시작으로 유리의 역사와 종류, 쓰임새를 한눈에 살펴보는 유리역사관과 보석방, 거울방 등 흥미로운 테마관이 이어진다. 이토록 섬세한 유리공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호기심은 블로잉 시연장에서 곧바로 해소된다. 고온의 유리에 파이프 공기를 불어넣는 블로잉 기법으로 유리공예가가 공예품을 완성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바로 앞 체험장에서는 소정의 체험비를 내면 직접 유리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단단한 유리봉을 불에 대고 천천히 돌리면서 녹이면 물방울 모양이 되는데, 가위로 가운데에 홈을 내면 하트 모양이, 집게로 집으면 나뭇잎 모양이 완성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한 손길로 유리를 녹이고, 늘이고, 자르기를 반복하며 천천히 유리공예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이번에는 나무의 매력을 느껴 볼 차례. 도계유리나라를 나서는 지붕 위에 걸터앉은 피노키오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계나무나라가 나온다. 온통 목재로 둘러싸인 건물 안으로 발을 딛는 순간,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 향이 폐부 깊숙이 들어온다. 삼척의 목재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나무 이용 전시실부터 머무르기만 해도 정신이 맑아지는 나무 도서관과 나무 놀이터까지, 나무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도계나무나라에서도 간단한 목공예 체험이 가능하다. 책꽂이 선반과 우드 트레이, 도마 등을 제작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겨 본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도계유리나라), 893-46(도계나무나라) 문의 033-570-4208(도계유리나라), 033-570-4201(도계나무나라)

1 유리공예가가 고온의 유리에 파이프 공기를 불어넣는 블로잉 기법으로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2 다종다양한 유리공예품이 영롱한 빛깔을 뽐내낸다. 3 지붕 위에 걸터앉은 피노키오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계나무나라 외관. 4 도계나무나라에서는 각종 나무의 단면을 비교해 보거나 향을 맡아 볼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문의 033-541-9266(환선굴) 033-541-6600(대금굴)

| 3 |

유장한 세월이 빚어낸 지하 세계 환선굴 & 대금굴

한 줄기 빛조차 닿지 않던 지하에서 천천히 형성된 세계가 있다. 석회암 지질층을 품은 삼척시 신기면 대리에서 크고 작은 동굴 10여 개가 발견됐는데 그중 환선굴과 대금굴을 일반에 공개했다. 거대한 입구부터 방문객을 압도하는 환선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암 동굴로 약 5억 30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으로 들어서니 서늘한 공기와 함께 기기묘묘한 동굴 생성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머리형 석순, 도깨비방망이, 마리아상, 만리장성 등 비슷한 생김새에 따라 붙은 이름도 재미있고, 몸을 낮춰 동굴을 탐험하는 것도 흥미롭다. 환선굴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감탄을 자아낸다면 대금굴은 살아 있는 생명체 같은 동굴 생성물이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빨아들이듯 목소리를 삼키는 8미터 높이의 장쾌한 비룡폭포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하다.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레 걸으며 주위를 살피면 주름진 커튼을 닮은 종유석 '커튼'과 계단식 논처럼 층을 이룬 석회암 '휴석소' 등 신비로운 풍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만물상 광장에는 지름 5센티미터, 높이 3.5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막대형 석순이 자리한다. 종유석과 석순이 100년에 1센티미터씩 자란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이 길고 단단한 형상에 깃든 유장한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부력으로 떠 있는 용소부잔교를 건너면 물 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경험도 하게 된다. 해설사와 동행하면 동굴 구조와 생성물의 특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테마타운길 33(트리고 삼척해변점) 청석로 60(술등가) 문의 0507-1346-0109(트리고 삼척해변점), 0507-1434-7047(술등가)

2

1 통창 너머 삼척해변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 트리고 삼척해변점. 2 겨울 바다를 눈앞에 두고 트리고의 시그너처 메뉴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달콤한 휴식을 취한다. 3 최재호 술등가 대표의 추천 메뉴인 'NO 마진 NO 게인'은 푸짐한 양과 탄탄한 맛 덕분에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다.



3

4

감성 가득, 삼척의 낮과 밤 트리고 삼척해변점 & 술등가

겨울 바다를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트리고 삼척해변점이 최고의 선택지다. 통창 너머 삼척해변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 오션 뷰 베이커리 카페로, 모든 좌석을 계단식으로 배치해 어느 자리에 앉아도 하얀 파도가 치는 겨울 바다를 무한 반복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트리고는 삼척 여행자 사이에서 단팥빵과 소금빵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세 번 삶아 만든 팔소를 가득 채운 단팥빵에 공주 통밤을 넣은 삼자팥밤빵과 강원도 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살린 감자소금빵이 대표 메뉴다. 맘모스빵과 마늘바게트, 쪽파크림치즈베이글 등 베이커리 종류도 다양해 가벼운 브런치로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메밀 크림을 올린 메밀 크림 라테를 곁들이면 볶은 메밀의 고소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시원한 바다 풍경과 단팥빵의 달콤한 여운을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 도심으로 발걸음을 옮길 차례. 어둠이 내려앉은 삼척 고동 상가에 하나둘 불이 켜지면 술등가에도 붉은색의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밝힌다. 초록색 포인트의 바 테이블과 웅장한 재즈 힙합 사운드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다양한 양식 요리와 술을 낸다. 자리에 앉자마자 감으로 만든 증류주를 웰컴주로 내주는 것도 인상적이다. '손 많이 가요' '이까짓게'처럼 재치 있는 이름의 메뉴 가운데 최재호 대표의 추천은 'NO 마진 NO 게인'. 스페인식 문어구이 풀포(pulpo)로, 야들야들한 문어와 짭짤한 감자의 조화가 별미다. 양주, 와인, 증류주 등 요리에 어울리는 주류도 폭넓게 갖췄다. 푸짐한 양과 탄탄한 맛, 감각적인 분위기까지, 술등가는 여행자의 밤을 든든하게 채워 준다.

바다 위 황홀한 공중 산책

삼척해상케이블카

한겨울의 동해 바다를 가장 황홀하게 만나는 방법은 해상 케이블카를 타는 것이다. 강원도 유일의 해상 케이블카인 삼척해상케이블카는 용화리와 장호리를 가로지르며 짧지만 인상적인 여정을 선사한다. 용 모양의 두 역사가 마주하는 가운데, 빨간색 케이블카 2대가 중간 철탑 없이 길이 874미터 구간을 미끄러지듯 오간다. 케이블카에 몸을 신는 순간, 창밖으로 고요한 바다 마을의 정취를 간직한 항구와 빨간색 등대, 에메랄드빛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이 360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닥 일부를 투명 유리로 마감해 발밑으로 바닷속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진다. 용화역과 장호역 모두 야외 전망대가 있어 공중에서 스쳐 지나간 풍경을 다시 한번 여유롭게 감상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장호역 스카이라운지의 하늘 계단에 서면 동해의 수평선이 시야를 가득 채워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용화역 3번 게이트를 나서면 이어지는 갈매기공원 산책로 역시 놓치기 아쉽다. 하늘에서 바라보던 바다를 곁에 두고 파도 소리에 걸음을 맞추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각 탑승장 인근에서는 해양 레일바이크, 스노클링, 투명 카누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용화리와 장호리, 두 마을의 매력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면 왕복 탑승으로 여정을 완성하자.



주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10(삼척해상케이블카 장호역) 문의 1668-4268



Samcheok at Its Finest

1

High 1 Choochoo Park

In 2014, Kangwon Land transformed a disused section of the Yeongdong Line into High 1 Choochoo Park, Korea's only railway-themed experiential resort, created to revitalize former mining areas. The resort offers a range of accommodations, from standalone Nature Villas to Train Villas converted from actual railcars, along with activities such as rail biking, a kids' café, and open-air baths. The highlight is the Switchback Train, named for its unusual operating method. Unable to climb steep mountain terrain in a single ascent, the train repeatedly moves forward and backward. With a cheerful "choo-choo" whistle, it departs, stops at Heungjeon Station, reverses toward Nahanjeong Station, switches tracks, and continues on to Heungjeon Sakdo Village. Watching the scenery drift past the windows, exchanging waves with people along the tracks, long-forgotten memories of train journeys quietly resurface.

Address 99, Simponam-gil, Dogye-eup, Samcheok-si, Gangwon-do **Contact** 033-550-7788

Ride a train through villages shaped by the coal mining boom, glide above the sea on a coastal cable car, and step into vast limestone caves formed in deep geological time. This is a journey through Samcheok, Gangwon Province, where dramatic landscapes meet memorable food.

2

Dogye Glass World & Dogye Wood World

About 40 minutes by car from Samcheok Station, near the border with Taebaek, lies Dogye Glass World. The complex begins with a glass gallery showcasing refined works by Korean and international glass artists, followed by themed exhibition halls that explore the history, types, and uses of glass. In the demonstration hall, visitors can watch artisans shape molten glass using traditional blowing techniques. Just next door stands Dogye Wood World, marked by a Pinocchio perched on the roof. Dedicated to Samcheok's timber culture and history, it features exhibitions on wood usage, a wood library that clears the mind simply by lingering, and a children's play area. Simple woodworking experiences, such as making shelves, wooden trays, or cutting boards, are also available.

Address 893-36, Gangwonnambu-ro, Dogye-eup, Samcheok-si, Gangwon-do (Dogye Glass World); 893-46 (Dogye Wood World)
Contact 033-570-4208 (Dogye Glass World); 033-570-4201 (Dogye Wood World)



3

Hwanseongul & Daegeumgul

More than ten caves have been discovered in Daeri, Singi-myeon, Samcheok, an area rich in limestone geology. Among them, Hwanseongul and Daegeumgul are open to the public. With an entrance that immediately overwhelms, Hwanseongul is the largest limestone cave in Korea, estimated to have formed about 530 million years ago. Rock formations bear imaginative names inspired by their shapes, such as Bald-Headed Stalagmite, Goblin’s Club, the Virgin Mary, and the Great Wall. Exploring the cave often requires ducking low, adding to the sense of adventure. If Hwanseongul impresses by sheer scale, Daegeumgul captivates with its living, almost breathing formations. At the entrance, the thunderous sound of the eight-meter-high Biryong Falls echoes as if swallowing voices whole. In Manmulsang Plaza, visitors encounter Korea’s largest columnar stalagmite, measuring five centimeters in diameter and 3.5 meters in height. Knowing that stalactites and stalagmites grow only about one centimeter every hundred years makes the immense passage of time embedded in these forms feel all the more profound. Crossing a floating bridge over water offers the rare sensation of walking on a cave pool.

Address 800, Hwanseon-ro, Singi-myeon, Samcheok-si, Gangwon-do **Contact** 033-541-9266 (Hwanseongul), 033-541-7600 (Daegeumgul)



4

Trigo Samcheok Beach & Suldeungga

For a relaxed way to enjoy the winter sea, Trigo Samcheok Beach is an ideal choice. This ocean-view bakery café features tiered seating so that every seat looks out onto a panoramic view of Samcheok’s shoreline through floor-to-ceiling windows. White winter waves roll endlessly across the horizon. The bakery menu is extensive, from red bean buns to chestnut bread, garlic baguettes, and scallion cream cheese bagels, making it perfect for a light brunch. As night falls and shop lights flicker on in the Gyodong district, a soft red glow fills Suldeungga. With green-accented bar tables and a powerful blend of jazz and hip-hop, the space offers a range of Western-style dishes and drinks. Owner Choi Jae-ho recommends the Spanish-style grilled octopus, where tender octopus pairs beautifully with savory potatoes. Generous portions, confident flavors, and a stylish atmosphere make Suldeungga a satisfying way to end a day in Samcheok.

Address 33, Thema town-gil, Samcheok-si, Gangwon-do (Trigo Samcheok Beach); 60, Cheongseok-ro (Suldeungga) **Contact** 0507-1346-0109 (Trigo Samcheok Beach), 0507-1434-7047 (Suldeungga)



5

Samcheok Marine Cable Car

The Samcheok Marine Cable Car, the only sea-crossing cable car in Gangwon Province, offers a short yet striking journey between Yonghwa-ri and Jangho-ri. Two dragon-shaped stations face each other as red cable cars glide smoothly across the 874-meter span without intermediate towers. Once aboard, a 360-degree panorama unfolds. Quiet fishing harbors, a red lighthouse, emerald waters, and rugged coastal rock formations fill the view. Sections of the floor are made of transparent glass, revealing the sea below and adding a thrill that feels almost like flying. Near each station, visitors can enjoy activities such as a marine rail bike, snorkeling, and transparent canoeing. To fully experience both villages, a round-trip ride is recommended.

Address 12-10, Janghohang-gil, Geundeok-myeon, Samcheok-si, Gangwon-do (Semcheok Marine Cable Car Jangho Station) **Contact** 1668-4268

괌에서 찾은 건강한 삶의 방식

괌 본토의 약 80퍼센트는 산림, 목초지, 습지 같은 자연으로 이뤄졌다.
그사이사이에 들어선 해변은 40여 개. 화산이 만든 언덕과 숲, 산호초, 계곡에서 매일을
보내는 섬사람의 일상을 따라가며 건강한 삶의 본질을 탐구했다.

최제철 조 광정부관령정 한국지사



1

1투몬 베이 남단에 자리한 이파오 비치 공원. 현지인이 즐겨 찾는 바다 중 한 곳이다. 2패럿 케이브에 진입하려면 랜턴이 필수다. 동굴 안 담수 풀은 수심이 비교적 낮아 아이들이 수영을 즐기기에 좋다. 3데데도에 위치한 투러버스 포인트 로드는 현지 러너들이 좋아하는 달리기 코스다. 4피티베이 해양 보호구역에 자리한 피시아이 마린 파크. 5패럿 케이브 상부의 카르스트 해식아치. 태평양이 마주 보이는 전망으로 인기 높다.



2



3



4

괌에서 산다는 것

괌에 도착한 첫날, 투몬 베이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호텔에 짐을 풀고 이파오 비치 공원(Ypao Beach Park)을 가볍게 걸었다. 장관처럼 미동 없는 해수면, 느리게 움직이거나 멈춰 있는 사람들, 자극 없는 모래와 바람과 파도 소리. 감각을 거스르는 그 어떤 요소도 없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 지구에서 가장 온순한 자연을 간직한 곳이 있다면 괌이 아닐까. 정확히 나흘 후, 섬 북쪽에서 이 선부른 판단을 후회했다. 괌을 만만하게 본 내게 패럿 케이브(Pagat Cave) 트레킹의 고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여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가파른 경사면에서 밧줄 타기, 밧줄이 없는 곳에서 손도 다리로 쓰기, 성질 고약한 파도가 마귀 손아귀처럼 나타나는 절벽 가장자리 걷기, 가파른 석회 동굴의 날카로운 표면을 엉덩이로 훑으며 내려가기… 그날 착용한 바지와 양말, 운동화에 절게 남은 대자연의 흔적은 초강력 파워 물살 세탁으로도 지워지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버렸다.

괌은 아드레날린의 섬이다. 섬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매주 2회소 방관으로 일하는 친구와 섬 곳곳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디자인이저 <더 베스트 트랙스 온 괌(The Best Tracks on Guam)>의 공동 저자 애비 크레인의 얘기를 들어 보자. “무역풍이 부는 계절에는 남부의 서던 마운틴 트레일을 즐겨 가요. 그늘 한 점 없는 붉은 흙길이지요. 뜨거운 별 아래에서 8시간 정도 걷는 코스인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산, 바다, 숲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물속 명상으로 알려진 프리다이빙을 즐긴다는 남자를 찾아가 호수 같은 괌 바다의 매력을 들으려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작살 낚시’였다. 그는 언뜻 알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산호초 시대 가장자리의 물살이 물놀이하는 사람을 갑자기 휘감아 갈 수도 있는 리티디안 비치를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로 꼭 짚었다. 좀 더 대중적인 근거가 필요한 이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자. 칙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시야에 들어오는 형체가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러너들이다. 괌에 머물던 11월 마지막 주, 추수 감사절 당일 새벽 5시에 괌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러닝 클럽인 GRC(Guam Running Club)의 크루들을 만나기 위해 데데도 마

을의 집결지로 향했다. 많아야 서른 명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대충 봐도 족히 수백 명은 되는 인파에는 유아차에 탄 아기부터 80대로 보이는 백발 노인까지 거의 모든 세대가 섞여 있었다. 그날 우리는 6.28킬로미터 코스를 2등으로 들어온 샤크 폰 루모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곧 섬 둘레 전체를 달리는 100마일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할 계획이라는 얘길 들었다. 귀국 후 12월 11일자 괌 지역신문에서 루모어가 30시간 내 내 달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읽었고, 그가 올해 64세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이 열대 섬에서 다들 왜 그렇게 아침 댓바람, 출근길, 쉬는 날 구분 없이 땀을 내며 끊임없이 운동하고 움직일까? 머무는 내내 가졌던 물음표에 대한 답을 ‘100마일의 사나이’ 루모어의 인터뷰 녹취록을 풀다가 찾았다. “괌은 결코 뛰기 좋은 곳(운동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살았던 플로리다도 덥긴 했지만 괌이 훨씬 건디기 힘들어요. 무더위뿐 아니라 자연환경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체력과 실력이 확 늘었어요. 몸도 정신도 더 강해졌죠.”



5



괌의 자연은 실제로도 녹록지 않다. 북부는 가파른 석회암 절벽이 태평양과 마주하는 카르스트지형 고원이, 남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험준한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다. 많은 여행자가 머무는 중부를 벗어나면 이 '손타지 않은 야생의 대자연' 속에서 조깅, 사이클링, 하이킹, 협곡 트레킹, 트레일 러닝 같은 액티비티를 즐기는 로컬을 심심찮게 만난다. 접근하기 쉬운 거친 자연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움직이고 운동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이번 여정에서 나는 그 온순하게 흐르는 괌 중부의 바다에 한 번도 몸을 적시지 못했다. 대신 남과 북을 종횡무진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로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을 경험했다.

섬의 일상이 펼쳐지는 자연

괌 로컬의 삶은 자연에 있다. 온순한 라군과 평화로운 산호초, 우거진 정글, 날카로운 협곡이 일상의 무대다. 섬 남쪽에 자리한 이 나라한 자연 풀장은 바다의 너그럽고 따뜻한 품 안에서 유유히 물놀이하고 싶을 때 즐겨 찾는 곳이다. 가두리 모양으로 형성된 약 4~6미터 높이의 용암이 외해의 거친 파도를 막아 주는 천연수영장으로, 풀 안에 고인 바닷물의 잔잔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긴다. 인적 드문 남쪽 마을의 해안가담게 집 앞의 바다를 즐기는 로컬이 관광객만큼이나 자주 눈에 띈다. 다이빙대와 농구 코트, 그늘 아래 쉼터가 되어 주는 파빌리온 형태의 정자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과 어우러져 망중

한을 누려 보자. 작은 다리를 지나면 나타나는 전망대에서는 평화로운 자연 풀장과 태평양의 아득한 수평선이 바라다보인다. 이 나라한 자연 풀장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는 정글을 관통하는 강이 있다. 람람산에서 발원해 탈로포포 베이까지 이어지는 탈로포포강이다. 습지와 열대 숲, 관목지로 이어지는 이 물길에서는 괌의 생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맑은 민물에서 사는 메기, 바위알롱잉어를 비롯해 코코넛 크랩과 온갖 식물군을 만나게 된다. 벨리 오브 더 라테는 탈로포포강의 생태와 역사를 한눈에 훑아보는 장소. 이곳에 위치한 벨리 오브 더 라테 어드벤처 파크에서는 보트나 카약, 패들보드를 타고 탈로포포강과 우검강을 한가롭게 유영하며 과거 이 지역에 살았던 차모로족의 역사와 생활 방식, 괌 열대 숲의 야생동물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안내한다.

섬 남부의 한적함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면 에메랄드 벨리에 잠시 들러 본다. 항만·발전 시설과 차모로족 공동체가 모여 있는 작은 해안 마을 피티(Piti)에 위치한 이곳은 황홀한 물빛으로 특히 유명하다. 암반과 해안 사이에 형성된 좁은 수로를 흐르는 바닷물의 빛깔이 에메랄드처럼 빛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물비늘을 가만히 응시하다 보면 온갖 열대어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뱀으로 알려진 줄무늬뱀장어를 목격했다면 에메랄드 벨리에서 꼭 봐야 할 물고기를 제대로 만난 것이다. 검은색과 흰색이 번갈아 이어지는 줄무늬가 눈에 확 띄는 물고기로, 소문과 달리 독이 있는 위험 어종은 아니다. 단, 이곳엔 성계가 많아 현지인들은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권장하지 않는다.

휴양지 특유의 흥과 활기가 넘치는 곳을 찾는다면 투몬 비치로 향하자. 투몬 베이에 면한 이 해변은 남쪽의 힐튼 괌 리조트 & 스



1 이 나라한 자연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로컬. 2 투몬 비치의 절정은 노을이 질 때다. 3 현지인의 주말 놀이터, 탕기슨 비치. 4 피티베이 해양 보호구역의 바닷속을 보고 싶다면 피시아이마린 파크의海中 전망대로 향할 것. 5 섬에서 마주한 게. 소라나 고둥의 빈 껍데기를 열고 다녔서 '소라게'라고 불린다.





1 광에도 드물지만 서핑 포인트가 있다. 로컬 서퍼들은 탈로포포, 리티디안, 이나라한 베이 등을 꼽는다. 2 패킷 케이브 안에서 바라본 숲 풍경. 3 탈로포포강 위, 밸리 오브 더 띠페로 향하는 보트. 4, 5 사랑의 절벽은 차모로족 연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명소다. 연인이 마주 보는 형상의 해안 절벽. 6 휴양지 특유의 낭만이 흐르는 투몬 비치.



파와 북쪽의 호텔 냇코 콤파까지 2.4킬로미터에 걸쳐 반달 모양으로 이어진다. 언뜻 호텔과 리조트의 전용 해변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공 공간이다. 이파오 비치 공원과 건 비치 혹은 투몬 비치를 관통하는 변화가 팔레 산 비토레스 로드에서 면한 호텔들의 해변 통로를 이용해 들어간다. 투몬 비치의 가장 큰 매력은 낮은 수심과 잔잔한 수면이다. 산호초가 외해의 파랑을 막아 주는 라군형 해변으로, 모래사장파와 바다가 만나는 가장자리가 깊이가 0.3~0.8미터, 라군 한복판은 1~2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스탠드업 패들보드, 카약 등의 액티비티에 도전하고 싶다면 수심이 얕고 평화로운 이곳에서 시작해 보자. 무릎 깊이 지점부터 온갖 물고기가 헤엄쳐 스노클링에도 제격이다.

바다를 뺨 콤파를 만나고 싶다면 북쪽으로 올라간다. 수많은 현지인이 ‘가장 좋아하는 트레일’로 꼽은 패킷 케이브는 북부의 하이 라이트다. 파도와 바람에 깎여 생긴 해식동굴에 닿기 위해서는 왕복 3킬로미터 거리의 짧은 트레킹을 거쳐야 하는데 난도가 꽤 높다. 콤파 하이커 사이에서 구루로 통하는 등산가 데이브 로츠는 저서에서 ‘중급’ 난도라고 설명하지만 평소 등산을 거의 하지 않는 체력 상태라면 상급에 가깝다. 트레일 초입은 미모사, 산세비에리아, 란타나, 시게초 등의 식물을 관찰하며 걷는 오솔길이지만 반안트리가 나타나는 지점부터는 장갑을 끼야 한다. 로프를 잡거나 사족 보행으로 기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목표로 정신없이 걷다 보면 태평양이 한눈에 담기는 해식 아치가 나타난다.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동굴로 들어간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에 의지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 바위 구멍과 흙, 돌에 걸려진 맑은 빗물이 고여 형성된 천연 풀이 종아리를 적신다. 달궈진 정수리와 붉어진 얼굴을 식히기에 딱 좋은 온도다. 종유석 끝에 고인 물방울이 수면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구의 식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시간을 만끽한다.



동굴 탐험을 무사히 끝낸 후에는 사랑의 절벽(Two Lovers' Point)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할 차례다. 타무닝 지역 북쪽, 투몬 베이와 마주한 사랑의 절벽은 현지인도 즐겨 찾는 선셋 포인트다. 122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온순한 열대 휴양지로만 여겼던 콤파가 장대한 대자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랑의 절벽이란 이름은 차모로족의 구전설화에서 비롯됐다. 차모로족 여인이 한때 콤파를 장악한 스페인 장교와의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연인과 머리를 묶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망대 위 바다와 마주 보는 위치에서 오른쪽에는 여자의 옆매를 빼닮은 절벽이, 왼쪽에는 남자의 옆얼굴과 비슷한 해안선이 자리한다. 죽어서도 서로 마주 보는 연인의 모습을 숨은그림찾기 하듯 더듬다가 발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리면, 질푸른 감청빛 바다와 절벽 아래에서 거세게 파도가 부서지며 만들어 내는 포말이 눈에 들어온다.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086

광의 맛

산과 숲, 바다를 일상의 무대로 누비는 로컬에게는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 주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누는 음식이 곧 '건강한 미식'이다. 태평양 바다에서 얻은 신선한 해산물부터 광의 역사를 품은 음식까지, 섬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맛집을 찾았다.



086

메스클라 차모로 퓨전 비스트로

차모로 전통 음식을 수준 높은 정식 스타일로 선보이는 비스트로. 현지 매체, 기관 등에서 매년 선정하는 '최고의 식당' 리스트에 늘 이름을 올리는 맛집이다. 오너 셰프 피터 듀나스가 2009년에 문을 열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미식 문화가 반영된 피에스타(fiesta) 플래터를 정통으로 선보인다. 그릴에 불 향을 입혀 구운 치킨, 근해에서 잡은 생선을 튀긴 요리와 차모로식 세비체인 켈라구엔 등을 함께 내는 메스클라 피에스타 플래터가 인기 메뉴다. 듀나스의 추천 메뉴는 그만의 비법 육수에 온갖 양념을 넣어 조린 소꼬리찜 '브레이즈드 옥스테일'.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차모로 전통 요리다.

주소 130 E Marine Corps Dr, Hagåtña
 인스타그램 @meskla



087

안티구 브루잉

광을 대표하는 크라프트 브루어리 중 한 곳. 2021년 이스트 하깃냐에 첫 탬룸을 오픈한 후 2025년 가을, 하깃냐 다운타운의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 왔다. 브루 마스터이자 오너인 조니 아르세오는 정식 매장을 열기 전부터 팝업 행사와 축제에서 직접 빚은 맥주를 선보인 광의 스타 양조사다. 창의적인 양조 방식과 섬세한 레시피로 빚은 맥주의 독창적인 풍미로 로컬 사이에서 유명하다. 그가 빚은 아티스 예일은 2017년 광의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베스트 크라프트 비어'로 선정되었다. 지역 농장에서 재배한 코코넛과 과일, 각종 허브를 이용해 안티구 브루잉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를 생산한다.

주소 140 Aspinall Ave, Hagåtña
 인스타그램 @antigubrewing



087

마이티 퍼플 카페

제대로 된 아사이 볼을 내는 카페. 2016년에 문을 연 후 10년 가까이 로컬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딸기, 키위, 블루베리, 바나나를 넣은 마이티 퍼플 볼과 바나나, 유기농 카카오넵스, 아몬드 버터를 넣은 마이티 몽키 볼이 인기 메뉴. 오너가 밝히는 맛의 비결은 '타협 없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식재료의 품질'이다. 아사이 볼과 베리, 키위는 수입산을 사용하지만 바나나, 코코넛, 용과, 칼라만시는 로컬 농장에서 구입해 쓴다. 정제당, 인공감미료 대신 유기농 사탕수수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는 것도 특징. 건강식이 꽤 드문 편인 광에서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찾는다면 들려야 할 곳이다. 식사 전후 시간에는 늘 대기 행렬이 길다.

주소 173 Aspinall Avenue Suite 102, Hagåtña
 인스타그램 @mightypurplecafe





프랜시스 베이크하우스

Frances Bakehouse

주말이면 아침 일찍부터 호텔과 리조트가 몰려 있는 투몬 베이 일대를 달리는 로컬이 자주 보인다. 프랜시스 베이크하우스는 땀 흘린 러너들이 에너지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즐겨 찾는 베이커리이자 카페. 여기에 여행객까지 더해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룬다. 매장 규모는 작지만 메뉴는 다채롭다. 식사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쿠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베이커리를 매일 새벽마다 구워 낸다. 두 번 구운 아몬드 크루아상과 햄 치즈 크루아상, 메이플 피칸 베이글, 블랙앤탠 쿠키는 일찌감치 품절되는 목록. 미니멀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도 즐거움을 더한다.

주소 Unit 103, 127 Gun Beach Road, Tumon
인스타그램 @francesbakehouse



피카스 카페

Pika's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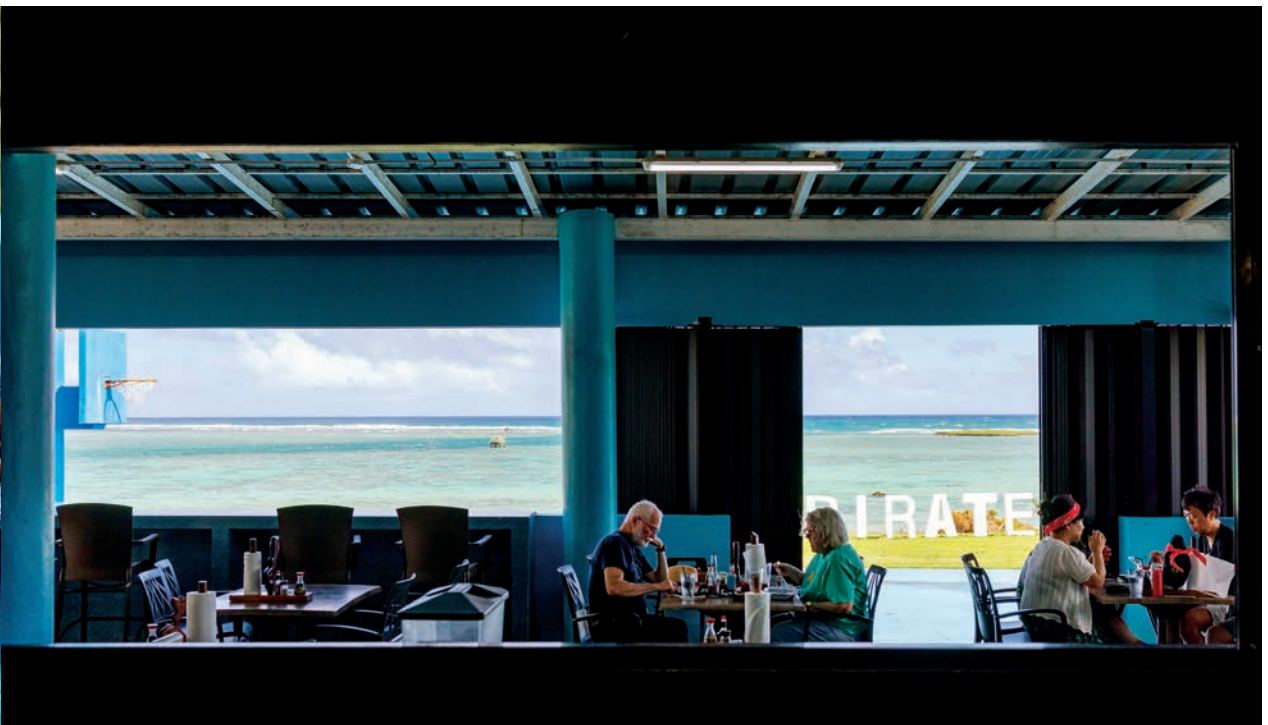
차모로 전통 요리에 캘리포니아식을 접목한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 2011년 피카와 레니 커플이 문을 연 곳으로 로컬 사이에서는 브런치 맛집으로 인기가 높다. '잇 로컬(Eat Local)'이란 슬로건을 내건 곳답게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쓴다. 스페인의 초리소에서 영향을 받아 달고 짭 맛이 강한 차모로 소시지를 얹어 내는 베네딕트 차모로, 코코넛 시럽으로 부드러운 단맛을 더한 카홀라 프렌치토스트, 코코넛 밀크를 더한 차모로식 고기 티낙탁(tinaktak)을 패티로 쓴 티낙탁 버거 등이 대표 메뉴다. 하와이 노동자의 에너지를 채워 주는 가정식 로코모코를 감 스타일로 재해석한 요리도 놓치지 말자. 고봉밥 위에 소고기 패티와 그레이비소스, 반숙으로 익힌 프라이드 에그를 얹어 내는 요리로 감에서는 그레이비소스에 코코넛 밀크를 더해 맛이 더 고소하다.

주소 Star Bldg, 888 N S Marine Corps Dr, Upper Tumon
인스타그램 @pikascafe

제프스 파이어츠 코브

Jeff's Pirates Cove

바람이 거친 괌 남동부의 탈로포포에 갈 계획이 있다면 식사는 제프스 파이어츠 코브에서 할 확률이 높다. 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거의 모두) 이곳에서 놀고 먹고 마신 추억이 있을 만큼 상징적인 레스토랑 & 바로,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지에 기대하는 분위기와 흥을 한데 품고 있다. 원래는 미 해군의 재활 센터인 캠프 에스리지가 들어서 있었으며 슈퍼 태풍 앨린이 지나가고 난 뒤 공터가 됐다. 이후 더 시사이드 레스토랑, 더 스테이크 하우스를 거쳐 1979년, 이곳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제프가 인수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무려 440여 석을 갖춘 대규모 공간으로 미국 본토 뮤지션들이 종종 공연을 여는 큰 무대도 갖췄다. 제프가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홈메이드 치즈버거와 바비큐, 차모로 전통 요리를 캐주얼하게 즐기는 켈라구엔 등이 인기 메뉴다. 식사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된 괌의 역사와 섬에서 28년간 숨어 지낸 일본군 요코이 쇼이치의 이야기, 고대 차모로 어촌의 유물, 레스토랑의 서사까지 알차게 모아 전시하는 시사이드 뮤지엄(Seaside Museum)에도 둘러 보자.



씻고 비우고 채우는 목욕 여행

새해에 면한 겨울은 몸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목욕재계하기 좋은 때.
몸에 이로운 온천수와 독특한
목욕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을 선별했다.

충주, 유원재

‘온천수가 솟는 보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수 안보는 지하 약 250미터에서 솟는 자연 용출수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온천지다. 태조 이성계의 피부병을 치료한 물, 왕가와 귀족이 즐겨 찾던 온천 휴양지라는 사실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다. 20세기에 관광지로 개발되어 흥성했다가 주춤해진 인기를 다시 부활시킨 건 2023년 9월에 문 연 유원재. 수안보면 온천리 옛 터미널 부지에 들어선 유원재는 한옥과 서원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16채의 독채 객실을 갖췄다. 방 안에 들어서면 ‘하루 동안 정원 안에서 머무르는 집’이란 뜻의 이름에 걸맞게, 열린 문으로 한국 전통 정원의 미학을 고스란히 살린 뜰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지열이 만든 53도 고온수와 순하고 부드러운 약알칼리성 온천수를 오롯이 누리다 보면 이곳이 왜 ‘왕의 온천지’라 불리는지 이해가 된다. 목욕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예약제로 운영하는 대중 온천탕에서 노천욕을 즐겨 보자. 독서나 ‘불명’을 즐기는 라운지 온(溫), 천연 아로마로 몸과 마음을 재생하는 아로마 테라피도 휴식을 돕는다.





제주,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

온천의 선택 기준이 수질이라면 한국에서는 ‘국민보양온천’ 인증을 이정표로 삼으면 된다.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수온 및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해 건강 증진과 심신 요양에 적합한 온천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온천에 부여하는 제도다.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의 오레브 핫 스프링 앤 스파는 ‘제주 1호, 유일 국민보양온천’을 내세운다. 국내 온천 중 가장 깊은 지하 2003미터에서 채수한 온천수에는 고혈압, 심장 질환, 동맥경화 등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리탄산 성분이 리터당 321.35밀리그램 함유되어 있다. 이 질 좋은 물을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빌 벤슬리가 디자인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오레브 핫 스프링 앤 스파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체계적인 수(水) 치료에 적용되는 일곱 가지 마사지를 받으며 온천욕을 즐기는 바데풀, 온수풀로 운영하는 야외의 인피니티 풀, 현무암·감굴 등 제주의 자연 재료로 향을 입힌 노천탕 등을 오가다 보면 한나절도 부족하다. 편백, 히말라야 소금, 황토 등의 원물을 활용한 테라피 사우나나 갖췄다. ‘온천 웰니스 여행’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여행자에게는 아일랜드 키친의 사부사부 디너 뷔페 ‘제주 씨푸드 로열’, 겨울철 피부 보습을 위한 스페셜 아메니티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청송, 소노벨 청송 & 한 바이 소노

눈부신 설경이 펼쳐지는 청송 주왕산국립공원과 주산지는 계절의 정취를 호젓하게 누리기에 좋은 여행지. 얼음 계곡과 폭포를 보며 주왕산 탐방로를 걷고 주산지의 몽환적 풍경을 감상한 후에는 청송의 맑고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자. 소노벨 청송에 자리한 솔샘온천은 지하 1000미터에서 하루 570여 톤의 풍부한 온천수를 토출해 운영하는 목욕탕이다. 황산염, 칼슘, 스트론튬, 염소 이온이 다량 함유된 약알칼리성 온천수로, 목욕 후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진다. 38~39도의 중온탕, 44도의 열탕과 냉탕, 찬 바람에 붉어진 볼을 가라앉혀 주는 노천탕을 고루 갖춰 목욕이 여행의 주목적인 이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된다. 솔샘온천을 보유한 소노벨 청송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지만, 좀 더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한 바이 소노를 추천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청송 민예촌을 한옥 스테일로 개조해 2024년에 문을 연 곳이다. 모든 객실이 2개 이상의 방과 마당을 갖춘 독채로 이뤄졌다. 옛 상류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인 대감댁, 경북 북부 지역 한옥의 건축양식을 반영한 교수댁을 비롯해 7개 구조의 객실로 구성됐다.

주소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소노로 38(소노벨 청송), 주왕산로 494(한바이 소노)





강릉, 호텔탐스텐

온천욕장을 갖춘 호텔의 목욕탕 소개란에는 대개 온천수의 효능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시설 및 운영 시간이 쓰여 있다. '금진 온천'을 전면에 내세운 강릉의 호텔탐스텐은 온천수 개발에 얽힌 이야기와 수질을 입증하는 각종 수치 및 미네랄 성분 표 등을 상세히 소개해 온천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호텔탐스텐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태백산맥 아래에 자리 잡은 강릉의 작은 마을 금진리 지하 1100미터에서 채수한 금진 온천수는 천연 미네랄 함량이 리터당 3만 밀리그램으로, 구리, 아연, 마그네슘, 칼슘, 망간뿐 아니라 셀레늄, 바나듐 등 희귀 미네랄 성분까지 함유했다. '피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콜로이드 입자 크기' '몸에 좋은 원적외선 에너지 파장과 pH 농도' 등을 숫자와 함께 요약 정리한 정보를 읽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강릉으로 내달려 이 '악선 목욕탕'으로 뛰어들고 싶어진다. 통유리창 너머로 시원하게 펼쳐진 금진해변이 바라보이는 수영장도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좋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화로 455-34



서귀포, 디아넥스호텔

2001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지하수 개발, 지질 조사를 목적으로 시추하던 지질학자들은 수온 40도 안팎의 고온 광물성 온천수를 발굴했다. 해수가 흘러든 화산 암반 속 물이 오랜 시간 압력으로 데워져 솟은 아라고나이트 온천수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온천으로 분류되는 제주의 보물이다. 서귀포 디아넥스호텔에서는 지하 2000미터에서 42도 이상 고온으로 토출되는 아라고나이트 온천을 내 집 목욕탕처럼 즐길 수 있다. 칼슘·마그네슘·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물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보습 개선율을 높여 건조, 가려움 완화에도 좋다. 목욕을 마쳤다면 디아넥스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온천 라테로 원기를 복돋을 차례. 질 좋은 이천 쌀의 고소함을 살린 '아라고 온쌀 라테', 생강과 우유로 몸의 온기를 더하는 '진저 스파 라테' 중 고를 수 있다. 목욕 후 나른해진 몸으로 객실에 들어서면 창밖으로 산방산과 마라도, 제주의 짙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단잠에 빠지면 완벽한 제주식 온천 휴양이 완성된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71

대전, 낙원온천호텔

사서에서 한국 온천 역사를 살필 때 태조 이성계의 이름이 종종 발견된다. 온천욕 애호가로 추정되는 그의 족적은 대전 유성 온천에도 남아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1394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해 계룡산 신도안으로 가던 중 유성 온천에서 목욕했다는 것과 그의 아들 이방원이 1393년 유성 온천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15년에 문을 연 유성호텔이 온천 휴양 도시 대전의 명맥을 이어 가다가 2024년 3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유성 온천의 지형도에 공백이 생겼다. 2025년 12월에 문을 연 낙원온천호텔은 긴 이동 시간, 비싼 숙박료 등의 부담 없이 조용히 혼자 온천 휴양을 즐기자 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모든 객실에 온천수를 공급해 번거로운 이동이나 기다림, 시선의 침해 없이 온천욕에만 집중할 수 있다. '모던 한옥 스테이'를 콘셉트로 설계, 디자인한 내부 공간도 머무는 즐거움을 더한다. 편백 사우나와 넓은 조적 욕조를 갖춘 시그너처 스파 & 사우나 객실을 비롯해 디럭스 더블, 프리미엄 비즈니스 등 다양한 유형의 객실로 구성돼 있다. 아로마 오일로 완성한 배스 밤, 오설록 웰컴 티, 숙면을 돕는 경추 베개 등의 세심한 콘텐츠도 돋보인다.

주소 대전시 유성구 온천북로 76



거제, 덴바스타 료칸 호텔

일본식 목욕 문화를 거제 장승포 해안의 절경과 함께 경험하는 숙소.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노천욕을 하는 일본식 온천욕 '로텐부'로(露天風呂)를 국내에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아늑한 다다미방 구조의 객실에 들어서면 온천 전용 복장인 유카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장승포 해안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하는 객실과 다인용 조적식 타일 욕조를 갖춘 욕실은 공중목욕탕을 선호하지 않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목욕 후에는 거제 최동단에 자리한 장승포항 일대를 여행해도 좋다. 약 2.5킬로미터의 해안일주도로는 가볍게 드라이브하거나 쉬엄쉬엄 산책하기에 그만이다. 도로를 따라 아래쪽에는 울창한 송림이, 위쪽에는 야트막한 언덕이 자리한다. 굴이나 대구 등 거제의 겨울 특산물을 산지에서 맛보는 즐거움도 놓치지 말자.

주소 경남 거제시 장승포해안로 16



울산, 노천 바위탕 호텔 대해

겨울 해돋이를 따뜻한 물이 넘실대는 바위탕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부산 기장에서 15분 거리, 울산 간절곶의 망망대해를 품은 해맞이로 안쪽에 자리했으며, 투숙객이 문밖을 나설 필요 없이 호텔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100퍼센트 누린다. 여섯 채의 독채 객실을 갖추고, 실내에 침실과 욕실을, 야외에는 바위 노천탕과 수영장,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데크를 마련했다. 오사카 정통 가이세키 장인 가토 마쓰카즈에게 사사한 일식 대가 서동혁 셰프가 선보이는 감성돔 통사시미 & 랍스터 가이세키 석식, 생선구이와 가지 된장 튀김으로 구성한 조식도 만족도가 높다. 간절곶 등대, 진하해수욕장, 외고산 웅기마을 등 울산 대표 명소와 부산 기장, 송정, 해운대가 모두 차로 30분이 내에 있어 긴 여행을 위한 코스를 짜기에도 좋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998



제주, 에가툷

웰니스 빌리지, 에가툷에 도착하면 이런 메시지가 적힌 엽서를 받는다. “누구나 꿈꿔 온 도시로부터의 탈출, 끊임없는 연결로 피로해진 삶으로부터의 플러그-오프. 조금 덜 먹고, 덜 움직이고, 덜 보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연결로부터 분리된, 자발적 고립을 꿈꿔 본 적 있다면 에가툷은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통유리창으로 숲이 보이는 캐빈, 오두막 앞의 장작불,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새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걷고 욕조 안에서 숲을 감상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 이곳에선 현실이 된다. 스카게락 펠라구스 라운지 체어에 앉아 스태프가 큐레이션한 책을 읽는 라이브러리, 한라산 기운을 가득 담은 요가·명상원 ‘에가툷 웰니스 센터’도 근사하지만 이곳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숲 속에 자리한 사우나다. 장작불로 공간을 데우는 전통 방식의 사우나로 복유럽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다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차 공부, 숙면과 에너지 회복을 돕는 आयुर्वेद 건강식 등 몸과 마음의 독소를 빼는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266
(*에가툷의 사우나는 리뉴얼을 거쳐 다시 선보일 예정)



made in

경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GYEONGJU

no.14



- 1 경주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인 첨성대.
- 2 완만한 능선이 산책의 운치를 더한다.
- 3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회화나무가 늘어선 계림 숲길.
- 4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풍경.

3



2



4

고분을 따라 걷는 산책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경주 천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야외 박물관. 경주 시내 어디서든 마주하게 되는 부드러운 곡선의 언덕과 고분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월성지구의 너른 대지 한가운데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강암을 다듬어 쌓아 올린 첨성대의 유려한 곡선미는 낮에는 단아한 기품을, 밤에는 은은한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오라를 뿜어낸다. 첨성대 뒤편으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깃든 숲, 계림(鷄林)이 나타난다.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고목들이 얹히고설켜 만들어 낸 짙은 그늘은 이곳이 도심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아늑한 고요함을 선사한다. 월성지구는 경주 시민과 여행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색의 공간이기도 하다. 흙길을 밟으며 걷다 보면 거대한 고분의 우아한 능선과 첨성대 그리고 울창한 숲이 하나의 수목화처럼 어우러진다. 해 질 녘 노을이 고분의 능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숲 어귀 벤치에 앉아 보자. 천년 전 신라의 달밤을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 우리의 시선이 교차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소 경북 경주시 교동 38-13



1



2

동해 바다가
빛어내는
절경

송대말등대와 문무대왕릉

경주를 거대한 고분과 유적지가 가득한 내륙 도시로만 기억한다면 반쪽만 아는 것이다. 토함산 터널을 지나 동쪽 끝으로 달리면 감포 바다가 펼쳐지고, 그 시작점에 '소나무 숲 끝자락'이라는 뜻을 지닌 송대말(松臺末)등대가 자리한다. 이름 그대로 200~300년 된 해송(海松)이 기암괴석 위로 뾰뚱하게 숲을 이루고, 그 끝에 하얀 등대가 아득하게 펼쳐진 망망대해를 응시하고 있다. 송대말등대는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바다 위에서도 신라의 우아한 미감을 엿볼 수 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계 유일의 수중 능인 문무대왕릉이 모습을 드러낸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왕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기를 자처했다. 굶은 날씨에 해무가 피어오르면 파도가 부서지며 생성되는 하얀 포말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답답한 속을 뚫어 주는 송대말등대의 바람과 묵직한 울림을 주는 문무대왕릉의 파도, 이 둘은 경주의 바다가 전하는 서사시의 절정이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척사길 18-94(송대말등대), 문무대왕면 봉길리 30-1(문무대왕릉)
문의 054-744-3233(송대말등대), 054-779-8166(문무대왕릉)

- 1 등대에서 바라본
동해 바다와 무인 등표.
- 2 '소나무 숲 끝자락'이라는
뜻을 지닌 송대말등대.
- 3 세계 유일의
수중 능인 문무대왕릉.



3

1



경주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커피플레이스

2010년부터 매일 오전 8시에 경주의 아침을 여는 카페다. 경주와 커피를 사랑하는 정동욱 대표의 배려가 가득 담긴 곳. 그는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하루를 안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 원두를 볶고 커피를 내린다. 커피플레이스는 경주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는 카페로도 첫손에 꼽힌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하는 시그니처는 '직원용 라테'.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이 적은 양의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넣어 한입에 털어 넣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얼음을 넣지 않은 차가운 우유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흰색과 갈색 액체가 층을 이루는데, 일반 라테보다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에스프레소는 3000원대, 카페라테는 4000원대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이곳이 사랑받는 이유다. 카페 공간은 은은한 조명과 나무 소재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중심에 바 형태의 좌석을 두었는데, 바로 앞에서 내려 주는 커피를 눈으로 보고 코로 느낀 후 입으로 즐길 수 있다. 카페 건너편에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대릉원의 봉황대가 자리해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경주의 고즈넉한 정취에 빠져들기 좋다.

주소 경북 경주시 중앙로 18 문의 0507-1387-2573

4



- 1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여는 커피플레이스.
- 2 차가운 우유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넣어 만드는 메뉴, 직원용 라테.
- 3 천년의 농산을 마주하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 4 매장 벽면을 채운 싱글 오리진에 대한 기록물.
- 5 아늑함이 느껴지는 커피플레이스 외관.

2



3



5





1

- 1 14개의 탭에서 전 세계 맥주를 뽑아 마실 수 있다.
- 2 유쾌한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
- 3 상큼한 시그너처 맥주와 육즙 가득한 수제 소시지의 조합.
- 4 '맥주는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를 슬로건으로 꾸민 공간의 자유로운 분위기.
- 5 좁은 골목 안쪽, 붉은 네온사인이 불을 밝히면 ㅎㅎㅎ의 진짜 시간이 시작된다.



3



4

에너지 넘치는
탭룸이자 보틀숍

ㅎㅎㅎ

간판을 읽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곳. 황리단길 좁은 골목에 자리한 ㅎㅎㅎ는 이름 그대로 유쾌한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탭룸이자 보틀숍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전 세계에서 수집한 150여종의 크라프트 맥주와 내추럴 와인이 가득 채워져 있다. 황규석 대표는 '맥주는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Beer makes me high)'라는 슬로건 아래 탭 테이크오버(Tap Takeover)나 DJ 파티, 시즈널 페스티벌 등 흥미로운 축제를 기획하며 조용한 골목을 뜨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펍 주인이자 문화 기획자인 것 ㅎㅎㅎ의 백미는 14개의 탭에서 갓 뽑아낸 신선한 수제 맥주다. 그중 국내 브루어리와 협업해 만든 시그너처 사워 맥주 '체흐흐흐리'는 상큼하고 톡 쏘는 맛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기에 제격이다. 결들이기 좋은 수제 소시지나 이국적인 식료품도 다양해 피크닉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도 인기 있다. 경주의 정취와 크라프트 맥주 펍의 활기가 공존하는 ㅎㅎㅎ는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로도 자리 잡았다. 수시로 열리는 파티나 이벤트 정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니 미리 확인해 보자.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축제가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소 경북 경주시 태종로727번길 23-1 문의 0507-1323-6839



2



5



1



3



4

한옥에서 즐기는 이탈리아의 맛 위드구스토



- 1 오래된 기와집에 자리한 위드구스토 전경.
- 2 한옥의 서까래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풍경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 3 수제 미트볼과 부드러운 오믈렛.
- 4 두툽한 스테이크를 얹은 크림 파스타.
- 5 요리에 곁들일 다양한 와인도 준비돼 있다.

2



5

황리단길을 걷다 보면 고소한 버터와 향긋한 허브 냄새가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다. 한옥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내는 다이닝 비스트로, 위드구스토다. 구스토(gusto)는 이탈리아어로 맛, 미각 혹은 열정을 뜻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디딤돌이 놓인 통로와 소담한 중정이 나오고 통유리로 마감한 실내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래된 서까래와 기와를 쌓아 올린 담장이 인상적인 곳.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으면 마치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이곳의 셰프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 부드러운 달걀 속에 탱글탱글한 새우와 칠리소스가 숨어 있는 '새우 치즈 칠리 오믈렛'과 진한 크림소스에 두툽한 스테이크를 얹은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는 이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뉴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기는 파스타 한 입과 와인 한 모금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 준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맛(gusto)'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만 한 선택지가 없다.

주소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83-2 문의 054-776-7688



1



3

- 1 옛날 목욕탕 모습을 그대로 남겨 둔 1925감포 내부.
- 2 레트로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카페, 1925감포.
- 3 배리삼릉공원에서 판매하는 달항아리 미니어처.
- 4 배리삼릉공원에서 다양한 경주의 굿즈를 만날 수 있다.



4

경주의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1925감포 & 배리삼릉공원

경주의 동해안 끝자락, 감포항 골목에 자리한 1925감포는 경주 여행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좋은 곳이다. 1925감포는 옛 공중목욕탕 '신천탕'을 개조해 만든 카페이자 복합 문화 공간. 감포 바다를 형상화한 '부표 라테', 송대말등대에서 영감을 받은 '송대말의 오후'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음료도 재미있고, 타월·가방·티셔츠 등 1925감포를 추억할 만한 굿즈는 소유욕을 자극한다. '경주를 담아낸 기념품을 만듭니다.' 황리단길의 터줏대감, 배리삼릉공원은 이형진 대표의 이러한 철학이 집약된 공간이다. 배리삼릉공원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제품을 큐레이션해 선보이는 선물 가게인 반면, 카페 2호점 '일상차반사'의 콘셉트는 '지역에서 만든 차를 마시며 경험하는 경주'다. 경주 곳곳의 풍경을 담은 패키지 속 경주 차 티백은 선물 받는 이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침성대의 유려한 곡선과 불국사 다보탑의 디테일을 정교하게 살린 마그넷, 지역 작가가 그린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 엽서는 그 자체로 작품이다. 엽서 한 장을 골라 벽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경주에서의 추억을 생생히 불러온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안길 15-1(1925감포), 포석로 1095 (배리삼릉공원)
문의 070-7723-1925(1925감포), 0507-1487-1145(배리삼릉공원)



2

interview

이형진 배리삼릉공원·일상차반사 대표

경주에 정착해 배리삼릉공원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10년 동안 음료와 관련된 일을 했어요. 차 음료를 배우러 대만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어려서부터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품은 동네를 좋아했는데, 그런 제가 서울을 떠나 경주에 살게 된 건 행운이었죠. **배리삼릉공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경주에서 생산한 차와 지역 원물을 활용한 차를 선보였고, '일상차반사'라는 이름으로 팝업을 열었어요. 2024년에는 정식으로 '일상차반사' 티 카페도 오픈했고요. 최근에는 경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경주 산책 도슨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살아 본 경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경주는 명상이나 산책, 슬로 러닝을 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계림을 첫손에 꼽아요. 침성대 인근인데도 몇 걸음만 걸어 들어가면 깊은 숲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어요.





1

2



3



경주읍성이 보이는 독립 서점

서점 북미

경주읍성 항일문의 웅장한 성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건물 2층에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이지트, 서점 북미(Book-me)가 자리한다. '책(book)과 나(me)' 혹은 '책의 아름다움(book+美)'이라는 중의적 이름을 가진 이곳은 영화 번역가 출신인 주인이 자신의 취향을 듬뿍 담아 꾸민 영화 서적 중심의 독립 책방이다. 문을 열면 은은한 조명 아래 대형 서점에서는 만나기 힘든 독립 출판물과 영화 원작 소설, 두툽한 시나리오집, 희귀한 영화 포스터와 굿즈로 오밀조밀하게 채워져 있어 영화광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 서점 북미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성곽 전망'이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경주읍성의 성곽과 기와지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책을 읽다 무심코 고개를 들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특히 해 질 녘 성곽에 조명이 켜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드는 날에는 황홀할 만큼 비현실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조용한 영화음악과 읍성의 고즈넉한 풍경, 묵직한 영화책 한 권만 있으면 경주 여행이 한 편의 근사한 롱 테이크 영화로 기억된다.

주소 경북 경주시 북성로 103-1 문의 0507-1331-7840

4



5



- 1 통창으로 보이는 경주읍성 전망.
- 2, 3 영화 번역가 출신 주인이 직접 고른 독립 출판물과 원작 소설로 채워져 있다.
- 4 읍성을 마주하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 5 구석구석 쌓인 책과 따뜻한 스탠드 불빛이 아늑함을 더한다.

no.14

GYEONGJU



KTX MAGAZINE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송대말등대 & 문무대왕릉

커피플레이스

ㅎㅎㅎ

위드구스토

1925감포 & 배리삼릉공원

서점 북미

WRITER 이지혜(<헤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서세현

지금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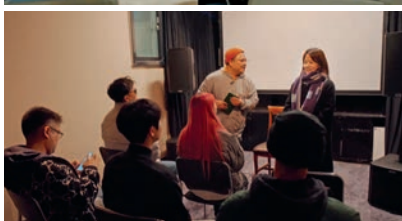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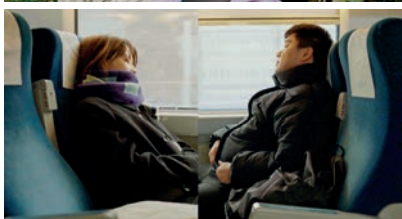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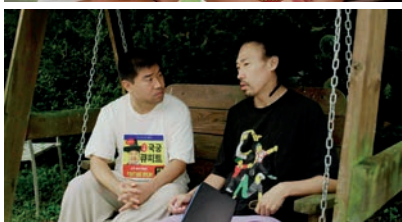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배우 류현경 | 도예가 신상호가 펼치는 흙의 무한한 변신 | 신인선 퍼핏티어가 들려주는 인형극의 세계
한의학을 친숙하게 만나는 서울한방진흥센터 | 경남 마산 원도심나들이





신인 감독 류현경

배우 류현경이 영화감독이 되어 나타났다.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촬영했다는
 〈고백하지마〉의 배경은 촬영을 마친 영화 뒤풀이 현장,
 등장인물은 배우와 스태프다. 따라서 영화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데,
 류현경은 영화 안팎에서 감독과 배우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든다.



보통의 배우, 배우 이야기

영화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입김이 10미터 너머까지 닿을 것처럼 쨍한 날, 류현경 감독이 매니저나 스태프 없이 홀로 촬영장에 나타났다. 발목까지 오는 긴 패딩 코트 차림에 손에는 그가 좋아하는 DVD를 들고 있었다. “혼자 왔나요?”라는 물음에 “네” 하고 답하고는 “저 말고 다른 배우들도 촬영 없을 때는 대부분 혼자 다녀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말과 말 사이에 ‘배우 주목받는 몇몇을 제외하고’라는 뜻의 괄호가 생략돼 있는 듯했다. 보통의 배우 류현경이 영화감독이 되어 처음 꺼낸 이야기로 ‘배우에 관한 것이다’.

류현경 감독의 장편 데뷔작 <고백하지마>는 놀이하듯 시작된 영화다. 김오키 감독의 영화 <하나, 둘, 셋 러브> 촬영 마지막 날, 대여한 장비를 그대로 반납하기 아쉬웠던 배우들은 ‘뭐라도 찍어 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음향 감독은 촬영장을 떠났고, 시나리오에는 없었다. 카메라와 함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갑자기 김충길 배우가 류현경 배우에게 고백을 했다. 이미 여러 영화에서 김충길 배우가 고백하는 신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류현경 배우가 즉흥으로 연기를 받으며 첫 신을 완성했다. 첫 신을 찍고 나니 다음 신이 찍고 싶어졌다. 류현경 배우가 감독이 되어 이 끝었고, 상황이 재미있던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의견을 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보자’ ‘화내는 장면을 찍자’ 등등 상황이 조금씩 확장됐다. 그때까지 누구도 그 날 촬영한 장면이 영화로 만들어질 줄 몰랐다. 류현경 배우는 촬영한 장면을 보면서 추가 촬영해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김오키 감독과 촬영 감독을 만나 상의했고, 부산 촬영을 감행했다. 화면 구성과 이야기 흐름을 설계했지만, 여전히 정해진 시나리오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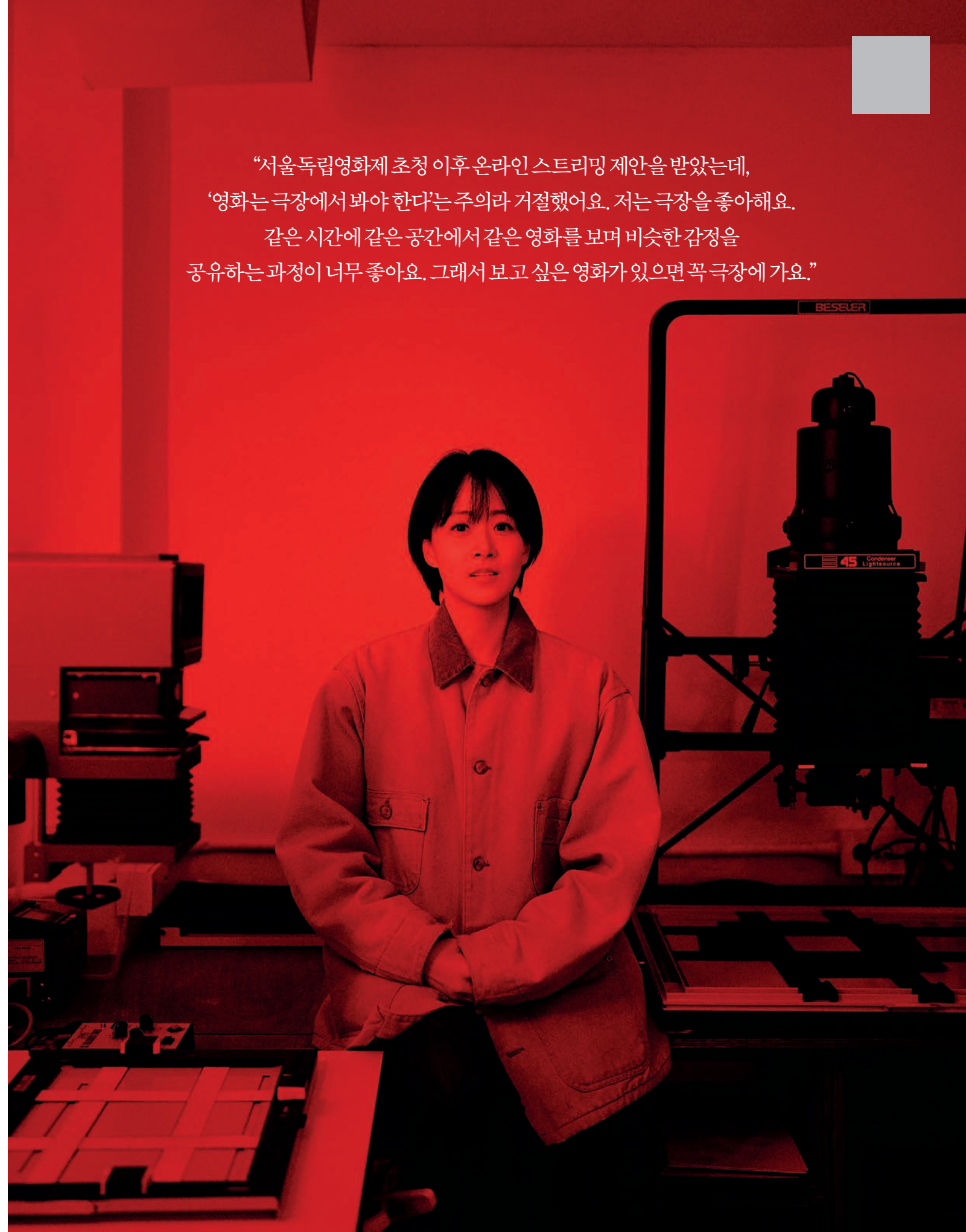
시나리오 없는 영화, 편집의 예술

<고백하지마> GV에 참석한 윤가은 감독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영화’라며 ‘새로운 영화를 고민하는 사람이 미래로 간다고 극찬했다.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상황만 설정해 즉흥적으로 촬영한 새로운 제작 방식을 두고 한 얘기다. 영화는 2024년 서울 독립영화제 ‘페스티벌 초이스 장편’ 부문, 2025년 전주국제영화제와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익숙하지 않은 영화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에디터는 인터뷰를 영화로 만든다는 가정하에 녹음기에 담긴 인터뷰 하나를 꺼내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시간은 편집했지만 독백으로 처리해야 할 대사가 많았다. 영화 <고백하지마>에는 독백이 거의 없다. 여백은 독백으로 채워야 인터뷰가 완성되는데, <고백하지마>의 여백은 여운이 되는 이유가 궁금했다.

영화는 현실을 잘라서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압축하거나 확장하고, 각각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결합해 한 장면만으로는 생기지 않는 의미와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화를 ‘편집의 예술’이라 부른다. 류현경 감독의 장편 데뷔작 <고백하지마>는 이러한 편집의 정점에 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연기, 연출, 편집은 물론 영화사를 차려 직접 배급까지 하는 류현경 감독에게 영화 어떤의 이야기를 물었다.



“서울독립영화제 초청 이후 온라인 스트리밍 제안을 받았는데, ‘영화는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주의라 거절했어요. 저는극장을 좋아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보며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꼭 극장에 가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한 영화예요. 관객에게 달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전반부는 즉흥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재미있어 조금씩 확장하며 만든 장면이고, 후반부는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 화면 구성과 흐름을 설계해 만든 장면이에요. 전반부는 '갈등 상황을 만들자' '화를 내며 싸워 보자' 같은 상황 설정을 했다면, 후반부는 정해진 대사가 없지만 어떤 분위기의 대사를 해야 할지 배우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면서도 장편영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받고 나서 '극장에서 상영해도 되는 영화구나'라고 생각했죠. 영화제 이후 온라인 스트리밍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주의라 거절했어요. 그런데 독립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하려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더라고요. 결국 배급사 찾기에 실패했고, 직접 '류네'라는 1인 영화사를 차려 배급까지 하게 됐어요.

영화 제작 방식만큼 상영 방식도 다양해졌는데 극장 상영을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극장을 좋아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스크린이 걸린 한 방향으로 모여앉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영화를 본다는 것이, 그렇게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꼭 극장에 가요. 독립 영화도 자주 보는데, 이번 영화 개봉을 위해 좋아하는 극장에 찾아가 인사하면서 포스터를 드리니 상영해 준다는 곳이 여럿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오랫동안 영화 일을 했지만 <고백하지만>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관객과 만나는지 대략의 프로세스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 과정을 겪은 건 처음이에요. 극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몸은 정말 힘들었는데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시나리오 없이 설정이 계속 바뀌는 영화라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었고요.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이어지면 살짝 끼어들어 원하는 방향

으로 이끌었는데, 그런 과정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업 방식이고, 함께 놀이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촬영은 즐겁게, 하지만 후반 작업은 고통스러웠죠.

어떤 고통이 뒤따랐나요?

영화로 만들 생각 없이 전반부를 찍었고, 현장에 음향 감독님이 없었어요. 아이폰으로 녹음했는데, 작업하다 보니 사운드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편집을 도와준 친구가 있지만 전체 편집은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예산도 넉넉지 않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작업을 공부해 가면서 하느라 후반 작업이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편집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장면이나 기술적으로 아쉬운 장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장편으로 기획한 영화가 아니었으니 대본 없는 영화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영화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완성하고 보니 '우연의 연속이 운명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충길이 현경에게 고백하고, 두 사람 모두 안 좋은 일들을 겪은 후 3개월 뒤에 우연히 다시 만나요.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같은 티셔츠를 커플 룩처럼 입고 있거든요.

감독과 배우의 경계가 없는, 모두가 감독이자 배우인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시나리오 없이 상황만 주어진 영화에 배우로 출연해 본 적이 있나요?

감독님이 시나리오에 없는 신을 추가했는데, 의외로 신나게 촬영한 적이 있어요. 영화는 감독의 의도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업하되 즉흥적으로 추가하는 장면이 있고,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토씨 하나 벗어나지 않는 영화도 있죠. 최근에 윤가은 감독님이 고아성 배우와 함께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는데, 배우에게 대사 두 줄을 주셨대요. 10대 초반에 배우를 시작한 저는 늘 '영화는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영화의 부품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감독님들을 만난 덕분에 그런 인식이 몸에 배어든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연기가 아닌 연출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감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중학생 때 처음으로 단편영화 <불협화음>의 시나리오를 썼고 연기도 했어요. EBS에서 방송되기도 했고요. 시나리오, 연기, 연출, 촬영, 편집 등 경계 없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졸업 후에는 뮤직비디오 몇 편 연출할 것을 제외하곤 연기만 했어요. 배우가 연기 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에 굶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 연기에 대한 열망이 컸기에 먼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자고 생각했죠.

올해로 데뷔 30주년이예요. 영화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종종 비슷한 질문을 받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답을 못 해요. 멋진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 '신나서'라고밖에 답하지 못해요. 촬영장에 가는 것도 신나고, 집에서 DVD를 보거나 극장에 가는 것도 신나요. 어떤 영화는 감정이입을 해 폭 빠져서 보고, 어떤 영화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걸 감상하기도 해요. 영화를 통해 공감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나는 것도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했잖아요. 실제 나의 모습과 캐릭터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는 없나요?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모두 제 안에 있는 모습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배우마다 연기 스타일이 달라서 캐릭터와 자신을 분리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캐릭터에 맞는 얼굴을 꺼내 극대화하는 연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릭터와 저와의 괴리감을 느껴 본 적이 없어요. 모두 저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막 영화 감독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다음 영화도 궁금해요.

우선 제가 쓴 시나리오를 영화화할 예정이에요. 제작사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영화 문법에 보다 가까운 영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없는 영화 두 편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중 한 작품은 팍 튜브와 함께 찍기로 했어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 배우와 연기를 하고 싶은 유튜브가 함께하는 여정이 영화에 담길 거예요. 또 트리트먼트식으로 써 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동료 배우들과 함께 배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영화와 드라마도 촬영 중이어서 배우 류현경의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흙의 오디세이

한 사람의 예술가가 오직 하나의 재료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세계는 얼마나 넓고 깊을까.

한국 현대 도예의 선구자 신상호가 흙으로 빚어낸 60년의 장대한 여정,

〈신상호: 무한변주〉전에서 그 답을 마주할 수 있다.





한국미의 극치를 보여 주는 분청에 호반한 회화적 표현을 더해 새로운 경지를 드러낸 '분청', 1990~1994, 혼합토, 상감, 귀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봄에는 벚꽃 대궐, 가을에는 단풍 터널, 눈이 내리면 겨울 왕국이 되는 드라이브 코스가 일품이다. 가는 길 목의 놀이공원이나 '미술관 옆 동물원'에 들르고 싶은 마음을 꼭 눌러야 하는 게 고역인데, 도착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 청계산 자락 허리에서 만나는 이 시대 근현대 미술의 정수! 이곳은 신년에도 다양한 관람객으로 출렁이고 있다. 방학을 맞아 미술관을 찾은 학생들은 30여 년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상징이자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던 백남준의 '다다이선'을 배경으로 SNS용 사진을 찍는 데 열중하고 있고,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상들리에>전을 통해 최근 공개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앞에는 새해 첫 테이트를 나온 연인들의 뒷모습이 정겹다.

하지만 올겨울 과천의 주무대는 도예 작가 신상호의 대규모 회고전 <신상호: 무한변주>다.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자 작가 개인전입니다. 도자 작가로는 최초로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모두 사용해요. 무려 3300제곱미터(약 1000평)가 넘는 공간을 감당하려면 작품 수뿐 아니라 내용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신상호 작가의 독자적인 창작 세계가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도자 작품 90여 점과 아카이브 70여 점을 선정했고(개별 작품 수로 따지면 족히 600점이 넘는다!) 작품의 범주와 시대적 전개에 따라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작품을 배치하는 데 기증기까지 동원하는 '특급 작전'을 실행했다. 그렇게 한국 현대 도예의 선구자 신상호의 도자, 60년간의 실험과 도전의 여정이 여기 과천에 펼쳐졌다.

흙, 전통과 창조 사이
결론부터 말해 보자. 작가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호방



2부 '도조의 시대' 섹션에서는 '꿈', '아프리카의 꿈' 연작을 위해 만든 다양한 동물 속작을 볼 수 있다. 새와 말, 스, 돼지뿐 아니라 공룡, 뱀, 미지의 동물까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홀로 빚어 놓았다.

한 기개로 이 압도적인 공간을 거뜬히 장악했다. 돌이켜 보건대 신상호의 일대기는 그 자체로 한국 현대 도예의 역사라 할 만하다. 1965년 홍익대학교 공예학부에 입학한 작가는 스무 살이 되기도 전, 경기도 이천의 열다섯 칸 규모 가마를 인수해 '도방요'라 이름 짓고 직접 운영했다. '도예'라는 말이 있기는커녕 흙을 만지면 모두 '옹기장이'나 '가마장'이라 부르던 시절이었다. 학교에서는 순수 미술을 공부하는 예술학도로서 현대를 추구하고, 이천에서는 큰 규모의 가마를 운영하며 전통을 배워나갔다. 평생 고려청자의 비색을 연구한 해강 유근형 선생부터 실습하는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도방요의 가마를 빌려 자기를 구웠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면 그 시절, 젊은 신상호가 만든 전통 자기가 관람객을 맞는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서 한국 전통 도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었던 그때, 유구한 전통에 작가적 미감을 더해 현대성을 추구한 도방요의 청자와 백자가 그야말로 날

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전시장 한편에서 홀연히 기품을 뽐어내는 달항아리, 오동나무 상자와 짝을 이룬 '청자상감운학문병'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컬렉터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한복판에 무리 지어 있는 분청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오라를 발산하는 관람객의 혼을 쏙 빼 놓는다. 자세히 보면 새, 물고기, 풀 같은 자연물을 그려 넣었는데, 전통적 분청 기법을 따르면서도 호방한 선과 자유분방한 터치 덕분에 현대미술 회화를 보는 듯 경쾌함을 안겨 준다. 항아리를 캔버스 삼아 흙으로 그린 단색 추상화라고 할까. 한국미의 극치를 보여 주는 분청을 재료로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선보이는 원숙한 균형감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두 번째 방에 들어서면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다. 1980년대에 이르러 작가는 강렬했던 전통 도자의 환희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 옹기의 기능을 넘어서 도자를 조각·회화·건축적 요소가 결합된 예



4부 '사물과의 대화' '색선'에서는 작가가 아프리카, 중국, 영국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해 수집한 공예품을 전시한다. 작가에게 수집은 단순한 취미나 장식이 아니라 창작의 원천이고, 작가는 이질적 요소를 결합해 특유의 조형 언어로 확장했다.

신상호의 무한 변주를 관통하는 것은 오로지 흙이다. 그릇과 항아리, 동물과 사람, 회화와 조각, 단색과 원색,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쉽 없이 변주되는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언제나 흙이었다.

술로 확장하려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흙이라는 재료를 쓰는 것 말고는 표현 방식도, 주제도, 기법도 완전히 다른 도자기 조각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 작업을 '도조라고 이름 붙였다. 사방이 흰 벽이던 이전 전시실과 달리 이 공간에는 레드와 블루의 강렬한 조명 아래 다양한 생명체를 형상화한 도조가 펼쳐진다. 모노드라마 무대를 구성하듯 감상을 극대화하는 조명 덕분에 말과 새, 돼지와 상상 속 동물까지 작품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듯 존재감을 드러낸다.

1990년대 영국 왕립예술대학 초빙교수를 지낸 신상호는 <아프리카: 대륙의 미술>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프리카 미술과 한국 토속 미술이 기복 신앙의 맥락에서 닿아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인간의 창조 행위가 문명 이전의 신화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예술적 동기를 부여했다. 작가는 흙이야말로 이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라 확신했다. 이후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마주한 생명력과 원초적 힘, 야생동물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역동성을 표현한 '아프리카의 꿈' 연작을 이어간다.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조와 함이드' 앞에서 유독 많은 관람객이 걸음을 멈춘다. 새인지 미지의 생명체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비정형의 구조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조각적 리듬을 구현하는 여러 개의 다리가 시선을 사로잡

3부 '불의 회화' '색선'에서 소개하는 '구운 그림' 도자 타일. 작가는 도자와 건축의 결합 가능성을 실험하는 한편, 구워서 표현할 수 있는 값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흙의 쓰임새를 넓혔다.



어두운 색 안료를 입혀 흙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낸 '꿈' 연작 중 '꿈-머리', 1991, 혼합토.



흙을 '생명의 원초적 에너지'를 담아내는 '최적의 매체'로 인식한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 형상을 만들었다. '꿈-머리', 2010, 혼합토.

기 때문이다. 20여 마리의 새 무리가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듯한 설치 작품 또한 절묘하다. 생생하다 못해 공포감마저 안겨 주는 이 생명체들이 오로지 흙으로 만들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워진 도자라니, 게다가 앞서 목격한 청자와 분청의 시간으로부터 연속된 세계라니!

한 미술 평론가의 표현을 빌리면, 신상호는 '전통과 창조 사이의 세계'에 존재했다. 덕분에 언제나 경계인이었다. 순수 미술 쪽에서는 도예가라고 선을 긋고, 도예 쪽에서는 되레 전통을 벗어났다고 타박했으니 두루 억울했을 테지만, 작가의 타고난 기질을 막지는 못했다. 작가 노트를 통해 "나와 새로운 대상이 합일을 이루기를, 아무 데도 없는 것을 세상에 내놓고 나 자신 역시 이전의 나를 탈피하고자 했다"라고 밝힌 그대로, 신상호는 새로움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 왔다.

무한 변주, 끝나지 않을

다음 여정은 건축의 세계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작가는 '구운 그림(fired painting)' 타일로 도자와 건축의 결합을 시도했다. 50x50센티미터 크기의 도자 타일을 색색으로 구워 내 반영구적 건축 외피로서 도자의 응용 가능성을 실험한 것인데, 이를 위해 벽면의 표피를 감싸면서도 분리와 재설치가 가능한 탈착 체계를 직접 설계했다. 지금으로 치면 참으로 '인스타그램 멀쩡'했을,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밀레니엄 타이드'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금호아시아나 사옥(현 콘코디언 빌딩), 서초 삼성타운 등의 대형 외벽 프로젝트가 그렇게 탄생했다.

미술관에서 직접 마주하는 구운 그림의 백미는 다른 아닌 '색'이다. 붓칠이나 실크스크린 같은 회화적 색감을 완벽하게 구현한 도자의 세계는 낮설고도 아름답



다. 작가는 “작품을 하며 크기가 자유로워지니 그다음에 색의 중요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면 자연 속에서 연둣빛이 드러나니 그 빛깔이 봄의 언어지요. 이런 색을 도자에도 마음껏 구현하고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안료와 유약의 배합, 소성은 도에 따라 구현되는 색이 달라 하나의 타일을 5회 이상 구워 완성했기에 색마다 질감도 다르다. 그래서 이 전시장에서만큼은 구운 그림을 관람객이 직접 만져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또한 도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장해 온 ‘신상호다운’ 장면이다.

작가에게 마르지 않는 예술적 영감을 주는 수집품이 가득한 방을 지나 마침내 다다른 마지막 전시실에는 ‘흙의 끝, 흙의 시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2017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 도자 회화 연작 ‘생명수’와 ‘목시록’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다가 노년에 접어든 작가가 무엇

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흙으로 그린 그림’이다. 전통 자기로 시작해 조각과 설치를 거치고, 불과 유약과 도료를 정복한 작가는 이제 평면 앞에 서서 아크릴물감을 들었다. 주인공은 지난 40여 년간 작가의 부곡 스튜디오 입구를 지켜 온 느티나무다. 생명의 순환을 은유하듯 무성한 가지, 가랑잎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 계절이 지나면서 이파리가 떨어지는 모습 등을 작가의 원숙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벽에 걸리거나 바닥에 놓인 채 명상적 체험을 선사한다. 60여 년간 탐구해 온 ‘조각과 회화의 통합’이자 흙을 통한 색채 실험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오대양을 향해하듯 다섯 개의 방을 지나 중앙 홀에 이르면 대형 설치 작품 ‘아프리카의 꿈-토템’이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높은 층고와 조형적인 계단, 육중한 기둥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도열한 백

‘목시록-녹(綠), 적(赤)’, 2025, 혼합토, 일루미늄 패널, 5부 ‘불의 끝, 흙의 시작’ 색선에는 작가의 최신 작업 ‘흙으로 그린 그림’이 자리한다. ‘흙판’을 금속 패널에 부착하고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도자 회화 연작이다. 위로 보이는 두상 설치 작품은 ‘아프리카의 꿈-우리는 아프리카’, 2000-2002, 혼합토.

전시가 마무리되는 곳, 관람객의 마지막 시선이 머무는 위치에 설치된 ‘아프리카의 꿈-우리는 아프리카’, 2010, 혼합토. 작가는 “나 자신도, 그 누구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고 말한다.



색 동물 무리에 압도되어 사색하며 머무르게 되는데, 관람객의 심연을 꿰뚫어 보는 듯 신비롭고 매서운 눈빛이 압권이다.

신상호의 무한 변주를 관통하는 것은 오로지 흙이다. 그릇과 항아리, 동물과 사람, 회화와 조각, 단색과 원색,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쉽없이 변주하는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언제나 흙이었다. “흙은 지구상에서 고갈되지 않는 근원적인 물질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대단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흙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흙 고르기부터 땀감 구하기, 물레를 돌리고 불을 땀구워 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냈던 그 옛날 도공의 숙명 그대로, 작가 역시 평생을 쉽없이 연마했을 터다. 그렇게 만들어진 넓고 깊은 세계에서 관람객은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수련을 보러 왔다가 신상호의 자기에 흠뻑 젖어 시간을 머물다 간다”라는 리뷰가 달리는 이유다.

© 국립현대미술관



중앙 홀에 자리한 대형 설치 작품 ‘아프리카의 꿈-토템’, 2000-2002, 혼합토.



신상호

한국 현대 미술을 이끌어온 대표 작가로 60여 년간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왔다. 1960년대 경기도 이천에서 장작 가마를 운영하며 도예의 길로 들어선 이후, 시대의 변화와 예술적 탐구심을 따라 도자의 경계를 확장하며 대담한 도전과 예술적 실천을 이어왔다. 도자 조각, 건축 도자, 타매체와 결합한 오브제, 도자 회화 등 폭넓은 창작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도자의 회화적·조각적 가능성을 탐구했다. 더불어 국제 공예 비엔날레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한국 도자 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여정

인형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잠들어 있던
동심을 깨운다.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인선 퍼핏티어와 함께 인형극의 세계를 탐구했다.





1



2

화제의 공연 <라이프 오브 파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보트에 남겨진 소년 파이와 뱀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의 227일간의 여정을 그린다. 배우 박정민과 박강현이 맡은 소년과 함께 뱀골 호랑이가 주인공인 셈이다. 이때 뱀골 호랑이는 실제 동물 대신 인형으로 등장하는데, 살아 움직이는 맹수를 표현하기 위해 세 사람이 하나의 인형을 조종한다. 동물의 거친 숨소리까지 재현하는 퍼핏티어(인형 조종사)의 모습에 관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천선란 작가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도 초연 당시 퍼핏티어의 출연으로 주목받았다. 3D 모델링을 활용해 160센티미터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콜리는 배우와 퍼핏티어가 2인1조가 되어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또 다른 캐릭터인 경주마 투데이도 퍼핏티어의 정교한 움직임 덕에 감정을 가진 존재로 구현됐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오른 말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영국 국립극장의 연극 <위 호스>. 핸드스프링 퍼핏 컴퍼니가 설계한 실제 말 크기의 목각 인형이 무대 곳곳을 누비며 관객을 압도했다. 퍼핏티어는 기수 의상을 입고 나와 인형 조종사와 배우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과거에는 관객이 인형에만 집중하도록 퍼핏티어가 몸을 숨기거나 어두운 옷을 입었다면 최근에는 모습을 감추지 않은 채 무대에 오른다. 이렇게 퍼핏티어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둘 풀려가던 차에 또 다른 정보를 얻었다. 인형극을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 여기는 퍼핏테라피의 철학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다. 퍼핏테라피연구소 녹두의 신인선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인형극을 지휘하는 퍼핏티어

작품마다 퍼핏티어의 역할 범위가 다르다. 배우, 연출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신인선 대표는 인형이 탄생하고 관객 앞에 서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1998년 극단 수레무대에 조연출로 입단해 3인조 분절 인형 어린왕자를 만난 이후 인형극의 매력에 빠졌다. 세 명이 호흡을 맞춰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움직이는 경험은 그에게 신선한 자극을 줬다. 극 중 돌발 상황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식도 매력적이었다. “실수로 소품을 바



3

1 인형극연구소 인스의 작업실 풍경. 손수 제작한 인형과 공연 포스터가 보인다.

2 인형 디자이너로도 활동하는 신인선 대표는 희로애락을 담아낼 수 있는 중성적인 외형의 인형을 선호한다.

3 제9회 예술인형축제 초청작 <어느 북소년의 여행>에 등장하는 캐릭터. 마음이 반쪽뿐인 소년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난다.

4 황순원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내 친구 송아지>의 주인공 돌이와 송아지. 목각 인형의 단점을 고려해 스펀지로 만들었다.



4



- 1 워크숍 시작 전 참가자들이 몸을 풀고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을 보낸다. 막대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 2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소개하고 그에 얹힌 추억을 이야기한다. 이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경청해야 한다.
- 3 물건과 연관된 감정의 단어를 적거나 그림을 그려 지도를 꾸민다. 공연의 밑바탕이 되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 4 크라프트지로 인형의 몸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는 신인선 대표.



“인형은 동심을 찾게 해 줘요.
사람들이 인형극을 보며 자유롭고
순수한 자신과 대면하면 좋겠어요.”

다에 떨어뜨렸는데, 조종자가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인형이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처럼 대응했죠.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상황이 흥미로웠어요.”

2011년 인형극연구소 인스를 창단한 신 대표는 처음에는 인형극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어린이 전 유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 유럽 중세의 익살극인 <빠떼와 파이>를 한국 정서에 맞게 재창작한 <빈대떡 신사>를 선보였다. 애초에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기획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점차 달라졌다. 순수성을 끄집어 내는 예술 장르인 인형극은 어쩌면 어린이와 가장 맞닿은 것일지 모르니 어린이가 즐길 만한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다. 나아가 이제 그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형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중이다.

신 대표의 생각을 변화시킨 건 2022년 춘천인형극제 기간에 수강한 칠레 출신 퍼펫테라피스트의 워크숍이었다. 당시 함께 스터디한 구성원들과 계속 활동을 이어 온 형태가 지금의 퍼펫테라피연구소 녹두다. 인형극을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이후 그가 이끄는 극단의 작품에도 변화가 생겼다. 제9회 예술인형 축제 초청작인 <어느 북소년의 여행>은 현대인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마음이 반쪽 뿐인 소년이 남들처럼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인형극은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사막에 짐수레가 달린 삼륜 자전거를 끄는 소년이 등장하며 시작한다. 짐수레 안에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소녀가 타고 있다. 숨을 고르기 위해 애쓰던 소년은 소녀에게 이렇게 묻는다. “잠시만 바람을 쐬면서 땀이 식기를 기다리면 안 될까? 잠시라도 들판에 앉아



서 북을 치며 노래하고 싶어.” 유일한 동행자인 소녀는 그를 씩씩이 재촉한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불안해질 거니까. 멈추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이 쓰레기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관객은 소녀와 소년에게 공감하며 내면의 불안감을 계속 들여다본다.

기억의 정거장을 지나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을 만들고 공연하는 과정이 어떻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퍼펫테라피연구소 녹두의 워크숍에 참가했다. 이날의 워크숍 제목은 ‘기억의 정거장’. 각자의 삶에서 잊지 못할 순간에 잠시 정차하기로 했다. 먼저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고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친다. 민트, 딸기, 생강, 마들리, 팔랑, 썬니. 하루 동안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정하고,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별명을 익힌다. 술래가 되지 않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목 소리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며 어느새 긴장이 풀린다. 다음은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시간. 양손가락으로 막대를 지지하고 여섯 명이 하나가 된다. 막대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핵심이다. 몸에 열이 날 만큼 움직여 몸이 풀렸다면 이제 인형을 매개로 교감의 기회가 주어진다.

2인 1조로 강아지 인형을 조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

막대를 이용해 인형 앞에 길을 놓아 준다. 여러 개의 막대가 교차하며 동작이 꼬이자 신 대표가 조언한다. “조종자가 의도를 가지기보다는 인형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인형에 집중해야 해요.” 모든 참가자가 인형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예의 주시하기 시작한다. 길이 없으면 재빨리 막대를 잇고,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은 걷는 속도를 늦추어 호흡을 맞춘다. 점점 인형의 욕망에 귀 기울이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긴다. 워크숍이 시작되기 며칠 전 모든 참가자는 과제 하나를 받았다. “본인에게 소중한 물건을 가져오세요.” 딸이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책, 아들이 교내 장터에서 사 온 천, 어버이날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 절친이만 들어준 목걸이,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필름 카메라, 엄마가 물려준 목도리, 창단 21주년을 맞은 극단의 팸플릿 등. 누군가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챙겼고, 어떤 이는 미래에 더 가치가 커질 소장품을 가져왔다. 물건과 연관된 감정의 단어를 적거나 그림을 그려 지도를 꾸미는 시간은 공연의 밑바탕이 되는 생



1 참가자 중 팔랑은 가져온 물건을 활용해 인형극을 선보였다. 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소장품이 무대에 올랐다. 2 빨간색 마스크 테이프를 붙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자아를 표현한 인형. 손에는 노란 풍선을 들고 있다. 3 내면의 어린아이를 다정히 안아 주며 딸기의 공연이 끝났다.

각을 정리하기에 유용하다. 나의 소중한 물건에 갖든 키워드는 ‘기록’과 ‘후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글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고집과 강박이 드러난다. 애착의 이유를 다시 한번 짚은 순간이었다. 이제는 나를 대변할 인형을 구상할 차례다. 크라프트지를 구겨 팔과 다리를 만들어도 되고, 부직포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들어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도 있다. 마스크 테이프를 꼼꼼히 붙여 옷을 더하거나 펜으로 색칠해 신체와 의상을 구분하는 등 표현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인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야기를 끌고 가기에 최적화된 형태여야 하며, 각자에게 소중한 물건을 활용하기 쉬운 인형이면 더 좋다. 참가자 중 딸기는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의상을 입은 두 개의 인형을 제작해 기쁨과 슬픔이 주된 감정이었던 시기의 모습을 나타냈다. 마덜리는 표정이 없는 인형으로 극을 이끌다가 벨크로를 덧댄 부직포 가면을 붙여 종교를 가진 이후 평온함을 얻은 변화를 전했다. 넘어지고, 몸을 흔들며 울고, 또 다시 일어나는 등 인형의 몸짓은 참가자가 지나온 삶의 굴곡을 드러냈다. 딸기는 퍼핏테라피 워크숍을 몇 차례 경험한 이후 힘든 시절을 떠올려도 이제 더 이상 눈물이나지 않는다며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인형은 동심을 찾게 해 줘요. 사람들이 인형극을 보며 자유롭고 순수한 자신과 대면하면 좋겠어요.” 신 대표의 맺음말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박수로 워크숍은 마무리됐다. 인형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하늘을 날



3

거나 온갖 묘기를 부릴 수도 있어 놀려 왔던 욕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매개체다. 인형극 안에서는 보고 싶은 이를 만나고, 화해하고 싶은 이에게 사과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내 안의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할까? 꼭꼭 숨겨 뒀던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에 갔을까? 또 다른 나와 숨바꼭질이 오래 이어졌다면 구석에 웅크린 나를 찾아 어깨를 톡톡 두드려 보자. 퍼핏테라피는 상처 입은 자아를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는 과정이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 놓고 싶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형을 하나 건네고 싶다.



인형극연구소 인스

인형, 가면, 오브제를 창작에 적극 활용해 연극적 상상의 한계에 도전하는 실험 창작 극단이다. 2011년 창단한 이후 춘천인형극제, 예술인형축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서울아시테지 겨울축제, 수원연극축제 등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이다. 본격 슬랩스틱 코믹 인형극 <빈대떡 신사>, 안톤 체호프의 단막 희극을 재해석한 <웃기는 청춘>, 카자흐스탄 유목민의 설화를 기반으로 세 동물의 모험을 그린 <세 친구>, 삶의 통찰과 유머를 노래하는 테이بل 인형극 <고도를 기다리며> 등을 무대에 올렸다. 대표작으로 <어느 북소년의 여행> <내 친구 송아지> <으랏차차 순무가족의 커다란 순무>가 있다.





한방의 지혜 맛보기

누구나 한의학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 건강한 기운을 받겠다고 다짐하며
약재 향이 가득한 서울 제기동을 찾았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마감 루틴이 하나 생겼다. 다음 마감을 앞두고 몸 상태를 재정비하기 위해 한의원에게 가서 침 맞기다. 연이어 밤을 새운 탓에 생체리듬이 깨지며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비몽사몽한 상태로 한의원 침대에 몸을 눕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맞고, 땀을 뜨고 부항 치료도 하며 몸을 회복하려 노력한다. 기력이 쇠하다고 느낄 땐 한약을 처방받고, 고된 출장이 예상될 경우 공진단을 챙겨 가기도 한다. 드라마 <우주메리미>에 등장한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보고 두 눈이 반짝인 건 이처럼 한방 문화와 친숙하기 때문이었다. 최근 사계절 약초 족욕 체험이 가능하도록 족욕장에 유리문을 설치하고 난방 공사를 마쳤다는 소식도 들어 방문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 제기동역에 내려 서울약령시 입구의 일주문을 지나자 진한 약재 향이 주위를 감싼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한방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디뎠다.

+ 서울한방진흥센터, 이런 곳이에요

한의학을 주제로 한 전시와 웰니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방 복합문화 공간이다. 2006년 서울약령시상인들이 기탁한 한의약 관련 유물과 각종 한약재를 모아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먼저 세웠고, 2017년에 문을 연 서울한방진흥센터에 편입됐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의약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과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드라마 <우주메리미> <트웰브> <힘센여자강남순> 등에 등장하며 인기 촬영지로도 주목받았다. 건물이 자리한 서울약령시는 국내 한약재의 70퍼센트가 유통되는 약재 전문 시장으로, 조선 시대 의료 기관인 보제원터에 자리 잡아 옛정신을 계승한다.



© 서울한방진흥센터

발열 안대를 끼고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운 뒤 담요를 목까지 덮는다. 온열 안마 매트 안에 숨겨진 기계 불이 온몸을 마사지하는데, 종아리에 유독 자극이 오는 걸 보니 종아리 근육이 뭉친 듯하다. 기계 불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스스로 몰려오던 졸음이 한 번에 달아난다. 몸의 긴장이 풀릴 즈음 약속된 15분이 지났다. 사실 잠든 척하고 가만히 누워 있고 싶었다.



손과 발에는 오장육부 장기들과 이어지는 혈자리가 있다. 병풀 에센스를 넣은 장갑을 끼고 마사지에 왼손을 넣는다. 혈자리를 알려 주는 책자를 확인하며 양손을 번갈아 5분씩 지압하고, 두 다리를 15분 내내 기계가 주무르니 정신이 맑아진다.



<동의보감>에는 '두한족열'이라는 건강비법이 나온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두라는 뜻이다. 족욕 체험 시 계절마다 다른 약초를 쓰는데, 겨울에는 성질이 따뜻한 홍삼 가루를 물에 풀어 발을 담그라고 안내한다.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며 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니 한기가 사라진다. 수건으로 발을 닦고 발등에 미스트를 뿌리자 발이 향긋하고 촉촉해졌다.



온종일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눈이 피로해지기 쉬운 현대인에게 찜질용 안대는 하나쯤 구비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다. 속주머니에 주재료인 팥을 두 컵 넣고, 취향에 따라 팔각과 박하를 소량 추가하면 한방 안대가 완성된다. 팥은 열전도율이 높고, 팔각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박하는 진정 효과가 있다. 팔각을 각종 요리에 쓴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줄 몰랐다. 꽃을 닮은 팔각을 하나하나 고심해서 골랐다.



전시 I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한의학의 발전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이다. 나무 약연, 막자사발, 돌절구 등 용도에 맞게 변화해 온 전통 의약 기구와 서울약령시에서 거래되는 약 380종의 약재를 한데 모았다. 약초 채취부터 가공을 거쳐 약재로 활용하기까지 한약의 제조 과정을 디오라마 형태로 보여 주기도 한다. 전시관 한쪽에서는 목향, 천궁, 당귀 등 여섯 가지 약재를 직접 만져 보고 향을 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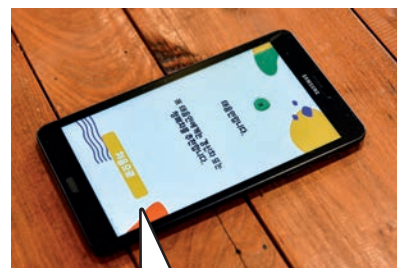
전시관람이나 체험 티켓을 소지한 경우 하루 한 번 전통 의상 입기 체험이 가능하다. 성별 구분 없이 의관복과 의녀복 중 원하는 의상을 골라 착용한다. 일상 한복은 익숙하지만 의녀복은 처음 시도하는 거라 묘하게 설렌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한때 꼭 빠져서 봤던 드라마 <대장금>이 떠오른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가 눈에 띄었다. 수어 해설 영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을 보고 QR코드를 촬영하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유튜브 채널 영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에 한국수어의 날에 관한 기사를 담당해서인지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한의학에서 약은 뿌리와 풀이라고 할 만큼 식물성 약재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인지 전시관에도 다종다양한 식물성 약재가 공간을 채우고 있다. 밤송이처럼 뾰족한 가시를 가진 창이자, 목련 꽃봉오리를 말린 신이 등 독특한 형태의 약재가 눈길을 끈다. “허리와 척추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효능을 설명하는 안내판의 문장도 유심히 살폈다. 각각의 약재가 지닌 효능을 쫓아다니니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를 외치고 싶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주세요.”



태블릿 PC로 간단한 체질 검사가 가능하다. 자주 가는 한의원에서 소음인으로 진단받았는데, 태음인이라는 결과가 나와 놀랐다. 어찌 됐든 둘 다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체질이니 요가원에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다짐한다. 소음인에게 추천하는 온종자·장생차, 태음인에게 권하는 경신차·청폐차 티백을 모두 구매했다.

효성한의원에서 상담료 2만 원을 내면 한의사에게 상세한 체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태음인에 관해 더 알고 싶었는데 한의원이 쉬는 날이라 아쉬웠다. 대신 집에 가는 길에 끝없는 인터넷 검색이 이어졌다.



하루 종일 약재 냄새를 맡아서인지 평상시엔 먹지도 않던 쌍화차를 맛보고 싶었다. 이곳의 쌍화차는 많이 달지 않고, 듬뿍 올린 견과류 덕에 고소한 맛이 난다. 체질 차도 주문했다. 태음인에게 맞는 체질 약물에 호흡기에 좋다는 청폐차를 골랐다. 향광 분홍빛을 띠는 체질 약물에 청폐차 재료인 말린 약재를 넣고 휘저으니 노란빛으로 변한다. 맛과 향이 달라진 구수한 차에 유과와 약과를 곁들여 천천히 음미했다.

카페 I 한방 카페 다미가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한방 카페 다미가는 ‘차가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으로 효성한의원인 운영한다. 쌍화차, 심전대보차 등 한방차는 물론 자체 개발한 체질 차도 인기가 높다. 임경섭 효성한의원 원장과 이분희 다미가 대표가 사상의학에 근거한 체질 차를 만들어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부켓 귤뒤즈의 망원동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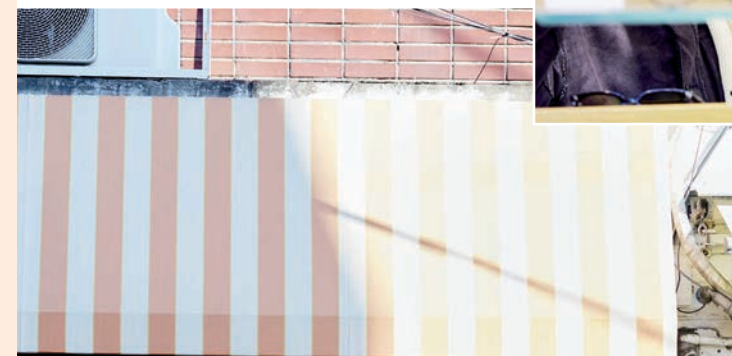
Buket Gündüz's Mangwon-dong Exploration

부켓 귤뒤즈

Buket Gündüz

튀르키예 이스탄불 출신의
비주얼 디자이너이자 모델.
2016년 한국에 여행 왔다가
정착해 10년째 살고 있다.
6·25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덕분에
그에게 한국은 낯설지 않았다.

A visual designer and model
from Istanbul, Buket first
came to Korea in 2016 as a
traveler and decided to stay.
Now in her tenth year here,
Korea has never felt entirely
foreign to her. Growing up,
she often heard stories
about the country from her
grandfather, a veteran of the
Korean War, which gave her
an early sense of familiarity.



서울 망원동은 오래된 시장통의 시끌벅적한 활기와 젊은 예술가들의 감각적인 취향이 포개지는 동네다.
한국살이 10년 차, 이스탄불에서 온 부켓 귤뒤즈와 함께 이 매력적인 장소를 탐험했다.

Mangwon-dong is a neighborhood where the boisterous energy of an old market district overlaps
seamlessly with the refined tastes of young artists. We explored this magnetic corner of Seoul with
Buket Gündüz, an Istanbul native who has called Korea home for ten years.



취향 저격 편집숍 투어, 망리단길

Mangnidan Street, A Curated Shop Crawl

망원동 투어의 시작점은 힙스터들이 사랑하는 망리단길. 부켓 권뒤즈는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고심한 끝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유니크한 의류가 가득한 '빈티지 킴킴'이다. 가게에 들어서니 이곳의 터줏대감인 고양이 '짱짱이'와 애교 많은 강아지 '에밀리앙'이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맞이한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겨 주는 옷 가게라니! 에밀리앙이 너무 귀여워서 옷 고르는 것도 잊을 뻔했어요." 부켓은 빈티지한 뽕모자를 머리에 얹어 보거나 레트로 원피스를 몸에 대 보면서도 짱짱이와 눈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빈티지 킴킴에서 나와 몇 걸음 걷다 보니 안경 박물관이 연상되는 압도적 규모의 '블링크 안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트렌디한 안경 브랜드와 클래식한 럭셔리 라인을 두루 갖춘 이곳은 아이웨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린다. 안경을 좋아하는 부켓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공간. 부켓은 호피 무늬 뿔테 안경을 쓰곤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각진 금속 프레임 안경으로 바꿔 쓰고 프로 모델다운 포즈를 취한다. 쇼핑의 마지막 목적지는 귀여운 소품 숍 '웅크린 선인장'. 두 팔로 두 다리를 감싸 안은 모습의 선인장 캐릭터가 반기는 곳이다. 부켓은 앙증맞은 선인장 키링과 엽서를 한 아름 집어 들어 아이처럼 천진한 미소를 지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일대

The tour begins on Mangnidan Street, a stretch beloved by hipsters and tastemakers. Buket said she wanted to shop, and after weighing several options, her first stop was Vintage KimKim, a boutique packed with one-of-a-kind clothing. Inside, longtime resident cat Jjingjijing and the affectionate dog Emilian wag their tails to greet customers. "A clothing store where a dog and a cat welcome you. I almost forgot to look at the clothes because Emilian was so cute," Buket laughed. She tries on a vintage baker-boy cap, holds up a retro dress to check the fit, then gets distracted again making eye contact with Jjingjijing. A few steps down the street, Blink Eyewear commands attention with its museum-like scale. Stocked with both trend-driven brands and classic luxury lines, it is considered a pilgrimage site among eyewear enthusiasts. For Buket, who loves glasses, it is an instant favorite. She slips on leopard-print horn-rimmed frames and strikes a playful pose, then switches to angular metal frames and snaps into a professional model stance. The final shopping stop is Lazy Cactus, a charming accessories shop where a cactus character hugging its own legs greets visitors. Buket scoops up a handful of cactus key rings and postcards, smiling with childlike delight.

Address Poeun-ro, Mapo-gu, Seoul





사각사각 몰입의 즐거움, 실크휴먼

Silk Human, The Pleasure of Immersive Focus

망원동 탐험의 두 번째 챕터는 부켓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곳. 망원동 특유의 자유로움과 예술적 감성이 응축된 누드 드로잉 스튜디오 실크휴먼이다. 전문 누드모델의 아름다운 자태와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며 종이 위에 옮기는 과정은 고도의 몰입감이 필요하다. 적막하리만큼 고요한 분위기에서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ASMR처럼 공간을 채우는 시간. 부켓은 피사체와 자기 자신, 그리고 스케치북 위의 선에만 집중하며 두 시간여를 보냈다.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선이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다. 정해진 답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진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모델의 호흡에 맞춰 선을 긋다 보니 어느새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어요. 이렇게 온전히 무언가에 집중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실크휴먼은 최근 그림뿐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실험도 시작했다. 바로 인형극 제작 워크숍이다. 나만의 인형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 실크휴먼은 어른들의 잃어버린 동심과 예술성을 깨우는 가장 낭만적인 아지트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8길 19

The second chapter of the Mangwon-dong exploration takes Buket to a place perfectly suited to her sensibilities. Silk Human is a nude drawing studio that distills Mangwon-dong's signature freedom and artistic spirit. Observing the graceful form and subtle movements of a professional nude model and translating them onto paper creates an intense sense of focus. In the near silence, only the soft scratch of pencils fills the room like ASMR. Buket spends nearly two hours concentrating solely on the subject, herself, and the lines forming on her sketchbook. Artistic skill is not required, and crooked lines are welcome. With no right answers, the act of free expression clears the mind. “It felt unfamiliar at first, but once I started drawing in rhythm with the model's breathing, I slipped into a trance. I cannot remember the last time I focused so completely on one thing,” she said. Silk Human has recently expanded beyond drawing to new artistic experiments, including puppet-making workshops where participants design, build, and perform with their own creations. It is a romantic hideout that awakens adults' dormant sense of play and creativity.

Address 19, Donggyo-ro 8-gil, Mapo-gu, Seoul





한낮의 브런치와 한밤의 위스키, 빌렛 망원 & 초쿤바

Billet Mangwon & Chokoon Bar:
Daytime Brunch & Nighttime Whisky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빌렛 망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빨간색 외관, 벤치와 테이블이 놓인 테라스, 그리고 실내의 싱그러운 플랜테리어까지, 빌렛 망원은 뉴욕 브루클린의 식당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메뉴는 하나하나가 주연급이다. 두툽하고 폭신한 팬케이크 위에 찜조름한 베이컨과 부드러운 달걀을 얹어 ‘단짠’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 주는 시그니처 ‘에그 앤 베이컨 팬케이크’는 기본이고 파스타도 수준급이다. 그중 방울토마토를 몽근하게 끓여 재료 본연의 감칠맛과 기분 좋은 산미를 극대화한 ‘체리 토마토 파스타’는 셰프의 내공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위스키 바 초쿤바는 망원동 투어의 마침표를 찍기 좋은 곳. 안으로 들어서면 몽환적인 조명과 공간을 채우는 사운드가 손님을 맞이한다. 부킷은 평소 즐겨 마신다는 피치 크러시를 주문했다. 복숭아의 향긋한 풍미와 크랜베리의 상큼함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결들인 안주는 ‘레몬 타임 버터와 크래커’. 향긋한 레몬과 타임, 그리고 수제 버터의 고소한 향미가 각테일 맛을 한껏 끌어올린다. “좋아하는 음악과 맛있는 술, 낯선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는 분위기까지, 망원동의 밤은 낮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셰레페(Şerefe, 건배!)” 부킷이 잔을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회우정로16길 25(빌렛 망원),
망원로6길 49(초쿤바)

Well past lunchtime, we head to Billet Mangwon to satisfy our hunger. Its bold red exterior, terrace with outdoor benches and tables, and lush indoor plant-filled interior evoke a Brooklyn eatery in New York. Every item on the menu feels like a headliner. The signature Egg and Bacon Pancake, with thick, fluffy pancakes topped with savory bacon and soft eggs, delivers a perfect sweet-and-salty balance. The pasta offerings are equally accomplished. The tour concludes at Chokoon Bar, a whisky bar ideal for ending the day. Inside, dreamy lighting and immersive sound envelop visitors. Buket orders her usual Peach Crush, where fragrant peach notes and tart cranberry create a harmonious blend. Alongside it comes crackers with lemon thyme butter. Spreading the citrusy, herb-scented butter onto crisp crackers heightens both the snack and the cocktail. “Good music, great drinks, and a place that warmly welcomes strangers. Mangwon-dong at night is even more beautiful than during the day. Şerefe,” Buket says, raising her glass with a wide smile.

Address 25, Huiujeong-ro 16-gil, Mapo-gu, Seoul (Billet Mangwon); 49, Mangwon-ro 6-gil, Mapo-gu, Seoul (Chokoon Bar)



한국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리부터 사람 냄새 물씬한
노포까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오래된
골목을 누볐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마산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마산역에서 100번 버스 승차 후 오동동문화광장 정류장에서 하차해 여행을 시작한다.





삶의 활기가 넘치는 전통 시장 마산 어시장

펼떡이는 활어와 산더미처럼 쌓인 건어물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마산 어시장이다. 생기 넘치는 마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다. 시초는 조선 시대 마산포와 마산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동법 실시 후 마산포에 대규모 창고인 마산창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이 개설됐다. 19세기 후반 마산포에는 수산물과 곡물을 실은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었고 어시장도 성황을 이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마산포 앞바다가 매립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영구적인 수산물 유통 기반을 갖추었고, 100년 이상 마산을 넘어 경상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명성을 잇고 있다. 어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새벽에 공판장을 방문할 것. 싱싱한 제철 수산물과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에서 어시장의 옛 명성을 엿볼 수 있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요리로 7



낡은 창고에 깃든 에스프레소 향기 짹짹커피 마산점

확자한 마산 어시장에서 바다 내음 가득한 활어 골목을 걷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과 마주하게 된다. 전통 시장 한복판에 동지를 튼 짹짹커피가 그 주인공.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벽면과 세련된 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에스프레소 바다. 낡은 창고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는 시장의 투박한 미감과 어우러져 이곳만의 독특한 오라를 완성한다. 오픈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시장 상인들의 고단함을 달래 주던 '달달한 믹스커피' 자리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 짹짹커피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적은 양에 한약처럼 진한 에스프레소를 낮설어하던 시장 사람들도 이젠 매일 아침 이곳에 들러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루틴이 되었다. 씹싸름한 에스프레소 위에 부드러운 크림과 브라운 치즈를 올린 '브라운 에스프레소'는 여행자도 꼭 한번 맛봐야 할 인기 메뉴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6길 50 문의 0507-1360-7241





화분 받침에 담긴 추억의 맛 6.25떡볶이

과거 경남 지역 최대의 의류 및 포목 도소매 시장으로 명성을 떨친 부림시장에는 지금도 한복, 침구류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 골목이 자리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시장의 긴 역사를 증명하듯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노포가 숨어 있다. 그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이 6.25떡볶이다. 가게 앞 좁은 시장 길목에 놓인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6.25전쟁으로 인한 피란 시절 풍경을 연상시켜 손님들이 붙여 준 이름이다. 6.25떡볶이에서는 떡볶이를 플라스틱 화분 받침에 담아 준다는 점이 특별하다. 제대로 된 테이블도 없이 낮은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손님들이 뜨거운 그릇을 편하게 들도록 화분 받침을 이용한 것이다. 배려와 실용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6.25떡볶이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국물이 자작한 국물 떡볶이는 어묵을 듬뿍 넣은 것이 특징. 간장과 설탕의 배합이 돋보이며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2길 16-23 문의 055-247-4830



넉넉한 인심과 1990년대 감성 담은 사랑이그린세상

마산 창동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카페, 사랑이그린세상을 만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자리를 지켜 온 이곳은 마산 시민들에게 '사그세'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작은 정원과 옛 다방의 아늑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독특한 분위기가 특징으로, 목조 가구와 낮은 칸막이로 구성된 좌석 배치가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다. 음료를 주문하면 갓 구운 식빵과 설탕을 문힌 와플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디저트가 무제한 리필된다는 것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베풀던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사랑이그린세상을 상징하는 고유한 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았다.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올린 옛날 파르페와 따뜻하게 데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훈훈한 감성이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6-24 문의 055-222-7710





마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추산동 언덕 위에 자리한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마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국공립 박물관이다. 2001년 개관 이후 마산의 유물과 사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3·15 의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다룬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마산 인근에서 출토한 조개더미 유물부터 개항기 마산항의 모습까지, 마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순으로 전시한 것도 매력적이다. 박물관 앞마당은 마산 시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기 좋은 뷰 포인트. 마산항과 마창대교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야외 전시장에는 지역 문인들의 시비가 세워져 있고, 마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문신의 작품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문신미술관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함께 방문하기 좋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문의 055-225-7171



반세기를 지켜 온 마산 대표 빵집 고려당 & 코아양과

마산의 가장 번성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창동 거리의 터줏대감, 고려당은 1959년에 문을 열어 60년 넘게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고 있다. 풀빵을 파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 1970년대에는 청춘 남녀들의 미팅 장소로 명성을 떨쳤고, 지금은 마산을 대표하는 추억의 빵집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당의 인기 메뉴는 꿀빵. 한 입 베어 물면 팔소의 묵직한 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연노랑색 빵가루를 소복이 뿌린 생크림 스틱과 쫄쫄한 찹쌀 도넛, 아삭한 사라다 빵 등이 차례로 입맛을 돋운다. 커피는 물론 핫초코, 레몬차, 작설차, 홍차 등의 음료와 함께 겨울에는 단팥죽도 판다. 고려당에서 몇 걸음 걸으면 커다란 간판과 아늑한 내부가 레트로 분위기를 자아내는 코아양과가 나온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우유의 부드럽고 진한 맛이 일품인 밀크셰이크와 옥수수 식빵. 초코, 딸기, 녹차 등 색색의 롤케이크도 추천 메뉴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0길 68(고려당), 불종거리로 28(코아양과)
문의 055-243-0011(고려당), 0507-1441-1458(코아양과)



인간은,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집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연극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은 인간의 욕망을
장수말벌에 은유해 현대사회를 그로테스크하게 비틀고 꼬집는다.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 집일때 벌어지는 일

© 김현준

겨울 숲은 참으로 고요하다. 동면에 들어간 여왕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진다. 벌 중 가장 덩치가 큰 장수말벌마저도 자취를 감춘다. 재앙 같은 겨울을 견딘 여왕벌이 봄에 깨어나면 숲은 생명의 소란함으로 가득해진다. 한겨울에 장수말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연극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이 장수말벌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장수말벌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다. 1년도 채 못 살지만 집을 지키려는 일벌의 치열한 모습, 그리고 관습처럼 내려오는 집에 대한 규칙을 통해 인간을 풍자한다. 쉽지 않은 창작 방법인 우화(寓話)를 이용해 인간의 어떤 면을 꼬집으려 한 것일까? 장수말벌의 세계가 인간 세계와 많이 닮았다는 발견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작가와 함께 성장하고 변모하는 희곡

신춘문에 희곡 부문 당선작과 관련해 특별한 사업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첫째는 '대한민국 신춘문에 페스티벌'이다. 한국연출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희곡의 완성은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것임을 전제해 신춘문에 희곡으로 당선된 모든 작품을 무대화한다. 작가라는 명칭이 어색한 신인 작가들이 자신의 희곡이 연극이 되는 과정, 그리고 관객에게 공개되는 순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

둘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봄 작가, 겨울 무대'다. 단막극으로 데뷔한 작가들이 여름까지 장막극을 창작해서 낭독극으로 발표하면 그중 몇 작품을 선별해 겨울 무대의 본 공연으로 제작해 관객에게 선보인다. 전자의 사업이 희곡의 무대화를 경험하는 사업이라면 후자는 창작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임선영 작가는 2023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희곡 <[Bae]; Before Anyone Else 어느 누구보다 먼저>로 등단했는데, 두 사업에 충실히 임해 작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줬다. 희곡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은 그 결과물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신춘문에 페스티벌에서 만난 손현규 연출가와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봄 작가, 겨울 무대'의 장막극으로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을 창작했다.

임 작가는 문제의식을 다양화하고 무대화하는 과정에 적극적이다. 창작진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수정 사항 등을 작품에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태도도 지녔다. 이번 공연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이 대표적 사례다. 처음 장막극으로 창작한 희곡은 여러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었다. 장수말벌을 다루기 때문에 여왕벌, 일벌은 물론이고 장군과 공주 등 집

“이 집의 규칙에 대해 말해 줬지? 첫 번째 규칙, 이 집은 우리의 전부다!”

을 건사하기 위한 많은 캐릭터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는 과감한 수정을 거쳐 일인극으로 만들었다.

작가 입장에서 일인극을 완성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명이 등장하는 작품을 일인극으로 수정하는 일은 고행에 가깝다. 모든 것을 새롭게 창작하는 마음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연출가와 많은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했기에 가능했다.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관객의 공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일인극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배우가 등장하는 낭독극에서 배우 한 명이 출연하는 일인극으로 작품 형태가 바뀌었다. 작가의 성장에 발맞춰 작품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 흥미롭다.

별 중에서 가장 포악한 장수말벌, 그와 똑 닮은 인간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은 장수말벌 이야기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꿀벌 같은 악한 곤충을 공격한다. 집이 전부라는 믿음 아래 분업 체계로 운영되는 장수말벌의 세계.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 곤충 경단을 만들고 집을 지키고자 노력하던 ‘장수말벌 90’은 잘못된 신념 때문에 꿀벌은 물론 함께 자란 자매들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보호해 온 집을 불태운다.

결국 집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장수말벌이 집을 지키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장수말벌 세계가 인간 세계와 겹쳐 보인다. 집을 장만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사는 수많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연상시킨다. 어쩌면 이 비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그 사체로 경단을 만드는 장수말벌의 섬뜩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잔혹함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인간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위해 장수말벌을 꼭 집어 선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수말벌은 별 중에서 가장 포악하기 때문이다. 전투조 10여 마리가 벌집 속 꿀벌들을 전멸시키기도 한다. 꿀벌의 사체는 애벌레에게 먹이기 위한 경단으로 만들고 꿀은 성충과 여왕벌의 영양분으로 활용한다. 천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장수말벌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인간을 닮았다. 하지만 아무리 집을 지키고 싶어도 겨울이라는 재앙 앞에서 장수말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작품은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집을 스스로 불태우는 극단적 결말로 집을 향한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강조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 장수말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

배우 한 명이 펼치는 장수말벌의 세계

일인극은 배우와 연출가에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다. 배우 입장에서는 작품 전체를 혼자서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 연출가에게는 배우를 보조할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권슬아 배우는 여왕벌, 공주, 장군, 장수말벌 5·89·90으로 변신하며 장수말벌의 집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오롯이 혼자서 책임지는 무대의 중압감에 눌리지 않고 편안하게 역할을 바꾸는 모습이 관객의 몰입감을 높인다.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손현규 연출가의 역할도 컸다. 무대 뒤에 세운 견고한 종이 상자 벽, 둥글고 크게 만든 실제 경단, 천장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알 등 무대가 비어 보이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와 오브제를 적극 활용했다. 영상을 잘 쓰는 연출가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영상 대신 입체적인 소품과 설치물로 무대를 완성했다. 배우 한 명과 무대 기술로만 구현되는 말벌의 세계.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택한 덕분에 장수말벌에 빚낸 인간의 속성을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정말 집이 전부일까? 정말 집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일까? 그런 집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집을 구성하는 존재는 집보다 가치가 없을까? 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연극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은 집에 연연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작은 집을 불태우는 일〉

임선영 작가와 손현규 연출가가 협업한 작품으로, '봄 작가, 겨울 무대'에서 선보인 장막극을 일인극으로 수정해 공연했다. 권슬아 배우가 여왕벌, 공주, 장군, 장수말벌 5·89·90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극이다.

기간 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4일

장소 서울 여행자극장

AI 시대의 역설 근본이즘

급변하는 세상에서 고전적 가치와
'원조'를 찾는 이가 늘고 있다.



본질의 회복을 향한 움직임

2025년 11월 국립경주박물관에 198만 명이 몰리며 30년 만에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다. 이유는 단 하나, 신라 금관 전시였다. 1500년 전의 찬란한 황금빛 유물 앞에서 사람들은 긴 대기 줄을 마다하지 않았다. 경주뿐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 '근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원조 맛집을 찾아 먼 길을 떠나고, 복각 제품에 지갑을 연다. SNS에는 '근본' '오리지널' 해시태그가 넘쳐 난다. AI가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 역설적으로 '진짜'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초의 원형과 진본을 존중하고,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태도를 '근본이즘'이라 부른다. 이는 단순한 복고 취향과 다르다. 레트로가 과거의 감성을 빌려 오는 것이라면, 근본이즘은 '이것이 시작이었다'는 기원에 대한 경의이자,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뿌리에 대한 인정이다. 이 트렌드는 SNS의 확산, 인공지능의 대중화와 맞물리면서 본격화됐다.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진 것. 무수한 복제와 변형 속에서 오리지널의 가치가 재발견된 것이다. 특히 MZ세대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원조 논쟁'에 열을 올리고,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꼼꼼히 따지며, 창업 연도와 본점 위치를 확인한다. 근본 없는 것에는 가차 없고, 근본 있는 것에는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지난해 상반기, LG전자는 1959년에 출시한 국내 최초의 라디오 'A-501'을 66년 만에 복각했다. 당시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만든 A-501은 6·25 전쟁 이후 다시 일어선 국민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했다. LG전자는 한국 가전 산업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 제품의 외형만을 재현하지 않았다. 원목 캐비닛의 질감과 둥근 다이얼, 황금빛 금속 그릴의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내부는 현대식 블루투스 스피커로 재탄생시켰다. FM 라디오는 물론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60대 이상에게는 청춘의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을 선물한 것이다. A-501은 출시되자마자 순식간에 완판됐다.

1938년 전주 가구 거리에 문을 연 시계방, 금성당도 마찬가지다. 건물의 구조적 특징과 원형은 보존하면서 카페와 독립 서점, 전시 공간을 더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이곳은 전주에서 꼭 들러야 할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옛 건물이라서가 아니다. 한 세기가 가까이 시간을 새겨 온 역사와 진정성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근본이즘은 과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지키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다. 추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진짜에 대한 신뢰'가 작동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검증된 오리지널에 기꺼이 손을 뻗는다.

경험하지 않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

흥미로운 것은 근본이즘 열풍을 주도하는 이들이 정작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라는 점이다. 1990년대생이 1970년대 LP판에 열광하고, 2000년대생이 필름 카메라를 메고 다닌다. 왜일까? 여기서 '아네모이아(anemoia)'라는 개념이 떠오른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뜻하는 이 말은 개인의 기억이 아닌, 문화적으로 전승된 집단 기

억에 대한 그리움이다. 지금의 20대에서 30대 초반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랐지만, 겪어 보지 못한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동경이 크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터치스크린 너머의 물성, 즉각적 삭제가 불가능한 기록에 매력을 느낀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클레이 루틀리지는 "AI가 부상하면서 모든 시선이 미래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미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를 풍요롭게 할 자원을 과거로부터 끌어 올리고, 과거로부터 현재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아네모이아의 목적이다. 젊은 세대의 근본 찾기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능동적 선택이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3초 만에 생성한 이미지보다 일주일 기다린 필름 현상 사진에 더 큰 애착을 느낀다. 클릭 한번으로 수정·삭제되는 디지털 기록보다 잉크가 번진 손 편지에 더 진심을 담는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대신 직접 발품 팔아 찾아간 맛집의 음식 사진을 SNS에 자랑스레 올린다. 이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깊이'를 되찾으려는 시도다. 모든 것이 쉽고 빠르게 손에 들어오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과거로의 도피가 아닌, 현재를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저항인 셈이다.

따라서 근본이즘의 핵심은 '선택적 계승'이다. 과거를 박제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가치를 현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능력 말이다. LG전자 라디오가 66년 전 디자인에 블루투스 기술을 접목했듯 근본과 혁신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견고한 뿌리 위에서 더 과감한 혁신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단순히 옛것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브랜드가 주목받을 것이다.

2026년의 키워드는 'AI와 인간의 공존'이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반대로 인간의 손길, 시간의 흔적,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기업들은 자동화와 효율만을 추구하기보다, '이것만은 기계에 맡길 수 없다'는 영역을 분명히 하게 될 테다. 가장 인간적인 특성에 오히려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추천하는 최적화된 선택보다, 때론 비효율적이더라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직접 고른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효율과 본질, 속도와 의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2026년의 과제다.

근본이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당신의 근본은 무엇인가?' 개인에게든 조직에게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존재한다. 동시에 시대에 맞춰 과감히 바꿔야 할 것도 있다.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는 도망칠 피난처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주춧돌이다. 그 주춧돌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해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Vol.1~2, <K뷰티 트렌드> 및 <미래 트렌드 연구실> 시리즈 공저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고려대학교 국토계획공기업 고급정책과정에서 '소비사회와 트렌드'를 강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정책홍보자문위원이다.

NEWS



소니코리아
GM2 트리니티 렌즈 정품 등록 프로모션 실시

소니코리아가 풀 프레임 카메라 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알파 7시리즈의 신규 모델인 '알파 7 V' 론칭을 기념해 3월 2일까지 GM2트리니티 렌즈 정품 등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광각렌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SEL1635GM2, 미래형 렌즈의 완성형인 SEL2470GM2, 망원렌즈의 새 패러다임을 연 SEL70200GM2 등 3종의 렌즈를 대상으로 한다. GM2 트리니티 렌즈는 뛰어난 해상력과 빠른 AF 속도, 경량화 설계로 사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 sony.co.kr/alpha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플레이버즈' 2026년 졸업·입학 대상자 무료 식사 제공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플레이버즈가 올해 졸업생과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 및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 2명 이상 방문 시 1명에 한한다. 플레이버즈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인터내셔널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으로, 오픈 키친 형태의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셰프가 즉석 조리한 메뉴와 호텔 페이스트리 셰프가 선보이는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인스타그램 @jwmarriottseoul



마리아나관광청
'인사이드런 W' 통해 런트립 매력 알린다

마리아나관광청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인사이드런 W에 참여해 러닝과 여행을 결합한 런트립 콘텐츠를 선보인다. 인사이드런 W는 러닝 종합 플랫폼 러너블(Runable)이 기획한 대규모 실내 러닝 페스티벌로, 10킬로미터 인도어 러닝을 비롯해 DJ 퍼포먼스, 러닝 인플루언서 토크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러닝 관련 브랜드와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여 러닝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행사다.

인스타그램 @themarianas_kr

VIDEO

〈영원〉

죽음 이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모습으로 사후세계 환승역에 도착한 조앤. 그곳에서 65년 인생을 함께한 남편 래리와 67년 전 사별한 첫사랑이자 전남편 루크를 동시에 마주한다. 살아생전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 조앤은 마지막 환승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2월 4일 개봉.

출연 엘리자베스 올슨, 마일즈 텔러 감독 데이빗 프레이н

〈레이디 두아〉

명품 브랜드의 아시아 총괄 지사장 사라킴이 하루아침에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다. 진실을 쫓던 형사 박무경은 이름과 나이, 직업과 배경이 모두 실제와 다른 사라킴의 실체와 마주한다. 거짓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이후 9년 만에 재회한 신혜선과 이준혁의 호흡도 기대를 모은다. 2월 13일 공개.

출연 신혜선, 이준혁 감독 김진민 제공 넷플릭스

〈왕과 사는 남자〉

'비운의 왕'으로 여겨온 단종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를 자처한 총장 엄흥도와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흥위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동안 몰랐던 단종의 시간을 섬세하게 펼쳐 내며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2월 4일 개봉.

출연 유해진, 박지훈 감독 장항준

〈초속 5센티미터〉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하는 신카이마코토 감독의 대표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가 실사 영화로 탄생한다. 원작의 정서를 어떻게 살릴지 궁급한 가운데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은 사진가로서 쌓아온 독보적인 감각으로 서정적인 영상미를 선보인다. J-팝 대표 뮤지션인 요네즈 켄시의 OST까지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2월 25일 개봉.

출연 마츠무라 호쿠토, 타카하타 미츠키

감독 오쿠야마 요시유키

〈넘버원〉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서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 그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한다. <가생충>에서 인상적인 모자 호흡을 보여준 최우식과 장혜진이다 시 만나 유쾌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연기로 공감을 이끌어 낸다. 2월 11일 개봉.

출연 최우식, 장혜진 감독 김태용



〈주말엔 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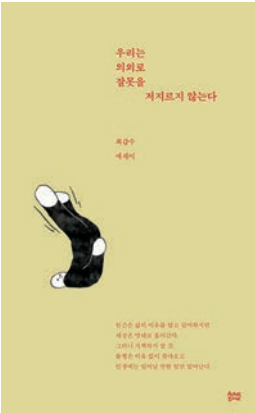
10년 넘게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윤설희 작가는 2019년부터 주말마다 방문한 100여 곳의 산사가운데 각별했던 일곱 곳을 섬세한 펜드로잉으로 기록했다. 공간마다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선암사부터 도심 속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봉은사까지, 남다른 감각으로 풀어낸 산사 이야기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미 있는 동행이 되어 준다.

윤설희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우리는 의외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최갑수 작가는 2024년 여름부터 1년간 매일 새벽 산책과 요리, 글쓰기를 반복하는 지극히 사적인 루틴으로 삶을 재건했다. 이 책은 그 회복의 과정을 담은 단단한 일기 형식의 기록이다. "삶은 거창한 결단기 아니라 오늘의 태도에서 바뀐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자책을 내려놓고 일상을 정돈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전한다.

최갑수 지음 얼론북 펴냄



BOOK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4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성국을 달리는 열차' © 유영복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XR(확장 현실) 교육 콘텐츠 개발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승무원의 비상 대응을 위한 XR(확장 현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업무 현장에 도입했다. XR 교육 콘텐츠는 KTX-산천 승무원의 핵심 안전 업무를 가상 환경에서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승무원은 디스플레이(HMD)를 머리에 착용해 열차 응급조치, 고장 대응 등을 3차원 환경에서 익힌다.

외국인 전용 통합 교통 패스 출시



코레일패스 플러스는 일정 기간 동안 KTX를 포함한 한국철도공사의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탑승하는 외국인 철도자유여행패스에 대중교통 선불 충전형 교통카드를 결합한 상품이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역에서 권종(2·3·4·5일권)을 선택해 코레일패스를 구입한 후 8000원을 추가로 내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철도 차량 핵심 부품 15종 국산화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50여 개 산학연 단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국가 연구 개발 과제인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부품 10종을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고성능·고효율 부품 5종을 개발하기 위해 1570억 원 규모로 추진했다. 그 결과 KTX-이음의 부품 국산화율을 90퍼센트 이상으로 높였다.

역명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공개



실제 기차역의 역명판을 디자인으로 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가 공개됐다.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익산역 등 전국 30개 기차역 내 스토리웨이에 해당 역의 교통카드를 4000원에 판매한다. 레일플러스 카드는 전국에서 호환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로 철도, 전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새해에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KORAIL이 되겠습니다

1

코레일톡 셀프 좌석 변경

승차중에도 승무원 없이 코레일톡에서 직접 좌석변경

2

KTX 실내환경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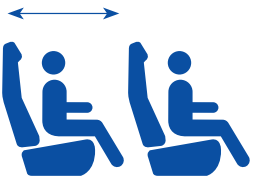
KTX 특실부터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세련되게 리모델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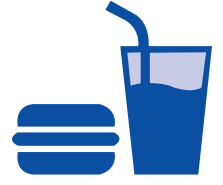
차세대 신형 자동발매기

해외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 기능, 배리어프리 디자인까지!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 93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신문 Newspaper
			
KTX 112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4·14호차 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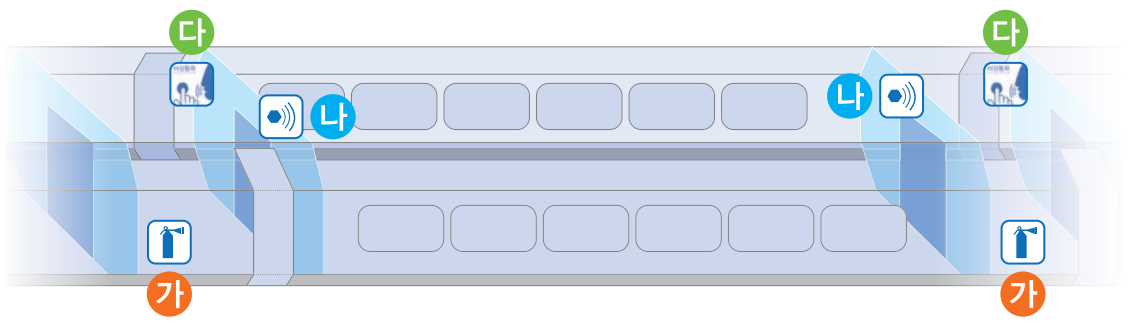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전 경과후~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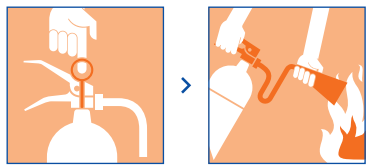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70%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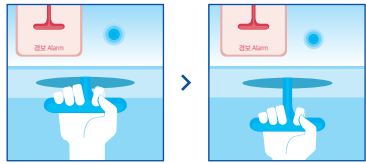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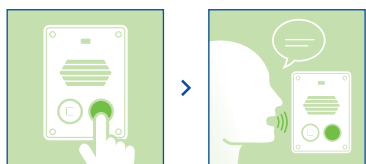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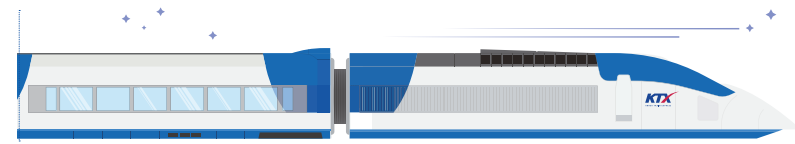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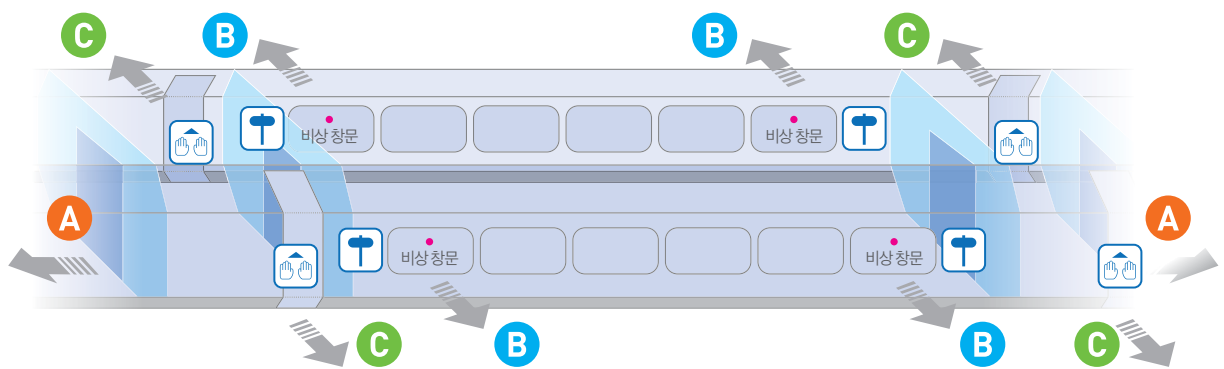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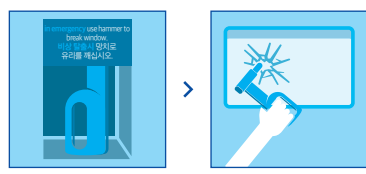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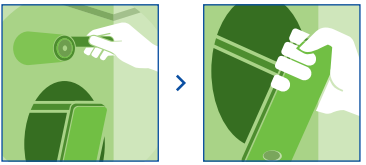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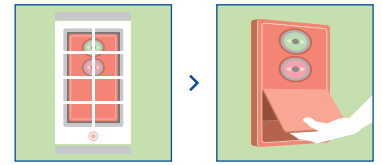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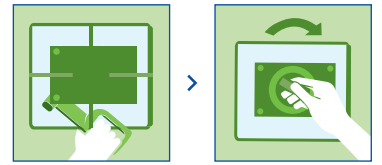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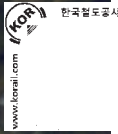
신지훈과 떠나는 음악 여행

눈처럼 깨끗한 음색을 지닌 싱어송라이터 신지훈. 그가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해 온 곡들이 내면의 순수한 감성을 어루만진다.



신지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2>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고, 2013년 디지털 싱글 'Right There'로 첫 곡을 발매했다. 삶의 다양한 작별과 이를 대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고,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를 써 깊은 여운을 남긴다. 대표곡으로 '소년시절'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시가 될 이야기' 등이 있다. 2월 초 단독 콘서트 <겨울의 작은 다방>을 열어 팬들과 만났다.



동심의 세계로 가는 플레이리스트

1 아직, 있다. 루시드폴

자신에 대해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깊이 알고 싶어 매일 밤 일기를 썼죠. 캄캄한 밤이 되면 혼자 구석진 방에서 나를 찾아가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던지. 그때 일기를 쓰며 들었던 노래입니다.

2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스무 살 무렵부터 2년에 한 번 동해에 보름살이를 하러 갑니다. 기타와 작은 캐리어만 들고 기차에 올라, 첫 곡은 언제나 이 노래를 골랐어요. 도입부 가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다 후렴부에선 여행의 설렘을 느끼죠.

3 진심 김광진

"꿈만큼 이룰 거예요." 유년 시절 저에게 낯선 조합의 문장이라 가사를 계속 되뇌었던 기억이 나요. 멜로디가 좋아서 자주 들었는데, 어색했던 가사를 여러 번 곱씹다 보니 어느새 저를 위한 주문처럼 다가오더라고요.

4 자유비행 신지훈

아픈 기억을 수백번 되감고 나니 마음이 해져버린 것 같았어요. 지난날의 기억을 잊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소망을 담아 쓴 노래예요. 곡을 만드는 동안 오랜 상처와 지친 마음을 이젠 놓아 주겠다고 다짐했죠.

5 The Promise of the World 바이쇼 치에코

이 노래의 담담한 가사를 들 때마다 먹먹했어요. 마음 한편에 접어 둔 동심이 떠올랐거든요. '세계의 약속'이라는 웅장한 제목으로 시작해 위안을 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아이가 되는 기분이에요.

6 How Long Will I Love You 존 보든, 샘 스위니, 벤 콜먼

10여년 전부터 가장 아끼는 영화로 항상 <어바웃 타임>을 꼽았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다는 걸 알려 준 영화예요. OST를 감상하며 생의 어디쯤에 있는지, 충분히 즐기고 있는지 생각해요.

출처: 멜론



동해선 KTX-이음 운행기념



관광지 할인 프로모션

할인기간 : 2025. 12. 30. ~ 2026. 2. 28.
삼척 철도 관광객 대상, 관내 관광지 할인



이용방법 : 매표 또는 매장 이용시, 열차승차권 제시 후 할인혜택 적용

대상지	할인 내용	관광지 전화번호
삼척해상케이블카	주중 시민할인가(주말제외)	☎1668-4268
해양레일바이크	주중 시민할인가(주말제외)	☎033-576-0656
수로부인헌화공원	주중, 주말 시민할인가	☎033-576-0589
해신당공원	주중, 주말 시민할인가	☎033-572-4429
환선굴	주중, 주말 시민할인가	☎033-541-9266
도계 유리나라, 나무나라	주중, 주말 시민할인가	☎033-570-4208~9
사립강원종합박물관	주중 단체요금 적용(주말제외)	☎033-541-1523
쓸비치 삼척(오션플레이&사우나)	주중 40%, 주말 30% 할인	☎033-803-7902
쓸비치 삼척(직영 식음업장)	10% 할인(주류제외)	

※ 주의사항 : (인정기간) 할인기간 내 이용한 열차승차권만 인정.
(도착지) 관내 4개 역사 이용 시 인정 : 삼척역, 근덕역, 임원역, 원덕역(관외역사 제외)
※ 운영상황(휴무일 등) 및 기타문의는 각 관광지 사전 별도 확인 필요.



삼척시

